



12

197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8. 12호

(루계 374)



◆◆◆◆◆◆◆◆◆◆ 차 례 ◆◆◆◆◆◆◆◆◆◆

| | |
|--|----|
| 주체적인 연극혁명의 빛나는 승리 | 4 |
| 조선혁명의 일대양양을 위한 역사적인 로정에 | 11 |
| 대한 불멸의 서사시적화폭 | 11 |
| 백두산기슭으로 굽이쳐흐르는 혁명의 대하! | 19 |
|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덕성에 대한 불멸의 송가 | 21 |
| 중국잡지 《세계문학》이 우리 나라의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피바다》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의 제 5 장 전문을 실었다. | 23 |
| 영원히 교대없는 초소 | 24 |
| 굴포땅 | 25 |
| 웅기의 밤 | 26 |
|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예술적형상성을 더욱 높이자 | 27 |
| 성실하게 산 사람 | 30 |
| 천만년 빛내가리라, 주체의 조국이어 | 40 |
| 혁명전위의 노래 | 41 |
| 주체의 빛발 넘치는 강산에서 | 42 |

| | |
|-----------------------|----|
| 다듬은 말 | 43 |
| 사랑 다할길 없는 조국에 | 44 |
| 어린 제자들에게 | 45 |
| 창문너머 붉은 노을 | 46 |
| 눈내리는 밤 | 47 |
| 행복이 깃든 수도의 거리에서 | 57 |
| 고원의 꽃 | 59 |

주체적인 연극혁명의 빛나는 승리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에 대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이 창조된 때로부터 50년이 되는 이해에 당의 세련된 지도 밑에 이 작품을 주체시대의 새로운 혁명연극의 본보기작품으로 다시 무대에 올려놓은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항일혁명연극의 첫 기념비적 불후의 고전적명작인 혁명연극 《성황당》이 오늘 우리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된것은 연극예술발전력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조하는것은 조락의 길을 걷던 연극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근본문제였으며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였다.

인민대중의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는 낡은 연극예술에서 종지부를 찍고 새형의 연극예술의 탄생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연극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되었을뿐만아니라 연극자체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되었다.

신과적이며 실내극적인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18~19세기 연극과 보수적이고 진부한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나라들의 현대연극은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는 마지막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영화와 가극을 비롯한 예술의 모든 부문이 현대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만큼 이에 따라 연극예술의 형상수단들과 요소들도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바로 이 성숙된 력사적과업은 우리 당에 의해서만 빛나게 수행될수 있었다.

우리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에 기초하여 연극의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현실을 립체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새로운 시대극을 창조할데 대한 주체적인 연극혁명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을 무대에 다시

올리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1

연극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연극의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의 기초로 되는 희곡문학을 혁명화하는것이다.

혁명적희곡문학의 최고의 본보기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그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식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완벽하게 통일되어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사람들을 종교와 미신에서 해방하는 문제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해명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적심오성과 철학성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구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사람은 신이나 종교를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힘을 믿고 자기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종자로 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작품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깊이있게 해명하면서 자주성에 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 있다.

근로인민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주체시대는 희곡문학으로 하여금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작품은 야학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세상에 신이나 하느님이 없다는것을 깨달은 돌쇠의 형상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지도 않는 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주도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지난날의 풍자극에서는 긍정적인물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았으며 진보적문학의 경우에도 인민대중을 부차적인 자리에서 동정의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그리는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지주와 구장놈은 치부목과 권세욕에 피눈이 되어 가난한 농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성황터부대밭

을 빼앗으며 복순이를 군수놈의 셋째첩으로 바치며 면장자리를 얻어보려고 서로 으르렁거린다.

총명하고 락천적인 머슴청년 돌쇠는 지주와 구장놈의 음모를 앞질러 파탄시키기 위하여 그놈들을 성황당에 유인하여 싸움을 붙이게 함으로써 부화방탕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놈들의 계급적본질을 적라라하게 폭로단죄하고있다.

또한 자기의 불행한 운명을 《신의 힘》에 의탁하여 해결하려는 박씨의 형상은 농민들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할 때에는 간악한 원수놈들에게 억울하게 통락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주와 구장놈의 위협공갈앞에서 가슴을 치며 어쩔줄 모르다가 믿을것은 오직 신령님밖에 없다고 통탄을 하던 박씨는 지주놈과 무당년한테 속히위 자기 딸의 신세를 망칠뻔 하였다는것을 깨닫고 자신의 손으로 성황당을 까부신다.

박씨의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사람이 잘 살려면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힘을 믿어야 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의 위대한 진리를 깊이있게 밝혀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작품은 자기의 리속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범죄적책동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인간 백성이며 력사발전의 역행자이며 추물들인 황지주와 구장, 전도부인과 중, 큰 무당의 형상을 통해서 종교와 미신의 허위성과 기만성, 그의 반동성을 날카롭게 폭로단죄하고 있다.

작품은 미신타파의 단순한 계몽적인 사상만을 해명한것이 아니라 낡고 반동적인 온갖 추물들을 신랄한 풍자적웃음으로 폭로비판하면서 아편과도 같은 미신과 종교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제정신을 가지고 제힘을 믿으면서 건결히 싸워야 한다는 생활의 철학을 깊이있게 해명하고 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주체시대의 요구와 혁명적인민들의 진실한 념원과 지향을 가장 철저히 반영하고 있으며 사상예술적내용에서 종래의 모든 연극과 뚜렷이 구별된다.

실로 위대한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혁명연극 《성황당》은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위대한 진리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심오한 사상적내용으로 일관된 철저히 혁명적이며 시대의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극구성과 극작술에서도 종래의 낡은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독창적인 경지를 개척한 새형의 혁명연극이다.

지난날 극구성은 생활을 몇개의 막과 장에 나누어 평면적으로 라렬하고 뒤생활과 막앞의 생활을 대사로써 길게 설명하도록 되어있었다.

이와 같은 평면적인 구성으로써는 생활을 립체적으로 반영할수 없었으며 인간의 성격과 생활의 흐름을 현실 그대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릴수 없었다. 가령 4막극의 틀속에 매 막의 순서에 따라 기승전결을 설정하고 생활을 거기에 인위적으로 틀에 맞추던 실내극을 보아도 그렇다.

무대적인 특성앞에서 제약을 받고 구속을 당하던 희곡의 낡은 틀은 수세기를 걸쳐 내려오면서 좀체로 가셔지지 못하였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막을 닫고 다음 장면을 준비하기 위해 지루하게 기다리던 낡은 틀을 없애고 이야기줄거리와 생활의 논리에 맞게 극을 여러 장면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련결되여나가면서 관객들을 사상정서적으로 공감시키고 있다.

또한 매 장마다 막을 닫군하던 낡은 틀을 없애버리고 막전환 사이시간에도 다음 장면에 대한 기대를 주는 막앞의 생활을 련속적으로 펼쳐보이고 있다.

이것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막과 장을 자유분방하게 련결해주는 새로운 극작술을 도입한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여러개의 장면을 설정하면서도 그 매개의 장면을 작품의 종자를 기준으로 하여 통일시키고있으며 극에 설정된 인물과 갈등, 사건과 같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종자를 뚜렷하게 살리는데로 집중시키고 있다.

이 작품의 구성의 특성은 모든 이야기거리와 사건들이 극의 발전에 따라 복잡하게 얹히면서 그것이 작품의 종자를 밝히고 주선에 맞물려 들어가게 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작품의 중심에는 지주와 구장놈이 농민들의 피땀으로 일구어놓은 성황터밭을 서로 자기의것으로 만들려는 사건, 지주와 구장놈이 서로 면장이 되기 위해 며칠후이면 결혼식을 하게 될 복순이를 군수놈의 셋째첩으로 보내려는 사건이 놓여있다.

이 사건들은 성황터밭자리에 레배당을 지으려는 전도부인과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있는 자그마한 땅마저 빼앗아가려는 중놈과 면장이 되려고 큰 무당까지 끌어들이는 지주놈과 구장놈과의 관계로 하여 더욱 복잡하게 얹혀진다.

성황터부대발문제와 복순이를 끌어가는것을 두고 착잡하게 얹힌 사건들은 극의 중심에 서서 놈들의 계략을 짓부시는 주인공의 행동선에 치밀하게 맞물리면서 주선을 살려나가고있다.

구성에서 주인공 돌쇠는 여러 인물들을 련결시키고 끌고나가는데서 언제나 중심에 서있다.

돌쇠는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중심에 서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며 그가 움직이는데 따라 다른 인물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나가던 구장과 그놈의 처를 지주집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성황터부대밭을 놓고 지주와 구장놈이 싸우게 한 돌쇠는 중과 전도부인까지 유도하여 그 싸움을 더욱 확대시켰고 성황당에서 그 싸움이 절정에 달하게 하였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대목에서도 주인공이 던진 미끼에 의하여 극적정황이 과생되어 지주와 구장놈을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썹들의 진면모가 풍자적으로 밝혀지게 하였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장면이 번져져나갈 때마다 이야기줄거리가 새롭게 전개되고 극적긴장성을 주면서 극을 상승시키고있다.

이야기의 흐름에 정서적인 굴곡을 만들어놓으면서 관중의 마음을 죄었다풀었다 하는것은 구성의 책임새와 완벽성을 담보한다.

작품에서는 돌쇠의 행동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 다양하고 흥미있는 생활을 주름잡으면서 극을 굴곡있게 상승시키는데서 극의 긴장도가 첨예화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대사조직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있다.

지난날의 대사조직에서는 뒤생활과 막앞생활을 지루하게 설명하거나 등장인물이 자체의 생활적인 말보다도 작가적인 간섭에 의한 인위적인 말로 엮여지는것이 보통이었다.

주체적문예리론에서는 대사는 성격의 기본표현 형식이며 성격발전은 대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아니라 대사조직의 목적자체가 성격을 명백히 표현하며 종자와 사상을 밝히는데 있다고 가르치고있다.

작품에서 중과 전도부인, 큰 무당 등 잡귀신들이 모여서 싸움을 하는 1부 마지막은 대사조직의 극치를 이루고있는 장면이다. 사람들앞에서는 녀불을 외우고 육식을 하지 않는다던 중이 뒤에 가서 개고기와 술을 먹는가 하면 신성한 교리를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부화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는 전도부인, 그리고 신령님의 힘을 빌어 사람의 사주팔자와 신수를 판단하고 복과 화를 예고해 준다는 무당들이 사기협잡을 하여 돈과 재물을 훔쳐가는 마귀들이라는것을 폭로하는 대사조직들은 자체폭로의 수법으로 풍자적성격의 내면적본질을 예리하게 드러내고있다.

주인공의 성격을 표현하는 대사들은 지혜롭고 탁월적인것으로 채색되고있다.

야학에서 글을 배우면서 계급적으로 눈이 뜨기 시작한 주인공은 현실반항의 정신으로부터 온갖 사

회적불평등과 계급적모순으로 얽혀진 현실에 대하여 야유풍자하는 우스개소리를 많이 하게 되며 농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심과 동정이 어린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소박하고 구수한 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비유와 속담, 성구들로 엮어진 대사들은 돌쇠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리해될수 있는 인민적이며 통속적인 말, 구수하고 소박한 선돌마을농민들의 개성적인 말투, 성격의 본질을 드러내는 독백과 방백들, 정확하고 함축성이 있는 생활적인 말들은 성격과 생활묘사의 개성화를 달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대사들은 모두 생활적인 대사들로 이루어졌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대사는 인물의 성격과 정황에 맞게 뜻이 깊게 써야 하며 그 정황과 계기에서 그 인물이 할수 있는 말은 오직 한가지뿐이다.

이 대사들은 성격자체의 요구에서 우러나온 대사들이며 부여된 환경에서 진실하게 흘러나온 대사들이다. 때문에 그 대사들은 모두 것처럼 생동하고 인상깊은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풍자극에서는 정극적인것과 비극적인것을 배제하면서 처음부터 마감까지 풍자적웃음으로 관통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낡은 풍자극리론에 중지부를 찍고 새롭고 독창적인 양상을 개척하였다.

지난날에는 풍자적인 형식에 내용전반을 억지다짐으로 들어맞추는 만성적인 형식주의극작법이 유행되어왔다. 그리하여 풍자극이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웃겨야 하며 정극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하여 양상이라는 형식을 리용하며 생활의 논리에 따라 웃음도 있고 정서도 있게 끌고나가야 한다는 원칙적인 문제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었다.

내용을 떠난 형식이 있을수 없듯이 생활을 떠난 풍자극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연극 《성황당》도 처음부터 풍자를 목적으로 창작한것은 아니었다.

이 작품은 당시의 시대적조건에서 종교와 미신의 허위성, 기만성, 반동성을 폭로하고 인민들을 각성시켜 그것을 반대하여나서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생활의 진실을 그리는 과정에 풍자극이 된것이다.

더구나 주인공이 긍정인물이며 인민대중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인것만큼 슬픔과 기쁨, 정극적인것을 담아야 생활의 논리에 맞을수 있다.

주인공은 두말할것도 없고 복순이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만춘이만 보아도 모두 천대받고 압박받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생활에는 한가닥의 기쁨과 함께 고민도 있고 눈물도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을 놓치지 않고 진실하게 잘 그리기 위해서는 양상을 통일시킨다고 하여 작품을 풍자적웃음만으로 관통시키려는 낡은 극작술을 타파해야 한다.

작품에는 간교하고 포악한 착취계급들의 생활속에서 흘러나오는 예리한 풍자적웃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주인공의 성격속에서 나오는 웃음도 있고 복순이와 그의 어머니의 생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슬픔도 있는것이다.

혁명연극에서 풍자적대상들에 대한 폭로와 단죄가 것처럼 신랄하고 무자비한것은 극의 중심에 돌쇠를 비롯한 긍정적주인공들이 서있고 그들에 의하여 극이 긴박성있게 전개되고있는 사정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또한 작품에서 교활하고 포악한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가 이처럼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것도 바로 복순이와 그의 어머니의 고민과 슬픔이 절절하게 울려나왔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작품은 풍자적인것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적극적인것, 서정적인 요소도 있는 독특한 양상의 풍자극으로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혁명성과 전투성, 철학성을 가진 주체사상적내용과 새롭고 독특한 극조직으로 엮여진 예술적형상의 완비성, 생활반영의 진실성으로 하여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안겨주는 훌륭한 교과서로, 공산주의연극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

2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을 다시 무대에 올리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지난날의 낡은 연극형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우리식의 새로운 연극형식과 형상방법을 창조한것이다.

시대와 주체예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연극형식과 형상방법을 찾아낸것은 수십세기를 걸쳐 내려오던 낡은 연극의 틀을 마스고 연극예술을 혁명화하는데서 근본적인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부문에서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율, 새로운 리듬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줄 알아야 합니다.》

연극예술을 참말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되게 하자면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혁신하는것과 함께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미감에 맞는 새로운 극형식을 창조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우리 시대의 연극예술은 생활자체의 형식으로 현실을 립체적으로 반영할것을 요구한다.

현실 그대로의 립체적인 무대형상, 이것은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중요한 특징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이 립체적인 무대화목을 창조할수 있는것은 연출, 연기, 무대미술, 음악 등 모든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 새로운 형상수단과 형상방법을 찾았기때문이다.

새로운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립체적인 무대형상은 무엇보다먼저 종합예술의 여러 형상수단들을 하나의 전일적인 무대형상으로 조화시키고 통일시키는 연출예술에서 연극의 특성을 살리면서 관중의 심리를 틀어잡을수 있는 일련의 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혁신함으로서 이루어질수 있었다.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폭넓고 깊이있는 무대형상수단들의 활용, 연극의 정서와 감흥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음악의 새로운 도입, 일련의 기술적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실내극의 답답하고 수공업적인 틀을 마스고 무대공간을 넓게 쓰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유분방하게 담을수 있는 새로운 무대형식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무대예술의 제약성앞에서 어쩔수 없었던 낡은 연출방법은 물리나게 되었으며 등장인물들의 생활환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펼쳐보일수 있는 새로운 극형식이 이루어질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연극의 형식을 개척하는데서 연출예술이 달성한 혁신적성과이다.

서장에서 검은 구름을 헤치고 솟아난 성황당의 자막과 함께 선돌마을의 배경이 흐르면서 뒤무대중심에서 농민들의 로동장면이 펼쳐지고 앞무대에서 주인공의 생활이 동시에 진행되는 립체적인 무대화목은 무대라는 인상을 주는것이 아니라 폭넓은 산 인간들의 실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출에서 대사와 행동만으로 극을 엮던 파분하고 무미건조한 낡은 연출수법을 없애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다양한 묘술을 부린것은 새로운 형식창조에서 일대전진으로 된다.

9장 성황당 장면에서 원쑤들을 단죄하는 돌쇠의 목소리를 대변하듯한 회성병력, 아름드리나무가 벼락에 맞아 꺾어지는 소리, 지주와 구장년놈의 뉘를 잃게 한 장승과 부영이 눈에서 발산되는 불빛, 그리고 놈들을 제압하면서 돌아가는 성황당의 움직임

등 작품의 결정장면을 장식한 다양한 연출적수법들은 그 좋은 실례의 하나이다.

연출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신은 또한 사건본위로 나가던 연출체계로부터 감정조직의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감정조직을 생각밖에 두었던 지난날의 사건본위의 연출방법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 대신에 사건체계의 앙상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극조직에서 기본은 감정조직이라는것을 밝혀주었다.

혁명연극 《성황당》에서는 매 장면마다 초점까지 끌어올라가는 감정의 축적과정이 진실하기때문에 관객들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놓고있다.

풍자의 극치를 이룬 제2장 지주집 장면의 첫 대목에서 지주와 구장놈사이의 개싸움을 분수령으로 하여 조성된 감정조직만 보더라도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처음에 지주놈은 구장놈이 동네사람들앞에서 자기에게 온갖 인격적인 모욕을 했다는 돌쇠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당장 요정낼 자신만만한 감정상태로 허장성세하다가 구장놈이 정작 나타나자 위축되어 움츠러든다.

여우처럼 교활한 구장놈이 약을 올리자 지주놈은 감정의 탕개를 풀리면서 정면대결의 상태에까지 이른다.

연출형상에서는 지주와 구장놈의 대비적인 감정에 각광을 주면서 감정을 축적해오다가 개코망신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더는 참을수 없는 감정상태로 상승시키고있다.

이 개싸움 장면에서 그렇듯 통쾌한 폭소를 터뜨리는게 되는것은 연출형상에서 회극적인 성격들의 감정축적과 그 폭발과정을 섬세하게 조직한 결과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에서 감정조직의 참다운 본보기가 창조됨으로써 사건의 뒤꼬리를 쫓아가던 흥미 본위적인 낡은 수법이 물러나게 되었으며 인간의 운명과 생활의 철학을 깊이있게 파고드는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무대형상창조에 맞는 새로운 연출방법이 확고히 서게 되었다.

연출형상에서 새롭게 시도한 측면의 다른 하나는 양상을 잘 살린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풍자극에서 양상은 연출가가 재간을 부려서 통일시켜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긍정인물까지 풍자인물들처럼 회극적으로 형상하는 종래의 낡은 연출방법을 없애고 생활의 론리대로 긍정인물들을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정서도 있게 다양하고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연출에서 풍자적인것과 정극적인것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계급적원수들을 단호하게 폭로비판하는 풍자적웃음을 위주로 하면서도 여기에 모진 확대와

굴욕속에서도 행복한 태일을 꿈꾸는 정서적인 장면과 리별을 앞둔 청춘남녀의 피눈물나는 장면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연출예술이 다양한 감정을 련결시키는데서 재치있게 해결한것은 웃음으로부터 눈물으로 넘어가고, 정서적인것으로부터 웃음으로 넘어가는 대목들을 튀지 않게 잘 조화시킨것이다.

다양한 감정으로 넘어가는 련결부를 잘못 처리하면 웃게 되는 무리한 정황이 조성될수 있다.

연출에서는 바로 이러한 감정의 계기들에서 심리적준비를 시키고 정서적여유를 주는 다리를 자연스럽게 놓고있다.

《성황당》식 혁명연극이 양상창조에서 이룩한 성과는 또한 풍자적웃음과 긍정인물들의 정극적인 요소를 돌쇠의 행동선을 기준으로 하여 조화롭게 통일시킨것이다.

주인공 돌쇠는 원수들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풍자적웃음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긍정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생활략천적인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작품은 극의 중심위치에 선 돌쇠의 성격을 잘 끌고 나감으로써 양상통일에서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성황당》식 혁명연극은 풍자극발전에서 미개척지로 남아있던 양상의 통일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연출형상방법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수있게 하였다.

연극혁명의 중심고리의 하나는 배우예술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관객들이 연극을 통하여 오늘의 현실을 립체적으로 보게 하려면 무대에서 움직이는 배우를 보게 할것이 아니라 산 인물들의 움직임 그대로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지난날 배우예술은 낡은 연극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현실속에서 생동하게 숨쉬며 움직이는 산 인간을 진실하게 그려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연극예술발전에서 제동기를 쓴 신파와 과장이 남아있기때문이다. 지난날 배우들은 무대뒤까지 말이 잘 들리게 하고 얼굴표정과 동작까지도 관객들이 뚜렷이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무대적특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과장된 연기를 하였다. 게다가 흥미본위주의를 추구한 신파연기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음으로 하여 배우예술분야에서는 진실한 연기의 본보기가 창조되지 못하고있었다.

배우연기에서 도식과 과장이 심하게 나타난것은 특히 화술분야였다.

목을 누르면서 소리를 크게 치던것이 지난날 연극배우화술의 고전적인 버릇이었다.

우리당은 화술혁명에 선차적관심을 돌리고 배우의 화술을 결정적으로 해결할때 대한 독창적인 방침과 리론들을 밝혀주시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에 나오는 배우들의 화술은 아름답고 유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적인 말투와 감정의 세세한 색깔을 잘 나타냄으로써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 그들을 극의 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한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연기형상에서 고질적으로 내려오던 신과와 과장을 철저히 극복한것은 연극혁명의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

배우연기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혁으로 하여 형식주의연기의 마지막 잔재가 청산되고 사실주의연기가 완성되게 되었으며 연극무대에서 산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줄수 있는 본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배우예술에서 이룩된 성과의 하나는 또한 역의 성격을 개성화한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에 나오는 주단역배우들의 형상은 어느것 하나 개성화되지 않는것이 없다.

배우들은 역의 주도적인 성격을 예리하게 살리면서도 다면적이고 풍부한 감정세계를 섬세하게 형상하였다.

우리가 이 연극을 통하여 1920년대말의 사회상을 방불하게 볼수 있는것은 배우들이 작품에 묘사된 그 시대의 력사적인 생활양식, 풍습, 말투, 걸음걸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형상에 적극 구현한 결과이다.

《성황당》식 배우예술은 성격창조의 예술로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함으로써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연기의 표본으로 되었다.

《성황당》식 혁명연극은 음악을 적극 도입하여 극의 형식을 새롭게 풍부화함으로써 연극에서 음악을 기본형상수단의 하나로 되게 되었다.

지난 시기에는 연극의 특성을 살린다는 구실밑에 음악은 도외시되었다. 음악을 더러 쓰는 경우에도 기성음악들을 끌라 생활정황에 비슷하게 틀어맞추는 등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에서는 현대적미감에 맞는 음악 선율을 써서 주인공들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일뿐아니라 장면의 서정성과 배우들의 연기를 돋구어주는 원칙에서 음악을 써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었다.

혁명연극 《성황당》에서는 1920년대말 시대적환경을 취급하면서도 거기에 쏘여진 음악은 부드럽고 유순하며 현대적미감에 맞는 선율로 일관되고있다.

이 작품의 음악은 돌쇠, 박씨, 복순이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심리세계를 대변하는 음악으로써 배우연기와 장면의 서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이 혁명연극에서는 음악을 도입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연극의 특성을 잘 살리게 하였다.

대사를 위주로 하는 연극의 특성을 잘 살리자면 관현악전주로써 극세계에로 안내하다가 적절한 사이를 두고 배우가 행동할 때 방창을 울리게 하고 대사가 다시 시작될때 관현악후주로써 여운을 조성하면서 결속해야 한다.

또한 연극의 특성을 살리는데서 소방창과 합창보다도 독창적형식으로 된 방창을 쓰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음악은 주제를 필요한 대목에 반복하여 씌으로써 주인공의 성격과 작품의 종자를 서정적인 감흥속에서 인상깊게 부각하고있다.

연극에 새롭게 시도된 련결음악은 장면전환식극 흐름의 공간을 메꾸는 작용을 함으로써 지루감이 없게 하였을뿐아니라 감정을 중단함이 없이 지속시키는 서정적다리의 역할도 놀게 하였다.

련결음악과 함께 분위기음악들도 등장인물의 성격과 장면의 극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9장에서 돌쇠와 만춘이에 의하여 떡짜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구장이 순대를 보고 구렁이라고 미쳐 돌아갈 때 울리는 풍자음악은 미신에 환장하여 멸망에 직면한 놈들의 정신상태를 형상적으로 부각해 주고있다.

음악창작에서 이와 같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다양한 수법을 받아들인것은 연극의 형상수단에서 저버림을 받던 음악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한 본보기로, 시발점으로 된다.

연극의 형식을 변혁하는데서 관건적문제로 제기되는것은 무대미술이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낡은 무대예술로써는 장엄한 현실을 폭넓게 담을수 없기때문이다.

시대적요구에 맞게 립체적무대미술형상을 창조하는 근본조건의 하나는 어둡컴컴하고 평면적인 무대미술의 낡은 틀을 완전히 마사버리는것이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의 립체무대형상은 등장인물의 생활환경과 행동조건을 고정불변한 틀속에 몰아넣곤하던 낡은 틀을 마스고 배경을 시원스럽게 띄워주고 무대공간을 립체적으로 넓게 쓴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무대미술에서는 장치물자체가 립체감이 나게 만들고 그것을 근경, 중경에 따라 조형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무대라는 감을 많이 주던 종막, 횡막앞에 선돌마울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무대 미술에서 세계적기준을 세운것은 새로운 무대전환법의 창조이다.

연극에서 한 장면을 끝내면 다음 장면의 무대 전환을 위해 불을 끄고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는것은 연극이 시작된 이래 수천년을 두고 답습해온 형식이었다. 기다리는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던 이와 같은 막전환방법은 연극의 흐름과 감정을 깨뜨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무대전환에서 혁신을 일으켜 연극을 연속적으로 보게 하고 관중들로 하여금 극세계에로 깊이 끌려들어가게 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연극이 반드시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로 되었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의 무대미술은 이러한 요구에 대답하여 연속적인 무대전환방법을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시대 연극무대미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연극의 무대미술은 인물이 움직이고 생활환경이 달라지는 계기들과 장면변화를 마치 영화에서처럼 흐름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주인공들의 행동선과 생활의 흐름을 자연스럽고도 즐기치게 뻗어나가게 하고 있다. 연극에서는 서장과 1장, 9장과 종장과 같이 불밝은 상태에서 배경과 장치들의 유기적흐름에 의한 전환법도 있고 3장과 4장, 5장과 6장 전환에서처럼 장치물자체가 이동하거나 회전하게 하는 전환법도 있고 7장과 8장에서처럼 흐름막에 의한 전환방법을 쓰는 등 다양한 형식과 수법을 널리 적용하고있다.

그리하여 정적이며 고착된 상태에서 장면을 전개하고 막과 장이 끝나면 막을 닫군 하며 정황이 달라질 때마다 암전을 하여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하던 무대미술에서의 낡은 무대전환방법은 연극무대에서 영원히 밀려나게 되었다.

참으로 무대전환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은 무대미술에서 일대혁명으로 될뿐아니라 연극을 포함한 무대예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된다.

《성황당》식 무대미술에서 이룩한 혁신적성과의 다른 하나는 연극력사상 처음으로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현명한 방침을 연극무대창조에 완벽하게 구현한것이다.

이 작품의 무대미술은 지난날의 무대미술의 어둡고 칙칙하던 색조와 분위기를 없애고 선명하고 간결한 조선화의 화법과 부드럽고 연하면서도 밝은 색감으로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맛을 살리었다. 선돌마울의 아름다운 풍경, 단풍든 나무들과 높고 낮은 산들, 무르익은 강냉이밭, 수양버들 휘늘어진

물방아간의 달밤장면 등을 비롯한 연극의 모든 장면들과 아름다운 화폭들은 이에 대하여 잘 말하여 주고있다.

이밖에도 혁명연극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구미에 맞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의상과 건축, 그리고 공예미술의 우수한 예술적재부들을 널리 리용하였을뿐아니라 실지 산사람의 모습대로 설게하게 형상하는 분장예술 등 무대미술의 모든 요소들에서 새로운 본보기를 창조하게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무대 미술은 《피바다》식혁명가극무대미술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최고수준에 오른 립체무대미술의 본보기로 되었다.

참으로 《성황당》식혁명연극창조에서 새로운 극작법을 받아들이고 연출, 배우연기, 음악, 무대미술 등 여러 부문에서 일으킨 근본적인 변혁은 주체적인 연극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장식한 근본열쇠로 되었다.

* * *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혁명연극 《성황당》이 50년이 지난 오늘의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된것은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혁명연극이 오늘의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됨으로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승리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혁명연극 《성황당》을 다시 무대에 올린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에서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일으킨 다음 연극혁명위업이 빛나게 수행되었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연극혁명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연극발전에서는 새로운 력사적시원이 열리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혁명가극의 조국》으로뿐만아니라 《주체적인 혁명연극의 조국》으로 되게 되었다.

또한 혁명연극 《성황당》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의 수많은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교과서로 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종교와 미신을 침략의 길잡이로 내세우고있는한 혁명연극 《성황당》의 이야기는 결코 지나간 이야기로 되지 않을것이며 이작품은 앞으로 더욱더 커다란 교양적힘을 나타내면서 온 누리에 빛을 뿌릴것이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문예리론의 정당성, 그리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일대시위로 된다.

조선혁명의 일대양양을 위한 역사적인 로정에 대한 불멸의 서사시적화폭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대하여-

총서 《불멸의 역사》에 속하는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나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불멸의 예술적화폭이며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문학의 성과를 과시하는 기념비적작품이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우리 인민들의 유일 사상교양, 혁명교양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이며 주체적인 문학예술건설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된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항일무장투쟁사에서 가장 간고하고 뜻깊은 시기인 1936년 3월부터 1936년 5월초에 이르는 남호두로부터 백두산기슭에로의 조선인민혁명군의 역사적인 진군로정을 반영하고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인민혁명군의 남호두로부터 백두산기슭에로의 진군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역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진행된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성된 이 유리한 정세하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인민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가일층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주체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조선혁명운동발전의 근본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당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신데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 주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그 관철을 위한 역사적인 진군을 개시하시으로써 조선혁명을 조선사람의 힘으로 끝까지 완수할수 있는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시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조직진행된 남호두로부터 백두산기슭에로의 역사적인 진군은 실로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와 조국

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기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이었다.

이러한 사회력사적사변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역사적으로 실재한 사실들과 사건들, 인물들을 그대로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내용이 명백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기념비적대작으로 되었다.

소설은 남호두회의의 이후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속에서 진행된 국경지대에로의 진출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어떻게 꾸리시고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어떻게 창건하시였는가 그 길우에서 전반적인 반일민족해방투쟁이 어떻게 일대양양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생활적화폭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그 형상체계와 예술적화폭의 전반을 통하여 조선혁명의 일대양양을 위한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가적품모와 고매한 덕성을 실지 사실에 기초하여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고 열정적으로 소리높이 칭송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장편이 달성한 거대한 사상예술적성과가 있으며 그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과 풍부한 교양적가치가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의 남호두로부터 백두산기슭에로의 역사적인 진군을 기본줄거리로 하면서 그것을 남호두로부터 미혼진, 미혼진에서 마안산, 마안산에서 동강에 이르기까지의 몇개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형상하고있다.

그리하여 모두 12개장으로 되어있는 작품에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남호두로부터 백두산기슭으로 가는 행군길우에서 중요한 첫 이정표로 되는 미혼진까지의 로정과 미혼진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있으며 6장부터 9장까지에서는 미혼진으로부터 마안산까지의 로정과 마안산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10장부터 12장에 걸쳐서는 마안산에서 동강에 이르기까지의 로정과 역사적인 동강회의를 생동한 형상적화폭으로 반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전로정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방침이 빛나게 실현되어가는 과정

으로, 조선혁명의 일대양양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그리면서 그 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줄수 있도록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옹게 설정하고 깊이있게 묘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작품에서는 모든 긍정인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가적품모와 고매한 덕성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존경과 신뢰, 열렬한 흠모와 불타는 충성심을 심오하게 일반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에서는 그 형상전반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과 숭고한 품모와 고매한 덕성을 감동적으로 훌륭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면서 작품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조선혁명을 일대양양으로 이끄실 원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그것을 정치, 군사적으로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뛰어난 령도력, 백전백승의 군사전략가로서의 품모를 빛나게 형상하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과 미혼진회의에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동강회의에서 하시는 력사적인 연설을 비롯한 강령적인 말씀들과 정세에 대한 명철한 판단 등을 통해서 그리고 푸르허기슭과 남강마을에서의 전투승리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그려지고있다.

《...이번에 념안현 남호두에서 가진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조선혁명을 마음먹고 크게 양양시켜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놓고 여러날 토의하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양양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해서 첫째로 하자고 토의결정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조선인민혁명군이 국경지대와 국내에까지 진출해서 싸우자는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새로운 양양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겠다고 토의결정한 중요한 문제는 극소수의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전체 조선인민을 조국광복전선에 하나같이 묶어세우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자는것입니다.》

《...남호두회의에서 토의결정한 이러한 방침들과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백두산기슭을 향해서 먼 행군길을 떠났습니다. 이 길은 곧 우리의 새로운 투쟁무대인 국경지대와 조국땅으로 나가는 길이며 새로운 근거지를 꾸리러 나가는 길입니다.

...죽 백두산으로 나가는 이번 행군을 통하여 조선혁명의 일대양양을 마련하자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격대의 한 지휘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그대로 1936년의 간고한 겨울을 이겨내고 태동하는 봄, 봄의 눈석이와도 같이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일대양양의 새 출발을 고하는 장엄한 선언이었으며 그 광명한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였다.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주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해 15명의 경위성원들과 한자루의 기관총을 가지시고 력사적인 진군을 개시하신것은 오직 천리혜안의 예지와 뛰어난 전략전술을 지니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참으로 거창하고 성스런 위업이었다. 그 간고한 행군길을 몸소 진두에 서시여 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혼진에 이르시여 남호두회의의 로선과 방침들을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문제로써 조선인민혁명군 개편문제와 그밖의 몇가지 실무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시고 마안산에 이르시여 새 사단을 편성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을 계속 양양으로 이끌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간고한 진군길우에서 제대로 쉬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조국해방의 휘황한 해불인 조국광복회의 창립과 관련한 력사적인 문건들을 완성하시였다.

작품에서는 이 모든 력사적사실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동강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남호두로부터 백두산기슭으로의 진군을 총화하시고 조국광복회창립을 엄숙히 선포하시는 장면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끄시며 조국해방의 성스런 위업을 이룩해나아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훌륭히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이와 함께 놈들의 신문 한귀통이에 난 《국제련맹결의》를 보시고도 그에 대한 명철한 분석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교활성과 파렴치성을 예리하게 단죄하시며 푸르허에서와 남강마을에서 일제놈들의 간계와 약점을 미리 꿰뚫어보시고 적은 인원으로 놈들의 대부대를 단번에 몰살시키는 사실 등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통찰력과 신출귀몰한 전략전술 등을 감명깊게 그려내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면서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진실하게 감동적으로 형상하였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면서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진실하게 감동적으로 형상하였다.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은 항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 인민

들에 대한 육친적인 사랑과 혁명적의리, 풍부한 인간성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아량있고 폭넓은 포용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그려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에 대한 사랑은 친부모도 다할수 없는 가장 뜨겁고 열렬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혁명적의리와 굳게 연결되고 풍부한 인간성으로 빛나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가자에서부터 친히 키우신 강세호를 미혼진으로 부르시면서 그의 상처자욱을 못내 걱정하시며 행군도상에 혹 민가에 들리게 되신다든가 마을을 지나시게 될적마다 리경준 부부가 생각되시여 꼭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떤 내외간을 보지 못했는가 물으시었다.

이것은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숭고한 사랑에서 출발하신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이고 세심한 사랑의 손길은 사령부의 나 어린 전령병 주봉길에게도 뜨겁게 미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추위와 굶주림이 막아서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봉길의 생일잔치를 마련하도록 하시고 친히 그와 상을 마주하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우신 바지를 입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보는 대원들이 못내 가슴아파 정성껏 마련해드린 새 군복을 새로 입대한 전사에게 주도록 하시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자신보다 먼저 대원들을 생각하시며 대원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생일날까지 기억해두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참으로 세심하고 뜨겁고 육친적인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유격대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그이의 혁명적의리와 숭고한 인간성과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미혼진 필영에서 열병을 앓고있는 50여명의 대원들을 친히 돌아보시는데서와 리경준의 희생에 대한 소식을 접하시는 장면들에서 특히 감동적으로 형상되었다.

무송에서 지하활동을 하다가 조국광복회창립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돌아오던 리경준이가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럴수 없다, 그럴수 없다고 거듭 되뇌이시며 발에 걸채이시는 풀대들과 관목덤불들을 마구 짓밟으시고 사령부로 달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눈앞엔 오직 마안산을 떠나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리경준의 그 얼굴이, 곁을 떠나는 서운함을 감추고 웃음지으며 떠나가던 그의 얼굴만이 보이시었다. 그러나 사령부귀틀집에 이르시여 그 소식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시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흥건히 젖은 손수건을 눈언저리에서 떼시며 《...경준동무한테로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나를 찾더라는데 그 동무가 못보더라도 그의 곁에 갑시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항일유격대원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사랑과 혁명적의리를 감동적으로 그리면서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품이 있었기에 유격대원들은 그이의 친위병사로, 조선혁명의 일대양양을 위한 믿음직한 주력군으로 튼튼히 자라날수 있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유격대원들과 함께 아동단원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에 대하여 또한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는바 그것은 특히 마안산에서의 생활화폭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형상화되었다.

마안산에서 벌리시기로 계획한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시며 간고한 행군을 거치시여 그곳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혀 뜻하지 않았던 험악하고 복잡한 사태에 부딪치게 되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 소왕청과 처창즈는 물론 멀리 연길지방과 화룡지방에서도 술한 애들이 마안산으로 모여왔것만 민족배타주의자들은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버리며 먹을것도 안주고 겨울에 벌거벗은걸 보면서도 돌봐주지 않고있었다.

지어 그자들은 나 어린 아동단원들에게까지 《민생단》련루자라는 터무니없는 딱지를 붙여놓고 애들을 천대하고 멸시했던것이다.

아동단책임자 한남실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아시게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즉시로 아동단원들이 있는 곳을 찾으시었다.

《장군님이시다!》

환희와 기쁨에 넘쳐 아이들은 소리치며 달려오다가 몇걸음 앞에서 웬일인지 달려오던 걸음을 갑자기 멈추었다. 겁고 또 기웠지만 더는 어쩔수없이 찢기고 불에 타고 닳아떨어져서 몸에 걸쳤다는 명색뿐이지 기실 벌거숭이나 다름없는 행색들이었다. 비록 어린 아이들이였지만 저들의 옷이 너무나 험상궂고 람루했던 탓에 그리도 그리웠던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뵙는 이 가장 기쁘고 환희로운 순간에 선뜻 그이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들을 향해 두팔을 벌리시고 마주 다가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이들이 주춤 멈춰서자 팔을 벌리신채 한동안 서계시지만 하시었다.

소왕청에 계실 때 아동단학교에 찾아가시거나 다른곳에 나가셨다가 근처지마일에 돌아오실때면 남 먼저 함박꽃같은 웃음을 담고 달려와 아동단경제를 불일것도 잊어버리고 가슴에 안기고 옷자락에 매달리던 그 응남이와 경수들이었다. 산에산에 불게 핀 진달래꽃같이 웃음꽃을 피우며 에워쌀 꽃봉오리들이 된서리를 맞고 처참하게 시들어버려 단 한송이의 웃음꽃도 피우지 못하는것을 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저리시었다.

《어서 이리 오너라! 어서...》

그이께서는 숨외투 앞자락으로 어깨살이 드러나는 어른의 흰옷을 입은 아이를 감싸주시고 다른 손

으로 그 옆에 서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걸치신 숨외투자락으로 모든 아이들을 감싸주실수 없다는것을 모르시는바 아니었지만 그래도 헐벗은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은 한 아이의 어깨라도 덮혀주지 않고는 건딜수 없는 심정이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것처럼 굶주리고 헐벗은 가운데서도 아동단원 순녀가 정성스레 마련한 종이꽃다발을 드리었을 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줄도 모르고 이제야 왔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꽃다발을 주는구나...》라고 목메이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몹소 귀틀집안으로 들어가시여 앓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살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외투와 모포마저 아이들에게 덮어주시였다.

《이 아이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추위에 떨고있는데 내가 백벌의 외투를 입는다고 한들 내 마음이 더워질수 있겠소?!》

그이의 심정은 바로 이러하시였으며 그이의 사랑은 이처럼 뜨거운것이였다.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처럼 숭고하고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목깃에 오소리털을 댄 두툼한 숨외투를 입고 새까만 곰털모자를 쓴 이곳 정치주임이 나타났을 때 악수조차 청하지시 않았시고 그러도 준절하게 대하시는데것이였다.

《당신도 인간이요?!》

.....

《당신도 공산주의자요?》

.....

《인간으로서, 혁명한다는 사람으로서 어찌 아이들을 저 지경이 되도록 박대하는걸 보고만 있을수 있었소?...》

《...조금이라도 인간다운데가 있고 혁명가다운데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저렇게 참혹하게 만들진 않았을것ियो. 조금이라도 혁명가다운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와 한길에서 손잡고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전우들의 유자녀들을 저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을것ियो. 조금이라도 혁명가다운데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저 아이들을 저렇게 무참히 짓밟아버리지 않았을것ियो...》

장군님의 목소리는 엄하게 울리였다. 격노하신 장군님의 눈에서는 푸른 불이 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이들을 천대하고 지어 《민생단》으로까지 문것은 우리 혁명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준철히 말씀하시였다.

그날 밤 헐벗은 아이들에게 시급하게 옷을 해입힐 뜨거운 마음으로 우등불주변을 거니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복상의 안주머니에 손이 닿으시자 유지에 두세겹 싸고 다시 천으로 싸 돈 20 원에 생각이 미치시였다. 그 돈은 어머님께서 남기신 단 하

나 귀중한 유물로 이날이때까지 고이 간직해오신것이였다. 어머님께서 편치 않으신 몸으로 샅빨래와 샅바느질을 하시여 한푼두푼 모으신, 어머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깃든 돈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간고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면서 어려운 고비를 한두번만 넘으시지 않으시였으나 그 돈만은 쓰시지 않으시고 고이 남겨두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군복주머니를 더듬으시며 아동단원들을 위하여, 혁명의 후대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니 어머님께서도 아신다면 기뻐하시리라 생각하시고 이번만은 주저하지 않으시였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헤아릴수 없는 로고와 사랑이 깃든 돈 20 원으로 아동단원들의 옷감을 사도록 배려하여 주시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그리면서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의 후비대들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과 숭고함을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안산에서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함께 머나먼 행군의 전 로정에 언제나 아동단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남강전투를 앞둔 그 긴장한 시각에도 새로 꾸려진 아이들의 귀틀집을 돌아보시고 리경준의 자녀들인 명숙이와 명일에게 새옷을 만들어 주도록 하시며 마안산을 떠나시면서 아동단원들을 친히 데리고 가실뿐아니라 아동단원들이 동강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하시던 일도 미루시고 그들을 먼저 만나시여 아이들과 한때를 즐기시는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동단원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는 혁명의 후비대들에 대한, 떠나간 혁명전사들의 자녀들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뜨거운 사랑이며 혁명적의리와 열렬한 인간애로 충만된 참으로 고귀한 사랑이였다는것을 힘있게 확인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 위대한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일대양양을 위한 간고한 로정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후비부대는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으며 혁명의 미래는 더욱 휘황찬란하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신임과 사랑, 뜨거운 포용력은 또한 그렇게도 탁류에 오염된 지식인이며 혁명을 외면하고 촌에 들어박혀 지내온 무백한 은둔자였으며 뉘뿐만아니라 기력마저 쇠진해버린 초체한 초학훈도에 지나지 않았던 권학식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데서 감명깊게 그려졌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뜨거운 포용력은 특히 반 《민생단》 투쟁에서의 좌경적후과를 청산하고 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진실하게 감동적으로 형상되

였다. 작품은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가적품모와 고매한 덕성을 주로 《민생단》 혐의자들의 문건을 두고 그 허위성과 부당성을 논박하는 장면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그리고있다.

마안산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책상우에는 《진술서》요, 《조사서》요, 《증거문건》이요 하는 따위의 《민생단》 문서통구리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원래 그런것을 인정하지 않으시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료에는 본인의 《자백서》라는것까지 뒤장에 붙어있는 형편에서 그냥 스쳐지날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생단》 문서들을 뒤지시며 생각하시였다. 최선금, 장기령, 윤칠녀, 고명창... 이며 그리고 이미 《민생단》 혐의를 받았다고 더러운 루명을 벗고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허동무며... 그들모두는 혁명에 충실하고 언제나 성실한 사람들이였다. 그 문서보따리를 도저히 인정하실수 없으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산지사방에 흩어져있던 《민생단》 혐의자들을 모두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서보따리를 보았으나 아무 결론도 얻을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여기에는 누가 해명을 해주고 누가 해명을 바라는 일이 있을수 없습니다. 동무들 자신이 투쟁하여야 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그래도 여기에 오면 동무들과 같이 백두산을 넘나들면서 유격활동도 하고 또 동무들을 조선에 내보내여 랑림산맥으로 뻗어나가며 유격투쟁을 확대해나가고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전민족을 결기시켜 본때있게 싸워보리라 생각하고 남호두에서 불원천리하여 동무들을 찾아왔는데...》

참으로 크나큰 기대와 신임에 넘치신 말씀이였다. 《민생단》의 역울한 루명을 쓰고 얼룩진 한 가슴에 받아안기엔 너무나 뜨겁고 열렬한 사랑에 넘치신 말씀이였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이처럼 크시고 뜨거우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옹호해 싸울수 없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동무들을 부당하게 박해하고 동무들의 혁명가적, 인간적존엄을 훼손하는 이따위 문서보따리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는것을 론증하시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민생단》은 한사람도 없다고 엄숙히 선포하시는 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혁명가적, 인간적존엄을 되찾고 혁명의 길에 들어서게 된 《민생단》 혐의자들속에서는 일시에 흐느낌소리가 터져올랐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맹세였고 그동안 어둠속에서만 지내던 사람들의 태양에 대한 열광적인 환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문서더미에 친히 불을 지르시였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슴속에 드리워져있던 암흑의 장막을 영원히 불태워버리는것 같은 그 불길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오래도록 바라보고있었다. 눈물에 젖은 그들의 얼굴에서 신선한 아침해별이 번들거렸다.

마침내 태양이 떠오른것이였다.

진정 《민생단》 문서보따리를 불태워버리고 그 더러운 루명을 벗게 된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생의 기쁨이었으며 새로운 삶과 투쟁으로의 보람찬 첫걸음이였다.

작품에서는 반《민생단》투쟁에서 나타난 좌경적오류를 청산하시고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원칙성과 뜨거운 포용력, 혁명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이 있고 크나큰 신임이 있기에 혁명전사들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있었으며 영원히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이와 같이 그 형상적 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빛나는 예지와 비범한 평도력, 숭고한 혁명가적품모와 고매한 덕성을 그리면서 특히 그 모든 화폭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해방의 구성이시며 전체 조선인민들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한결같이 흠모하고 따르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분이시며 희망의 등대이시라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

참으로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숭고한 품모와 덕성을 진실하게 그리면서 형상전반에서 인류력사의 그 어느 시기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무한한 열정을 담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촉망과 기대,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상은 주로 권학식의 우여곡절 많은 생활체험과 그의 시점을 통해서 심오하게 형상되였다.

작품에서 권학식의 형상이 가지는 미학적의의와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권학식을 중요 등장인물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작품은 그 사상주제적과제를 더욱 풍부히 할수 있었고 형상에서 특색을 뚜렷이 나타낼수 있었다.

권학식으로 말하면 일찌기 소년시절에 망국의 쓰라린 비운을 체험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리뭇다고 하는데는 여기서

기 다 약간씩 얼굴을 들이밀어보다싶이 한 사람이 었다.

바람이 부는대로 이리로도 가보고 저리로도 가보는 난파선처럼 3.1 운동때는 《조선독립 만세》도 불려보고 류치장생활도 하였으며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과 고려공산당에도 관계하고 종파분자들이 쓰던 그 《희귀한》감자도장도 직접 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헛되게 산 일생을 쓰겁게 돌아본 권학식은 사회운동자의 마지막 행색마저 벗어던지고 누이가 살고있는 화룡땅의 깊은 산골에 들어와박혔다. 이미 있는 운동과 기성의 운동세대들을 통채로 부정해버린 권학식은 이곳 벽지에서 자기가 이룩할수 없었으나 바랄수도 없는 애국의 뜻과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을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데 전념하였다.

이러한 권학식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가 건재해있다는 소식은 그대로 생명의 영양소가 되고 삶의 맥박이 되어 그의 온넛을 불태웠으며 마침내는 유격대원들을 따라 사령부를 찾아갈 용단을 내리게까지 하였던것이다.

작품에서는 권학식의 기구한 운명과 생활을 깊이 있게 펼쳐보이면서 온갖 사회풍조를 다 맛본 그의 체험세계와 내면세계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작품에서 이러한 사상은 몇개의 중요한 계기들에서 집중적으로 그려지고있는바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뵈옵게 되었을 때의 느낌은 그 첫단계로 된다.

어느 한 농가안에서 자기에게 따듯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심을 알았을 때의 권학식의 놀라움은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였다.

그 말이 참말인가! 과연 이 젊으신분이 세상에 그렇게도 유명하게 소문이 나신 장군님이시란말인가! 기운 군복숨바지를 입으시고 마치 고향집 방에 앉아계신듯 가난하고 허술한 농가의 때묻은 구름노전우에 앉으신분, 더없이 인자하신 얼굴에 부드럽고 겸허한 미소를 띠우시고 말없이 앉아계시는 이분이 과연 1930년대 력사우에 높이 솟아오르신 새로운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이시며 항일유격대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란말인가!

청년장군이시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리도 젊으신 분이실줄은 상상도 못해본 권학식이었다.

말로써는 설명할수 없는 특유한 친화력으로써 한순간에 자기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장군님께 이끌리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권학식은 장군님을 우러러보고 또 보았다. 현실적으로 뵈옵는 장군님은

참말 상상밖에 소박하시고 겸손하시며 소탈하시였다.

장군님을 우러러뵈옵는 권학식의 머리속에는 아직도 뇌리에 선히 박혀있는 지난날 제노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의 표상이 떠올랐다. 서울과 상해와 연해주에서 만나본 공산주의운동의 《거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독립군두령들, 력사의 전기들을 통하여 알게 된 영웅호걸들과 위인들에 대한 표상들은 그가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는 자리에서 받아안게 된 표상과 근본적으로 다른것이였다.

《비범성》대신 철저한 평범성에 접한 권학식은 그 철저한 평범성이야말로 그 어느 영웅호걸이나 위인에게도 없었던 비범성으로 된다는 확신에 가슴부풀어올랐다.

작품에서는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겸허하시고 소박하시고 인자하신 성품과 비범성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리면서 또한 사령부 전령병의 생일날을 잊지 않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성을 목격하고 자신의 지난 경로와 결부시켜 생각하는 권학식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장군님이 시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그 광명한 미래를 불러오시는 유일한분이시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전령병의 생일날까지 기억하셨다가 쇄여주시는것은 권학식으로서로는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지난날 《주의자》들속에 섭쥔려 돌아가던 마지막시기에 그는 기대를 걸만한 《지도자》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두달가까이 상해에 심부름을 갔다가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각각 다른 서류 갈피속에서 자기에게 온 전보 두장을 발견하였었다.

그것은 한달전과 보름전에 온 그의 아버지와 안해의 사망을 알리는 전보였던것이다. 권학식이 전보를 꺼내놓고 자기를 상해에 보낸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고 물었을 때 그자는 바빠서 그만 잊어버리고 알리지 못했노라고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령병의 생일을 차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기억의 갈피속에 묻혀있던 이러한 지난일을 문득 회고하게 된 이 순간, 권학식은 섬광같이 번쩍이는 심장의 느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특출한 성품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한몸에 체현하신 거룩하신분!

이것이 바로 권학식이 마음속으로 탄성을 울리며 놀라 마지 않은 새 발견이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유격대를 통솔하시는 사령관이실뿐아니라 그 각자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한몸에 맡아안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권학식은 비로서 사십이 넘도록 불일대를 못찾고 정처없이 헤매던 자기의 인생궤도를 안심하고 갖다 붙일수 있는 포구에 와닿아있음을 형언할수 없는 기쁨과 안도감을 가지고 온몸으로 느꼈다. 자기의 특유한 인생경로와 생활체험을 통하여 장군님의 위대성과 비범성을 누구보다도 가슴뜨겁게 느꼈기에 권학식은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2천만겨레가 높이 우러러모셔야 할분이시라고 긍지높이 웨치는 것이다.

작품에서 이러한 사상적지향은 특히 마지막부분인 동강회의장면에서 숭엄하고 웅심깊게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비록 짧기는 했지만 권학식은 돈화땅에서부터 백두산기슭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따라오며 그 짧은 력사의 한순간에 그는 어떻게 열다섯명의 전사와 한자루의 기관총이 혁명무력의 주력부대로 변하고 혁명가의 존엄과 인간적가치를 상실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운명과 력사의 주인으로 변해지느냐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숭고한 삶을 마치는가 보고 알았으며 찬서리를 맞은 꽃망울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나 활짝 꽃을 피울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았다.

그는 어떻게 불가능한것이 가능한것으로 되며 어떻게 먼 장래에나 실현될지 말지 막연하게 여겨졌던 이상이 삽시에 현실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지는가 보고 깨달았다.

조국광복회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을 들으며 지나온 행로를 더듬어보는 권학식은 새삼스럽게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길만이 가장 옳바르고 빠른 조국해방의 길임을 절절하게 느꼈다.

그리고 그이를 따라 나아가는 그 길만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고 민족의 휘황찬란한 장래변영을 가져오게 될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였다.

우리 조선의 2 천만 겨레는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권학식은 마음속으로 격조높이 부르짖었다. 이것은 결코 권학식 혼자만의 생각이며 웨침만은 아니였다. 회의장에 참가한 각계각층의 모든 대표들,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생각이며 웨침이였다.

이것은 또한 이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작품을 통하여 독자들 스스로가 얻게 되는 가장 값있고 귀중한 결론이기도 한것이다.

작품에서는 이와같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모든 사건들과 일화들, 인간들의 성격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하고 숭고한 혁명가적품모, 공산주의적덕성을 참으로 웅심깊게 감동

적으로 그림으로써 남호두로부터 백두산기슭에로의 력사적인 진군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빛나는 승리로 기록되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후의 노력에 의하여 조선혁명발전에서는 일대양양이 일어났다는것을 서사시적화폭으로 빛나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숭고한 품모와 고매한 덕성을 빛나게 형상하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주력군으로 자라나는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을 또한 생동하게 창조하였다. 이러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태양의 빛을 따르며 태양을 향하여 줄기와 가지를 뻗치듯이, 지구우에는 넓은 바다가 있고 골짜기와 벌판의 모든 내와 강이 바다로 흘러들듯이 작품에 나오는 긍정인물들이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신곳으로 향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따르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와 같이 숨쉬고 행동하는 인물로 그려진것이다.

이러한것은 이 작품의 형상구성에서 새로운 특성이며 창조적성과인 동시에 모든 긍정인물들의 성격의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한것이다.

작품에는 강세호, 리복철, 리경준, 최선금, 주봉길, 권학식 등 유격대원들과 아동단체임자 한남실을 비롯한 아동단원들, 그밖에 각계각층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있다. 이들은 저마다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걸어왔고 그들의 취미와 성격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마다에 고이 간직되어있으며 모든 생각과 행동의 바탕에 놓여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영원히 그이께 충성다하려는 불타는 심정이다.

작품에서는 여러 인물들의 사고와 행동을 줄기차게 관통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 열렬한 흠모와 불타는 충성심을 크고작은 모든 생활국면들에서 감동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 미혼진은 지척에 있었으나 하루빨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보좌해드리고싶은 간절한 소망이 앞서 스스로 먼길을 에돌아 행처도 모르는 사령부를 기어코 찾아온 강세호,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호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무리 추운 날에도 털모의 귀털개만은 내리우지 않는 경위중대장 리복철과 경위중대원들, 그리고 강세호며 리복철 등 유격대 지휘관들이 모이면 이야기는 늘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철저히 호위하는 문제로 흘러갔다는 세부들은 위대한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한 항일유격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우리려 받드는 리경준부부의 심정은 또 얼마나 웅심깊은 것인가.

억울하게 《민생단》 혐의를 받고 얼어죽으라고 버려진 몸이나 다름없는 그 처지에서 게다가 어린 두 자식까지 있었지만 그들은 조그마한 동요와 주저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그이의 품을 찾아 간고한 로정을 걸어간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의지할곳은 장군님 품밖에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닌 그들이었기에 리경준부부가 지닌 충성심은 그 리도 뜨겁고 절절한 것이었다.

작품에서는 적후투쟁의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 군복을 지어 올리려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고급양복지를 구해 안해에게 보내며 또 목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사령관동지를 찾는 리경준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통하여 그리고 사령부를 찾아가는 어려운 시각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해방된 조국땅에 모실 그날을 열정적으로 그리는 리경준, 최선금이들의 아름다운 사상감정을 통하여 그들이 지닌 충성의 열도를 심오하게 형상하였다.

술방울로 흘러가는 날자를 계산하며 아버지수령님의 품을 찾아가는 아동단원들의 충성심은 그들의 동심과 결부된 참으로 티없이 맑고 깨끗한 것이었다. 일제침략자들에게 집과 부모들을 빼앗기고 민족배타주의자들의 버림을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그대로 아버지품이었으며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아는 그들이었기에 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지면서도 천대와 버림을 받으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위대한 수령님 계신곳으로 마안산으로 찾아가며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며 마안산을 떠나시는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한길에 서슴없이 나서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려 흠모하고 따르며 끝없이 신뢰하는 마음은 사령부가 있는 남호두를 희망의 포구로 바라보며 역세계 싸워가는 장기령과 윤칠녀, 아동단원들을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으로 기어이 이끌어가는 아동단책임자 한남실, 무송에서 지하공작을 하다 력사적인 동강회의에 참가하는 박문필, 그리고 《민생단》 혐의를 벗어던진 모든 대원들의 내면세계를 통해서도 아름답고 힘있게 표현되었다.

작품에서는 이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소식이 실렸다가에 쫓긴 한켠레 판 돈으로 신문을 사들고 《눈뜬 장님》의 처지에서 그 반가운 소식을 거듭 읽어줄것을 요구하는 로인을 비롯하여 단편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서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존경의 마음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감정이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심오하게 일반화하였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여러 긍정인물들이 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등대를 향하여 포구로 돌아오는 못배들과도 같이 그가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또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수령님 계신곳으로, 백두산기슭으로 향하고있으며 그 길을 역세게 걸어가고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해발을 받아안고 항일유격대원들이, 전체 조선인민들이 아버지수령님의 령도밑에 혁명의 대하에 합류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조선혁명의 일대 양양이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그가 거둔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지금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으며 커다란 교양적역할을 놓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수행되고있는 오늘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특히 작품은 모든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가적품모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깊이 따라배우게 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서 참된 혁명의 교과서로, 길동무로 되고있다.

이 작품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대작으로서 우리의 소설문학의 성과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작품이며 전반적인 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커다란 고무적역할을 놓고있다.

백두산기슭으로 굽이쳐흐르는 혁명의 대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로 진출시키며 우리의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남호두회의가 있은뒤 눈석이와도 같이 건잡을수 없는 혁명의 물결이 장엄하게 소리치며 백두산기슭으로, 동강으로 세차게 흘러갔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백두산기슭으로!

산과 골짜기와 밀림을 씻어내리며 눈석임물이와-와- 소리치며 흘러가듯이 어둡과 비운만이 짙어가던 이 땅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선독립》을 잡꼬대처럼 외던 독립운동자들과 행세식 《맑스주의자》들, 종파주의자 등 어중이며중이들로 오염된 타류를 쓸어버리며 오직 위대한 수령께서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따라 혁명의 대하가 물결쳐흐른다.

작품을 펼쳐들고 우리들은 남호두회의후 전국적 판도에서 혁명운동을 양양시키기 위하여 몸소 투쟁의 진두에 나서시여 조선북부국경지대-백두산기슭을 향하여 떠나시는 장군님의 숭엄한 영상을 우러러보옵게 된다.

...가도가도 끝없는 수림과 눈뿐, 눈덮인 숲속의 태고연한 정적을 깨치며 조선인민혁명군대렬이 백두산쪽을 향하여 장엄하게 흘러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혁명의 사령부가 백두산기슭을 향하여 남하의 길에 오른것이다. 대렬의 진두엔 장군님께서 서계셨다.

장군님께서 내짚으신 이번 걸음은 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올리시기 위한 뜻깊은 걸음이었다. 이 길은 조선혁명의 앞길에 뚜렷하고 찬연한 해빛을 뿌리기 위한 힘찬 길이였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할 위대한 구상과 그 강령을 확고히 수립함으로써 조국땅에까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리시려는 길이였다.

작품에서는 남호두를 떠나 동강에 이르는 행군의 몇달동안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대로 쉬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혁명의 전도와 당면한 전략전술적과업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시는데 대하여, 험산준령을 넘어 고난에 찬 행군속에서도 푸르허와 대

사하의 합수목어방에서 적과의 치열한 격전을 치른후에도 밀림속에 천막을 치시고 홀로 우등불가에서 밤을 지새우시며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데 대하여 숭엄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작품에서 열다섯명의 인원과 단 한정의 기관총이 어떻게 조선혁명의 일대양양을 가져올 혁명의 대군으로 자라나게 되었는가를 감동적으로 보게 된다.

열다섯명에 한자루의 경기관총... 이는 정규무력의 한개 분대이나 비길수 있는 무력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 얼마 안되는 인원으로 걸음마다 위험이 뒤따르는 머나먼 백두산기슭으로 뚫고나가시기로 결심하시며 이 적은 인원을 골간으로 인민혁명군의 대군을 마련하실 웅대한 구상을 품고계시는것이다.

남호두에서 동강에 이르는 기나긴 행군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왜놈들의 총칼이 항상 앞길을 가로막았다.

추위와 굶주림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닥치는 이 모든 난관과 시련을 한몸으로 막으시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에게 친아버이사랑을 돌려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심으로써 남호두로부터 동강에로의 간고한 로정을 승리적으로 뚫고나가시였으며 15명의 인원과 단 한정의 기관총으로부터 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양으로 이끌어올릴 혁명의 대군-혁명의 주력부대를 마련하신다.

우리는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혁명력량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대원 한사람한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키우시며 그들에게 친아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는가를 통절하게 느끼게 된다.

강세호, 리복철, 차동범...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이다. 지난날 머슴으로 갈길을 몰라 거리를 방황하던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조선인민혁명군대원으로, 믿음직하고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자라나게 되는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을 찾아주시고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며 그이를 목숨으로 보위할 불같은 충성의 결의에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작품에서 특히 마안산에서 《민생단》 혐의자들과의 회의장면에 대한 묘사는 혁명가의 존엄과 인간적가치를 상실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자기

운명과 력사의 주인으로 되게 되었는데를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혁명의 변절자, 배신자라는 그 몸서리치는 억울한 루명을 벗어던지고 깨끗한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혁명가로서의 당당한 자부심을 되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친술부대의 골간으로, 기둥으로, 조선인민혁명군에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주력부대의 성원으로 될 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가치와 참된 삶을 다시 찾아주시고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며 자신들도 모르던 인간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하기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이 사랑의 불씨를 받아안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며 죽어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혁명의 전위로, 친위전사로 자라나게 되는것이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작품의 전반을 맥박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작품은 그토록 커다란 감화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작품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사랑이 그들 몇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인민모두에게 돌려지는 위대한 사랑이라는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랑의 해빛을 받아온 조선인민이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그이를 찾아 백두산기슭으로, 미혼진, 마안산, 동강으로 물밀듯이 찾아온다는것을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다.

그 대오속에서 우리는 리경준일행과 한남실의 낮은 모습을 찾아보게 된다.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민생단》 혐의를 받고 버림받은 리경준과 최선금, 장기령과 윤철녀, 한남실과 아동단원들, 이들은 서로 다른 처지에서 저마끔 극절 많은 생활경로를 거쳐왔지만 그리운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 떠나 이 길우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 물결쳐오는 대오속에 권학식의 얼굴도 보인다.

그의 얼굴은 만민이 우러르며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게 된 크나큰 감격과 흥분으로 빛난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의 인생행로는 얼마나 많은 파란곡절로 얼룩이 졌던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찾아 2천만겨레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곳곳에서 백두산기슭으로 물밀듯이 모여든다. 광막한 밀림을 씻어내리고 넓은 대지를 적시며 장엄하게 넘쳐나는 봄시위물과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신 백두산기슭을 향하여 동서남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작은 흐름이 굽이쳐흐른다.

그리하여 넘쳐나는 봄시위물마냥 굽이쳐흐르며 마침내 조국광복회의 창립에까지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이 그이를 우러러모시고 따름으로 하여 혁명의 대하가 굽이쳐흐를수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작품이 내세운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을 예술적으로 해명한 바로 여기에 작품의 사상미학적의의와 커다란 감화력이 있는것이다.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고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 그이를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

책을 덮은 이 시각에도 나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했던 우리 주인공들의 숭고한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다.

주인공들과 같이 나도 걸어가리라. 항일의 혈전만리 백두의 밀림을 헤치며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항일의 선렬들처럼 나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크나큰 영예와 기쁨을 간직하고 혁명의 한길에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리라하는것을 거듭 결의다진다.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연구사 오정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덕성에 대한 불멸의 송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준엄한 로정우에 쌓아올리신 빛나는 업적을 수록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이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함모의 감정에 잠기게 하는것은 여기에 바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대한 불멸의 이야기가 엮여져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 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작품은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사건과 사실을 전개하면서도 항상 그 중심에 사람을 놓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덕성을 형상의 주선으로 끌고나가고있다.

소설은 1936년 2월 남호두회의방침에 따라 조선혁명을 일대양양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가 남호두를 떠나 동강에로의 력사적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수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력사적행군과정에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과 혁명의 미래에 대하여 돌려주신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며 깊은 감명에 잠기게 하는것이다.

소설은 처음부터 대원들과 인민들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의 품을 느낄수 있게 한다.

열룩점이 박힌 밤빛말을 타시고 대렬 한가운데서 행군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곁에선 애젊은 전령병 주봉길을 보시고,

《봉길이, 꽤 건달만 하오? 출지?》

《북만의 추위보다는 한결 낫습니다. 말을 타니까 다리가 좀 시리지만 몸은 후끈후끈합니다.》

사령관과 전령병사이에 정겨웁게 오가는 이 물음과 대답, 우리는 여기서 대원들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의 감정을 뜨겁게 느끼게 되며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의 한길을 걷는 혁명전사의 똘똘넘치는 긍지와 기쁨을 감축하게 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남호두로부터 200리 먼길을 길안내로 함께 온 한 로인에게 제일 순하게 길들어진 가라말을 주시여 돌려보내시는것이다.

생소하고 험한 길을 로인과 같이 조금이라도 더 갔으면 하는것이 대원들의 소원이건만 외진 산골로인의 저물 길을 넘려하시여 그렇게 하시는데였다.

눈보라 우는 끝없는 수림속으로 장군님 일행은 사라졌어도 말고삐를 잡은 로인은 못박힌듯 그 자리에서 사령부의 안녕을 바라고 또 바라며 흐르는 눈물을 씻고 또 씻는것이다.

행군은 계속되고 소설의 내용이 전개될수록 아버지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의 이야기는 더욱 깊은 뜻을 안고 독자들의 가슴을 울려주는것이다.

행군도중과 휴식시간 그리고 식사시간 대원들과 지휘관들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은 더 말할것도 없지만 나어린 전령병 주봉길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은정은 독자들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는것인가.

《어린애처럼 못나게 굴지 말구 자, 어서 들라구.》 눈덮인 무인지경속에서 놀라리만큼 차려진 생일상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훔치는 전령병 주봉길에게 하시는 사령관동지의 말씀이시다.

봉길이와 함께 쌍둥이전령병 종삼이도 울고 참된 삶의 길, 혁명의 길을 찾아 끝없이 모대졌던 한 지식인인 《대통령감》 권학식이도 눈썹리가 저려나며 이슬방울이 솟아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미혼진밀영에서 부대지휘관들의 회의가 있은후 새롭게 개편되고 보충되어 대부대로 자라나 백두산기슭에로의 거창한 행군이 진행될 때 독자들은 이 모든 힘의 원천이 어디에 기초하고있으며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였는가를 생각하면서 소설의 장을 넘기게 된다.

미혼진을 떠난 부대가 무송현 마안산에 잡아들자 장군님께서 이 밀영속 아이들에게 베풀어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은 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없는 책장을 번질수 없게 하는것이다.

푸르히의 등판에서 악착하게 달라붙는 적의 포위를 역전시켜 적의 대부대를 단숨에 산산토막낸 날 밤 대원들은 행군과 전투의 피로에 지쳐 잠들었는데 사령관동지께서만이 우등불을 마주하시오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조국광복회 강령의 교육조항을 다시한번 더듬어보시며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곳

을 찾으신 것이다. 그런데 마안산아이들의 모양은 얼마나 처참한가.

유격근거지가 해산되자 사령부를 따라 이곳까지 찾아온 아이들이었는데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아 그들의 정상은 눈뜨고 볼수 없는 형편이었다.

소왕청근거지의 아동단학교에서 장군님의 사랑을 받던 한 아이가 《장군님!》하고 뛰어오다 우뚝 서버리자 어른의 큰 헌옷을 입은 아이의 뒤에 여러 아이들이 몸을 감추고 서있는 것이다. 살점이 다 드러난 너털너털한 옷을 입고 차마 장군님앞에 더는 나설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군님께서 옷차림이 부끄러워 머리숙인 아이들을 흐린 안색으로 바라보시다가 그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주시며

《애들아, 얼굴을 들어라. 너희들이 험벗고있는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후.》 하고 느끼는 소리에 뒤이어 일시에 아이들의 북받쳤던 설음이 터져나왔다.

원썬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아이들은 그 귀축같은 놈들을 보지 않고 살자고 원썬의 추격속에 산속을 헤매며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좌경배타주의자들은 그들을 유격대활동에 부담으로 된다고 돌봐주지 않았고 《민생단》련루자의 딱지까지 붙이고 랭대하였다. 그 아이들이 그리운 장군님의 품속에 안기자 자기들의 싸였던 설음을 참을길 없어 목이 메여 흐느껴 울기 시작한 것이다.

좁체로 눈물을 보이신적 없으시던 장군님께서도 이 순간 젖어드는 안면을 가리울길 없으시여 군복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는 것이었다. 병들어 누운 아이들의 랭기서린 귀를집을 찾으시여 단 한벌의 외투를 창문결에 누운 한 아이에게 덮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뒤따른 전령병 주봉길이 여기 모포가 있다고 하자 《이 아이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추위에 떨고있는데 내가 백벌의 외투를 입는다고한들 내 마음이 더워질수 있겠소?!》라고 하시며 주봉길이 들고있는 모포까지 다른 아이들에게 덮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그날 밤 장군님께서 군복상의 안주머니에서 싸고 또 싸시여 귀중히 보관하셨던 돈 20원을 꺼내시었다.

1932년 초여름, 갓 창건된 조선인민혁명군을 거느리시고 남만원정의 길을 떠나시는 장군님께 어머님께서 주신 돈이었다. 장군님께서 그때 혁명하

는 사람에게는 혁명하자는 사상과 총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며 것처럼 만류하셨는데 어머님께서 혁명에 쓰라고 하시며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그 돈으로 아이들의 옷감을 마련하라고 련대의 한 간부를 부르시었다.

어머님께서 샅빨래와 샅바느질로 한푼두푼 모으신 돈, 이를 어찌 크거나 량으로만 헤아릴수 있으랴.

그 한장한장의 갈피갈피마다에는 병약한 어머님의 땀과 로고가 스며있고 장군님의 위업과 혁명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어머님의 정성이 담겨져있지 않는가.

그러기에 장군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님께서도 이것을 아시면 기뻐하실거라 하시며 마다하는 련대장을 설복하시고 돈을 맡기시는 것이다.

독자인 저는 이때 소설의 어느 페이지를 얼마나 넘겼는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뿌듯하게 흐르지는 글줄을 찾아 흐르는 눈물만을 자꾸만 훔치었다.

불멸의 력사에 아로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영상은 소설을 읽어나갈수록 우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해주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다.

소설의 마감은 1936년 5월5일 동강의 밀영을 울리며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향하여 조국광복회창립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밝고 정중하게 모시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의 그 장엄한 선언속에서 조선혁명이 어떤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의 우여곡절을 거쳐 발전하여왔으며 천갈래만갈래로 흩어졌던 만일력량은 또한 어떻게 하나로 뭉쳐졌는가를 력력히 느낄수 있게 된다.

참으로 혁명소설 《백두산기슭》은 혁명의 험난한 길을 한몸으로 헤치시며 인민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사랑과 은정에 대한 송가이며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서사시이다. 소설을 수많은 읽느라 했지만 나는 이 소설을 읽을 때처럼 흥분되고 격동된 심정에 잠긴적은 없었다.

나는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되었으며 우리의 후대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 잘 교육육양하려는 불같은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진다.

헤산제 1사범대학 교원 한룡택

중국잡지 《세계문학》이 우리 나라의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피바다》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의 제5장 전문을 실었다.

중국잡지 《세계문학》 1978년 제1호는 우리 나라의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피바다》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의 제5장 전문을 실었다.

잡지는 이 소설을 실으면서 편집자의 머리글을 달았다.

머리글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을 령도하시어 항일무장투쟁을 진행하시는데 오랜 기간에 시종일관 문화선전사업을 중요하게 여기시였으며 문예형식을 적용하시어 일본침략자들의 죄행을 폭로하시고 인민대중에게 혁명의 진리를 선전하시였다.

항일유격대는 전투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혁명적인 노래들과 가요, 연극, 가극 등 여러가지 형식의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는데 그중 적지않은 중요한 작품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것이다.

《피바다》가 바로 1936년 8월에 그이께서 창작하신 하나의 혁명연극각본이다.

조선문예계는 이 시기의 혁명적문예작품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예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고 조선문학예술력사의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았으며 오늘의 조선문학예술은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것이라고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다.

1969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피바다》를 예술영화로 옮겨놓았으며 1971년에 피바다가극단은 또다시 그것을 대가극으로 창조하여 무대에

올렸다. 또한 그것은 1973년에 장편소설로 옮겨져 조선문예출판사에서 출판됨으로써 더욱 광범하게 보급되게 되었다.

장편소설 《피바다》는 주인공 어머니일가의 비극적운명, 반항투쟁, 마지막에 혁명의 길에 나서는 형상화폭을 통하여 1930년대초 조선혁명의 발전과 조선인민이 혁명적으로 각성되는 과정을 심각하게 반영하고있다.

어머니의 남편 윤섭과 농민대중은 일본제국주의 및 지주들의 가혹한 압박과 착취에 참다못해 용감히 일떠서 반항해나선다. 일본침략자들은 맨주먹밖에 없는 농민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한다. 윤섭은 처참하게 살해되고 마을은 온통 피바다로 변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자를 잃고 집도 잃는다. 남편의 참혹한 죽음, 피의 현실, 특히 조선인민혁명군 공작원의 깨우침과 교양으로 어머니는 점차 각성되어 농촌의 한 평범한 녀성으로부터 나중에는 높은 각오를 가진 혁명가로 자라나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만이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이룩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는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아들을 유격대에 내보내고 자기자신과 딸도 혁명의 거센 흐름속에 뛰여든다. 군중에게 선전하며 군중을 조직하는 사업에서와 유격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서, 성시공격전투에서 어머니는 혁명전사의 굴할줄 모르는 고귀한 품모를 보여준다.

머리글은 《피바다》에서 어머니의 이 형상을 통하여 참다운 혁명가의 전형이 창조되었다고 썼다.

영원히 교대없는 초소

윤두근

그립던 수령님 모신 초소에
밤은 깊어 깊어가고
하늘은 감격에
축복의 눈꽃을 날리며 잠못들고...

그이 계시는 방 마당가에
장령- 어제날 전령병은 서있어라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지켜
귀틀집 마당가에 서있던 그날처럼

세월은 흘러 오늘은
수천수만의 병사들 지휘관이여도
수령님을 모신 초소의 이 밤에
서야 할 자기 위치를
전령병시절의 그 자리에 정한 로투사

백두의 그 밤처럼
불빛 꺼지지 않는 창가를 우러르며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선 그 어깨우에
눈은 내려 하염없이 쌓이는데

교대없는 장령을 찾아
교대보초 전사는 다가서라

오, 말없이 곁에 와서는
전사를 바라보는 장령의 눈빛
전령병시절로 되돌아간 그 행복 속삭이는가
말리지 말라누나 이 밤에
그날의 전령병 임무를 수행함을

마주보는 뜨거운 눈길이어
들이면서도 한 모습인 그 자세여
그 언제 장령은 이렇듯

전사에게 간절한 마음의 눈빛을 보였던가
그 언제 전사는 이처럼
장령의 뜨거운 부탁을 받아본적 있었는가

아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슬하에서 20년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초소에서 20년
옮겨진 위치와 함께
맡겨진 임무도 달라져

백두산에서 배운 그 자세
총과 함께 받은 그 임무
세대를 이어 배워주고
교대를 이어 넘겨주었던만

이 세상에도
이땅에 하나인 영광의 자리만은
어데 가나 마음속에 안고 다니며
오직 한분 수령님을 모시는 변함없는 충성심이어

머리에 흰서리 내린 오늘도
마음은 언제나 그날에 두고
삶도 그날의 그 삶을 빛내가기에
아, 눈도 백두의 그 눈을 맞고섰는가

순간도 드림없이
영원히 교대없이
한생을 총잡고 서야 할 위치가 어데인가를
초소의 병사들에게 깨우쳐주며

이 밤 장령은 서있어라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위하는
영원한 초소
그날의 백두산 사령부 보초소에

굴포땅

동기춘

진펄로 아득하여 수십리
피여오르는 뿌잇한 물에
풀송구리만 바람에 울던 굴포,

태고연한 세월에 것처럼 태고연히
너의 땅은 버림받았더라
웅기라 조선의 한끝에서

그 언제런가 먼 옛날에
황혼의 설핀 빛을 밟으며
류량의 길손이 처음으로 지나갈 때
사람 그리웠던 땅이길래
반가움에 신발을 이슬로 적셨다는곳

조선의 기슭이여
내 오늘 너의 황금이삭 파도치는 벌에 서서
나의 감격의 노래 너의 파도에 실노니

버바다로 아득하여 수십리
굴포벌에 선들바람 일으키니
대지가 흔들리는듯 금실르는 나락이여
동해의 파도를 굴포에 펼쳤는가
굴포의 파도를 동해에 펼쳤는가
바다와 물이 와와- 밀려오고 밀려가는 소리

노래하라 땅이여
경애하는 수령님 몸소 걸으신
불멸의 그 자욱자욱에
포기포기 아름답게 자래워 설레는 땅아

평양에서 먼먼 2천리
차를 타도 밤낮으로 이틀길
위대한 수령님 걸음 멈추신곳은
저 해빛부신 들에도 한끝

이 진펄땅 아니래도 수천년 살았는데
아무리 땅이 귀하고 낯알이 귀한들
새들도 깃들지 못하는 차디찬 진펄에
수령님을 어찌 모시랴
송구한 마음들이 굽이치던곳에
나의 생각많은 자욱을 옮기면

간절히 올리는
이슬어린 진정들을 조용히 밀어놓으시며
백두산에서 싸울 때는
이보다 더 험한곳도 지나셨다고
웃으시며 하시던 그 말씀
산천이 새기여 오늘도 뜨겁구나

오, 말하라 설레는 대지여
은혜로운 해빛아래 물결치는 버바다여
내 지금 마른 논두렁을 가벼이 걷는 이곳이
수령님께서 진펄에 옷자락 적시시며
자욱자욱 헤치신 그 길은 아니나

이 나라에 5천년력사 흘렸어도
인민의 발자욱이 찍히지 못했던 땅에
인민을 위해서는 버릴땅이 없다하시며
우리 수령님 이 땅을 밟으시여
조국땅 한끝 버려진 진펄까지
인민에게 열매를 주는 옥토로 되었으니

너의 노래 어이 목메이지 않으랴
너의 기쁨 어이 파도치지 않으랴
이 나라 이 강토 이 인민을 뜨거이 안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아, 벌이 되고 금나락이 되는 굴포땅이여!

웅기의 밤

전강우

밤 ...

깊어가는 웅기의 밤

그 무슨 못잇을 사연 이야기하듯

온밤 뒤척이며 설레이는

동해의 파도소리, 파도소리...

밤은 깊어 깊어가도

불밝은 창문들은 잠 못 드는데

그 누가 부르는가

내 마음 흔드는 노래소리

...우리 어머니 김정숙어머니

아, 그리움에 눈시울 젖어들어라

저기 바다기슭 불밝은 가로등밑으로

이 밤, 어머님께선 조용히 걷고계시는듯

그리도 목메게 불러보시며 그리안으시던

력사의 기슭이며

다박술 곱게 자란 개선의 언덕길을...

어머님께선 걷고계시여라

행복의 미소 지으시고

이 밤 웃고있는 저 불밝은 창문들과

고이 잠든 아기들의 숨결소리도 가늠해보시며...

어찌 잊으랴

해방의 봄빛속에 삼천리가 울고 웃으며

어머님을 맞던 환희의 그날

자신의 로고보다

오히려 너인들의 터갈린 손이며

아이들의 더벅머리를 어루만지시며

얼마나 고생들 하였는가고

장군님 받들어 잘 살아보자고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못잇을 그날이여

백두밀림 하늘아래 장군님 받들어

풍찬로숙하시며 항일의 혈전만리 헤쳐오신 어머니

인민의 마음담아, 감사의 눈물담아

개선문을 높이 세우고

성대한 개선연을 베풀어야 했건만

너무나 가난하던 인민이었기에

소박한 집에 어머님을 모시였던

송구한 그 이야기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남이있는데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어제날의 어부들이, 어제날의 더벅머리들이

보란듯 높은 집 세워놓고

세상에 부럼없는 락원속에 살아갈수록

단 한번이라도, 한번만이라도

불밝은 방안에 어머님을 모시고싶은 간절한 마음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그리워지는

우리 어머니, 김정숙어머니

이 밤도

문득 어머님께서

방문열고 들어서신것만 같아

밤은 깊어, 깊어가도

잠들지 못하는 웅기의 밤이여

아, 웅기의 깊은 밤이여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예술적형상성을 더욱 높이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오늘 우리의 혁명문학은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훌륭히 결합된 참으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입니다.》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결합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작품들은 심오하고 풍부한 사상적내용과 고상한 예술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그 처럼 강렬한 사상미학적영향을 주고있으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높은 사상성과 함께 고상한 예술성을 보장하는것은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문학예술이 현실생활을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도해하고 사상을 직선적으로 양상하게 로출시킬 때 그것은 벌써 예술이기를 그만두게 되며 정치제강과 다름없는것으로 되고만다.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한 형상적인 화폭으로 방불하게 그려보이지 못하면 작품의 사상성 자체도 작가의 의도대로 구현될수 없다.

오직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만이 사람들에게 깊은 사상미학적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그들의 사상교양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사상성과 함께 예술적형상성을 높이는것은 또한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일찌기 민족 문예사에 없었던 찬란한 개화기에 들어서고있다.

우리 문학은 그가 체현하고있는 심오하고 풍부한 사상성과 혁명성에 맞게 예술적형상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는 인민대중의 미학적요구는 우리 문학의 사상성과 함께 예술적형상성을 더욱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사상미학적리상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사상정서생활도 전례없이 풍부

해졌다. 따라서 그들의 미학적요구도 비상이 높이고 다양해졌다.

높은 사상성은 고상한 예술성을 통하여 실현되며 높은 사상성을 떠난 고상한 예술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나 사상성이 높다고 하여 작품의 예술적형상이 저절로 높아질수 없으며 예술적형상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없이는 작품의 사상적깊이를 보장할수 없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이 체현하고있는 심오하고도 풍부한 사상적내용에 맞게 예술적형상성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현시기 예술적형상성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하여 그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는것이다.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는것과 함께 가장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는것은 우리의 주체적인간학의 근본요구로 된다.

사실상 작품의 핵인 종자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형상적으로 꽃피워나가는 예술적형상창조의 전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풀어나가며 그에 사상 예술적해답을 주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오직 문학작품이 의의있는 인간문제에서 종자를 탐구하고 그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줄 때에만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할수 있으며 예술적형상성도 높일수 있다.

의의있는 인간문제의 탐구는 특히 사회주의현실주체작품창작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그것은 우선 인간의 자주성이 최대한으로 발양되고있는 사회주의적현실이야말로 우리 문학이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할 가능성을 확고히 담보해주며 또 그것을 절실히 요구하기때문이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간의 존엄과 개성이 어떻게 활짝 꽃피어나고있는가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운명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주체작품창작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의 탐구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또한 인간문제와 생산문제와의 호상관계를 옹계 해결하지 못한데로부터 인간문제대신에 생산기술적문제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인간의 운명문제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창조적로동, 생산활동과 결부되는것은 필연적이며 따라서 우리 문학은 옹당 그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에서는 생산기술적 문제 그자체에 치우칠것이 아니라 생산활동과정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 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문제와 같은 인간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의 노동생활과 생산활동 과정은 단순히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생산활동 일뿐만아니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며 동시에 자신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혁명을 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학은 사람들의 사회주의적생산활동을 그리면서도 생산문제에 치우칠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개인의 모든 운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거대한 혁명위업에 순응시키면서 이 거창한 시대의 흐름속에서 자기자신도 어떻게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는가 하는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높이 내세워야 한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에서 나서는 가장 의의있는 인간문제는 그들의 모든 운명이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과 혈연적으로 잇닿아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확고한 신념으로 한 가장 숭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탄생하고 성장해나가는가 하는 인간개조의 역사적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이다.

참으로 의의있는 인간문제의 탐구는 우리 문학의 예술적형상성을 높이고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예술적형상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생활을 세부화하며 생활묘사, 세부묘사를 잘하는것이다.

사상적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지 않고 생활묘사, 세부묘사를 잘하지 않으면 소설이 소설답게 될수 없으며 강연제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소설은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려야 한다.

소설이 생활을 세부화하여야만 인간의 성격을 뚜렷하게 특징지을수 있고 사상감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인간들의 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여나가는 가장 의의깊은 생활의 단면들을 깊이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릴수 있다.

그 어떤 정치적인것, 큰것만을 그려내려고 하면서 거대한 사회력사적사건들을 그저 통채로 라렬하는것으로 한몫 보려 해서는 안되며 특징적인 생활세부의 탐구가 없이 채담과 같은 대사들로 이야기를 엮어나가려 해서는 안된다.

의의있는 생활세부의 탐구와 그의 진실한 묘사는 작가의 창조적사색의 산물이다.

강연제강과 구별되는 소설문학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탐구된 생활세부에 의한 생활묘사의 풍부성과 다양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작가들은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열백의 생활을 알수 있도록 세부묘사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생활을 잘 그리는 문제는 소설문학의 묘사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밀접히 려관되어있다.

소설문학의 묘사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현시기 예술적형상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의 하나이다.

소설은 묘사의 문학이다.

소설은 바로 묘사적특성으로 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반영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며 다른 예술에서 다 보여줄수 없는 뒤생활까지도 자유롭게 제한없이 그릴수 있다.

소설문학의 묘사수준을 높이려면 생활을 분석적으로 풍부하게 그려야 하며 지성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사실주의적묘사란 본질상 분석적이며 지성적인 묘사이다.

분석적이며 지성적인 묘사를 강화하는것은 일부 소설작품들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실화적인 잔재를 중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하나의 문학혁명이다.

분석적이며 지성적인 묘사가 없는곳에서는 상식적인 서술과 류형적인 도해가 묘사를 대신하게 된다. 분석적이며 지성적인 묘사를 강화하려면 우선 객관적현실생활에서 가장 전형적이며 특징적인 세부를 선택하고 그것을 눈에 보듯이 생동하게 그리며 거기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분석적이며 지성적인 묘사를 강화하려면 또한 시대와 인간, 생활에 대한 작가의 높은 지성과 해박하고 심오한 사색이 안반침됨으로써 작품에 철학성이 확고하게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학은 오직 분석적이며 지성적인 묘사를 통하여 인간성격의 본질을 생동한 생활속에서 폭넓게 밝혀내고 사건의 깊은 내용을 다양한 시점에서 립체적으로 보여줄 때, 그리고 한장면의 생활을 통하여 지나온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다같이 깊이 생각하게 되며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게 할 때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을 가지게 된다.

묘사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예술적흥미를 돋구는 문제는 예술적형상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혁명적문학작품에서의 흥미는 그 어떤 아슬아슬한 놀라운 사건이나 기이한 생활에 대한 령기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서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친바와 같이 예술적흥미는 언제나 일상생활속에서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소설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될 때, 그리고 고상한

생활세계에 스스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데서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술적흥미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작가가 제기한 인간문제의 심각성과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에 의하여 좌우되는것이다.

혁명하는 시대는 만사람의 심장을 불태우고 빛나는 위훈에로 추동하는 시와 노래를 요구한다.

생활은 사람들이 끌려들어갈수 있는 뜻이 깊은 시, 짙막하면서도 누구나가 외우며 다닐수 있는 서정시들이 많이 나오기를 절실히 기다리고있다.

인민이 좋아하고 외우며 다닐수 있는 시는 서정시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을 강화함으로써만 창작될수 있다.

시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시인들이 시대의 기수로서의 정신적자세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서정시의 본성이 묘사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며 객관적현실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시인이 생활에서 받은 감정을 직접 노래하는 특성과 관련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가슴 불태우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 이 땅우에 인류의 념원인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열화같은 지향-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시인들이 지녀야 할 정신적자세의 기본특징으로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문학에서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현실체험을 강화하고 생활을 깊이있게 파고들어야 하며 시의 운률을 비롯하여 시어에 이르기까지 시적으로 되게 다듬어야 한다.

시가 사람들이 외우며 읊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운률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시의 표현들을 표상적이며 뜻이 깊은 표현들로 써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명가사가 나와야 명곡이 나온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현시기 가사창작에서 제기되는 초미의 문제는 가사를 개성적으로 특색있게 쓰는것이다. 개성적이며 특색있는 가사가 나와야 또한 특색있는 노래가 나올수 있으며 일부 가사들이 범하고있는 류형성과 도식성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그런데 개성적이며 특색있는 가사는 허공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생활을 어떻게 노래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태여날수 있는것이다.

생활을 깊이있게 노래하며 생활세부- 생활의 구체성을 가지고 노래하는 여기에 바로 특색있고 다양한 가사를 창작하게 하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인들은 생활에 대한 탐구와 사색을 그 어느때보다도 깊이 하여야 한다.

예술적형상성을 높이는 문제는 특히 아동문학작품창작에서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것은 아동문학의 대상이 아동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지적발전이 제한된 아동일수록 그들이 생활의 진리를 체득할수 있도록 형상을 풍부히 하여야 한다.

현시기 아동문학의 예술적형상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그 내용과 사상예술적수준자체를 상식적인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극복하는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문학의 본성과 어긋나는것이며 우리의 아동문학이 시급히 극복하여야 할 기본문제이다.

우리 아동문학은 우리의 새세대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후비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재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아동소설, 동화, 우화, 동요, 동시를 더 많이, 더 훌륭히 써내야 한다.

우리 문학의 예술적형상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은 창작의 주인인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높은 사명을 자각하고 자신의 정치사상적자질과 함께 예술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높은 예술적기량은 예리한 정치적안목과 함께 당적작가가 지녀야 할 기본표징의 하나이다.

작가가 아무리 창작적열정에 불타고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골라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실현할 능력이 없거나 기교가 부족하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예술적기량이 높은 작가만이 자기의 창작적개성과 독창성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생활체험을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독서와 사색, 체험과 탐구 등 창작실천활동의 전과정을 통하여 예술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술적기량이 높은 작가만이 예술적형상성이 높은 혁명적작품을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적혁명문학이 체현하고있는 높은 사상성에 맞게 예술적형상성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문학의 사상성과 함께 예술적형상성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성실하게 산 사람

김동렬

어느날 눈내리는 저녁에 아홉살난 딸애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

《아버지, 왜 우리 집엔 할머니가 안계시나요?》

《할머니가 왜 안계시냐말이지?》

의혹에 찬 딸애의 눈길을 찬찬히 바라보며 나는 그 애의 말을 뜨직뜨직 되뇌었다. 할머니는 이 애가 세상에 태어나기 18년전에 이미 돌아가셨다. 딸애는 할머니란 다른 집에만 있고 우리 집에는 원래 계시지 않는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인지 한번도 할머니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해본적이 없었었다. 그러던 그 애가 오늘 불쑥 물었을 때 나는 그 무슨 예리한 끝으로 가슴이 찢리운것처럼 강한 충격을 느꼈다.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서가가 있는 방으로 딸애를 데리고갔다. 나는 탁상액틀속에 있는 사진 한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성임아, 이 사진이 바로 너의 할머니란다.》

딸애는 발뒤꿈치를 쳐들고 책상모서리에 턱을 얹은채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30대의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갓난애기나 다름없는 나를 안고 찍은 이미 색이 바래여 누르끼레해진 사진이다.

딸애는 눈을 깜박이며 사진을 한참이나 신기하게 바라보고있다가 나를 보며 웃었다.

《아버지, 거짓말... 5층 인숙이 할머니랑은 머리칼이 하얗고 얼굴이 주글주글해요. 이거야 할머니예요? 어머니지...》

나는 허거픈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생각이란 단순한것이어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만 인정하는것이니 백발이 아닌 젊은 녀인을 할머니로 보지 않는 딸애의 말은 얼마나 정당한가.

(네 말이 옳다. 너의 할머니는 할머니라는 말을 들어보기전에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지...)

나는 흥분으로 뒤설레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비낀 창가에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딸애의 물음은 나를 잊지 못할 유년시절의 추억으로 이끌어갔다.

그 시절을 회상할 때면 먼저 어머니의 부드럽던 손길이 지금도 나의 얼굴에, 온몸에 느껴지는듯하고 다정하고 엄격했던 음성이 귀에 쟁쟁히 들려오

는것 같다.

검푸른 하늘, 소리없이 내리는 눈발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환영처럼 떠오른다.

먼저 떠오르는 어머니는 어느 모로 보사 수수한 농촌녀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흰 무명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받쳐입고 머리에 흰 수건을 쓴 어머니, 마디가 불거진 투박한 손, 어떤 어리광도 너그러이 받아주던 무뎀한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면 고향마을의 전경이며 《비둘기산》이라 불리우던 나지막한 산언덕, 그 언덕 꼭대기에 서있던 고향집이 눈앞에 보듯 떠오른다.

우리 집은 늘 비어있었다. 나는 동생과 함께 집을 지켜야 했다.

어머니는 집에 있는 날보다 집을 떠나있는 날이 더 많았다. 나는 그것이 싫었다. 동생을 돌봐주는 일이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동생때문에 겨울에는 즐거운 눈싸움도, 여름에는 마을앞의 시내물에서 뱀장어잡이도 마음대로 할수 없었다.

우는 동생을 달랠 때마다 어머니가 있는 집 아이들이 부러웠다. 그 애들은 마음대로 뛰놀수 있었다. 앞집에 사는 길남이는 동생때문에 우는 일도, 안타까와하는 일도 없었다.

길남이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읍에 가서 사탕을 사먹었다는것이며 강에 나가 고기를 낚았다는것을 자랑할 때마다 나는 그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다.

나는 그때 어머니가 무엇때문에 집을 자주 떠나는지, 자주 떠나야 하는지 몰랐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기 한해전에 나는 일곱살이였고 동생 정애는 다섯살에 잡혀왔다. 하기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나의 할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될뿐이다.

전쟁이 일자 어머니에게는 집에 있는 일이 더 드물어졌다. 하루이틀씩 집을 나가있는 때도 있었다.

어머니는 오직 앓을 때에만 집에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집에 있다는 한가지 리유만으로 어머니가 앓는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이 《기쁨》조차 변변히 맛볼수 없었다. 집으로 마을사람들이 달려와서는 무엇인가 묻고 무엇인가 해명받아가지고 재빨리 사라지곤했었다.

사라지는 그들을 눈으로 배웅하고난 어머니는 또 다시 자리에 눕는다. 사람들과 말할 때는 앓는 기색

을 보이지 않다가 자리에 눕자 가는 신음소리까지 났다.

《어머니, 어데 아프나?》

가까스로 눈을 뜬 어머니는 풀어진 눈길로 나의 얼굴이며 어깨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손을 무겁게 쳐들어 나의 손을 더듬어쥐더니 자기의 이마에 꼭 갖다대었다. 이마는 불덩어리처럼 뜨거웠다.

《정근아.》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예?》

《어머니가 자주 나가있는게 싫지?...》 .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도리머리를 하였다.

《아-니.》

나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였다.

나가있는 어머니가 싫었지만 이 순간만은 어쩔지 싫다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기특한듯 웃음을 머금고 바라보다가 그 뜨거운 손으로 나의 어깨를 쓰다듬어주었다.

《우리 정근이도 인젠 컸구나... 애야, 술에 콩을 넣었는데 나가봐라.》

앉아누워있으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콩까지 담아 주는 다심한 어머니를 다시 한번 바라보다가 나는 부엌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하루쯤 누워있다가 또다시 집을 나섰다. 나서는 어머니가 나에게서 죽기보다 더 싫었다. 차라리 오래 앉아누웠으면...

나는 울바자뻘을 나서는 어머니의 앞을 막아서며 가지 말라고 졸라대었다. 어머니는 한참이나 나를 내려다보고있다가 오늘은 아프기때문에 일찌기 들어온다고 말했다.

《야- 정말이야?》

나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고 기뻐 이렇게 웨치듯 물었다.

《정말 아니구. 정애를 울리지 말고 잘 데리고 놀아라.》

어머니는 언덕길을 내려가고있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정애는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산에 가도 따라오고 강에 나가 동리아이들과 함께 고기잡이할 때도 줄곧 내뒀만 따른다. 정애는 나처럼 빨리 뛰지도 못했다. 산에 오르거나 강에서 미역을 감다가도 항공신호고동이 울리기만 하면 나는 울상이 되어버리곤 했다. 아장거리는 정애를 데리고 방공호로 빨리 가야 했기 때문이다.

한번은 길남이가 와서 달래강에 나가 고기를 잡

치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도 강기슭밭에서 종일 김을 맨다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는 갔다. 정애가 뒤따라왔다. 길남의 동생 길순이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강으로 나왔다.

이날 우리는 고기잡이에 어찌나 정신이 팔렸던지 길남이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했을 때에야 헤어문줄 알았다. 나는 반두를 들었고 길남이는 붕어며 버들치가 든 다래끼를 어깨에 메고 걸었다.

나는 길남이와 한창 신이 나서 고기잡던 이야기를 하며 걷다가 슬그머니 뒤를 돌아다보았다. 옆에서 졸졸 따라올줄 알았던 정애가 보이지 않아서였다.

정애는 저쪽 발취뜰우에 그린듯 서있었다.

이따금씩 주먹을 눈에 가져다대는것으로 보아 우는것이 분명했다. 나는 정애에게로 달려갔다.

《너 왜 우니? 길순이하고 싸웠니?》

나는 눈물에 얼룩진 동생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아니야-》

《그럼?...》

《우리 엄마 ... 어데 간?...》

정애는 또 운다. 나는 앞을 바라보았다. 길순이와 그의 어머니는 벌써 신작로우에 올라서서 걷고있었다. 길순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짱충짱충 뛰여가고 있었다. 뛰여가는 그 애를 더욱더 바라보던 나는 무뚝뚝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두 가자!》

《싫어, 나두 엄마하구 갈래.》

정애는 몸을 흔들더니 소리내여 울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때문인지 격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조금 큰소리로

《어머닌 회의가지 않았니, 어서 가자!》

하고 말하며 정애의 손목을 잡아들었다. 정애는 할수 없는듯 울며 따라왔다.

(회의에는 왜 어머니만 다닐까? 길남이 어머니처럼 집에 있으면 우린 얼마나 좋을가...)

어머니를 따라 들로 나가 놀던 때가 그리워졌다. 어머니가 넓은 밭에서 동네어른들과 함께 김을 땔 때면 나는 정애를 데리고 밭 한귀퉁이에서 소꿉장난을 했었다. 진흙을 빚어 사람도 만들고 개울물에 나무잎을 떠내려보내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잡아 방아도 찧게 한다. 그러면 정애는 좋아서 짹자꿹 손뼉을 치며 캐득캐득 웃는다. 그것이 좋아서 나도 별쪼별쪼 웃었다. 해가 지고 사위가 어둑어

독해질무렵이면 집으로 들어가자고 어머니가 말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목을 이끌며 정애와 함께 별이 총총한 밤하늘아래로 명량한 웃음소리 높이 흥겹게 걸어가던 그 정다운 들길...

어머니와 함께 걷는 길이면 그 어떤 길도 걸기가 즐거웠다.

그러던 어머니가 차츰 우리들만 집에 남겨두고 밖에 나가있는 날이 많아졌다.

전쟁 첫해인 1950년 8월 어느날, 뜻밖에도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집에 있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강에 나가 빨래도 해왔고 터발 강냉이를 따다가 얇은 속껍질을 벗기지 않은채 물이 설설 끓는 가마에 집어넣기도 했다. 부엌에서는 강냉이를 삶는 들크무레한 냄새가 풍기었다.

나는 어머니가 강냉이를 삶아주고는 또 밖으로 나갈까 저어하며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 있지?》

이때 어머니는 은근한 미소를 띠우고 나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오늘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고 말했다.

《야!-》

나와 정애는 너무 기뻐 손뼉을 치며 강충강충 뛰었다. 나는 기쁨을 억제 못하여 멧없이 벽작 고아대며 울바자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뛰어들어오기도 했다. 정애는 어머니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나는 아침밥을 먹고난 뒤에 어머니가 응하지 않으리란것을 뻔히 알면서도 읍에 가서 사랑을 사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들이대었다.

《사랑말이나?...그렇게 하자꾸나. 정근이랑 정애랑 다같이 읍으로 가자.》

《...?!》

나는 잠시 어리둥절하였다. 어머니가 선선히 응하리라고는 인차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이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을 때 나의 기쁨은 하늘에 닿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읍으로 가는 신작로에 나섰다. 어머니가 자주 걸던 그 길이다.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자주 살펴보던 그 길이다. 오늘은 이 길로 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걷고있다.

정애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끝없이 조잘거리며 강충강충 걸어갔고 나는 내가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풀밭으로 날아가는 메뚜기를 잡기도 하면서 걸어갔다. 해빛은 쨍쨍 내리비치고 하늘은 끝간데없

이 높푸르렀다.

어머니는 이날 읍시장에서 달콤한 사탕은 물론 정애에게는 인형아기를, 나에게는 《권총》과 그리고 개미도 강아지만하게 보이게 하는 신기한 물건-확대경을 사주었다.

어머니는 이날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은것같았다.

어느날 어머니는 또다시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밖을 나셨다. 그것은 회의나 멀리 읍에 간다고 할 때마다 입는 옷이었다. 손에는 동실한 보꾸레미가 쥐여져있었다.

《어머니, 어데 또 가나?》

나는 울바자밖까지 따라나서며 물었다.

《읍에 회의하러 간다. 정애를 데리고 집에서 놀아라. 멀리 가지 말구...》

나는 울음이 터져나오는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입술을 비죽거리며 울음을 참는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던 어머니는 나의 머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정근아, 오늘은 네가 웬일이냐?》

《어머니, 나두 갈래, 난 빨리 걸을수 있어.》

나는 눈물을 주먹으로 뺨 씻고는 당장 따라갈 태세를 취했다.

《그럼 정애만 혼자 남아서 종일 울어도 좋으냐? 오빠가 동생을 돌봐줘야지?》

어머니는 타이르듯 조용히 말했다.

《정애만 자꾸 울어. 차라리 어머니가 데리구 가.》

그러자 어머니는 물끄러미 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너 혼자만 놀구 동생은 돌봐주지 않겠단 말이지? 너야 오빠가 아니냐?》

어머니의 음성은 높아졌다. 했지만 나도 이번만은 순순히 응하고싶지 않았다. 정애를 데리고 가든가, 어머니가 나가자 말든가 이것이 나의 소원이었다.

나는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이렇게 되까렸다.

《자꾸 우는데뭘. 정애 없으면 좋겠어.》

그때였다. 갑자기 왼쪽다리가 얼얼해졌다. 어머니가 어느새 나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댄것이였다,

《이녀석, 어디 더 말해봐!》

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으로 볼수 있었다.

나는 퍼더앉아 소리내여 울었다. 왜 그런지 억울하였다. 어머니가 다시는 나를 품에 안고 어루만져주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설음이 북받쳤다.

한참 울다가 눈을 떠보니 어머니는 검은 치마자락을 날리며 언덕길을 내려가고있었다.

나는 속으로 흐느끼며 일어서서 정애의 손목을 잡은채 어머니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신작로어구에 들어서자 걸음을 멈추더니 한동안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또다시 울음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것을 가까스로 누르며 어머니의 모습이 구봉산굽이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집으로 들어왔다.

인차 온다던 어머니는 해질녘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벌써 다른 집 굴뚝들에서는 저녁연기가 물물 나왔고 아이들을 찾는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린다. 그 목소리들을 들으니 별스레 마음이 쓸쓸해진다. 어두워지는줄도 모르고 장난에 팔린 나를 어머니가 찾아 집으로 이끌고오던 일이 나에게는 아득한 옛일처럼 생각되었다.

정애는 별치 않은것 가지고도 트집을 걸며 칭얼거렸다. 문득 나에게는 정애를 얻리고 돌봐주어야 할 사람은 오빠인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애의 손목을 이끌고 터밭으로 나가 잡자리도 잡아주고 풀밭에 가서 산꽃들을 꺾어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석양빛에 별거우리하게 물든 구봉산굽이길을 자주 살피었다. 어머니는 아직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다.

정애는 또다시 어머니를 찾으며 칭칭거렸다.

나는 두루 궁리하던끝에

《정애야, 콩을 닭아줄까?》

하고 말했다.

《콩?》

정애는 눈을 반짝이며 무엇인가 생각하는듯하더니 갑자기 짹짹뛰며 어서 닭아달라고 말했다.

나는 옷방에 들어가 낫그릇 뚜껑에 콩을 담아가지고 토방에 나섰다. 그리고 토방 한끝 석양빛이 쏘이는곳을 골라 가마니를 깔고 그우에 콩이 담긴 낫그릇 뚜껑을 놓고 돌이 나란히 앉았다.

《오빠, 불 안때나?》

콩을 닭는다면서도 불을 지피지 않는것이 미심쩍었던 모양이다.

《이제 그릇이 파곤해져. 해님이 닭아주는거야. 너 해님이 닭아주는 콩 못먹어봤지?》

나는 제법 어른처럼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정애를 울리지 말자는 수단이다. 정애가 나의 유혹에 끌리는것이 기뻐다.

《해님이 콩 닭나?》

정애는 낫그릇결에 쪼크리고 앉아서 콩을 신기하게 바라보고있었다.

이때였다. 집모퉁이에서 나를 찾는 소리가 들리더니 울바자안으로 마을세포위원장이 웃음을 함뻍 담은 얼굴로 들어섰다.

《아저씨!》

정애는 토방아래로 뛰어내려가 그의 품에 콕 안겼다. 우리는 그를 무척 따랐다. 그는 우리를 사랑해주었다. 그러나 세포위원장도 성을 낼 때가 있었다. 한번은 어머니를 따라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앞에 어머니를 세워놓고 꾸중하는것이 아닌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물었다.

《어머닌 왜 욕먹었나?》

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욕이 아니라 일을 잘하자는거란다.》

어머니 말대로 그것이 욕이 아니라는것을 그후에 알게 되었다. 세포위원장은 마을의 아저씨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 온돌을 뜯어 고쳐주고 굴뚝도 바로잡아주고 울바자도 엮어 세워주고 이영도 올려주었던것이다. 겨울이면 땀감, 여름이면 농사일을 걱정해주는 그를 우리는 무척 따랐다.

《그래 무슨 놀음을 하고있냐?》

하며 세포위원장은 정애를 번쩍 들어 안고는 나의 옆에 앉았다.

《해님이 콩 닭아준대요.》

정애는 한결 명랑해졌고 말을 곧잘하였다.

《아저씨, 오빠가 엄마한테서 매달았다.》

《왜?》

《자꾸 엄마를 따라가겠대.》

《췌, 자기때문에 그랬는데두...》

나는 멋지게 중얼거렸다.

《그-래 ?》 하며 아저씨는 소리내어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콩 닭은걸 어디 보자. 참, 정근아, 확대경을 어췌냐?》

《확대경?...》

나는 잠간 생각하였다.

그러자 며칠전 온 가족이 읍으로 갔던 그 즐거운 날에 어머니가 사서 나의 손에 꼭 쥐여주던 둥그런 유리가 머리속에 떠올랐다.

나는 방안으로 뛰어 들어가 이불장 서랍에서 확대경을 꺼내쥐고 토방으로 나왔다.

《자, 해님이 콩닭아주는걸 너희들 보거라.》

세포위원장은 확대경을 가슴 높이에서부터 쳐들었다. 그러자 확대경속에서는 가느다란 빛줄기가 흘러나왔다. 콩알에 닿은 둥그란 그 빛은 유난히 밝았다.

몇분이 지난 뒤였다. 확대경속에서 흘러나오는 빛줄기를 받은 콩 한알이 움쭉움쭉 움직이는듯하더니 갑자기 《탁!》 하는 소리를 내며 한가운데에

금이 찍 가는것이 아닌가.

《야! -》

나와 정애는 그것이 신기하여 손벽까지 쳤다.

콩알 서너알을 튀겨준 아저씨는 인제는 해별이 따갑지 못해 닭을 수 없다고 하더니 나와 정애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정근아, 어머니가 자꾸 나가있으니 너두 싫지? ... 좀 참아야 한다. 어머니인들 너희들을 때놓고 종일 나가있기가 좋겠냐. 일이 바빠 그러는게다.》

하며 세포위원장은 나와 정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날이 어두워지면 길남이네 집으로 가보라고 말했다.

나에게는 오늘도 어머니가 일찌기 오지 못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아저씨가 나가면서 해빛을 걷어가지고 간듯 확대경속에서는 빛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시커먼 구름몽치들이 뒤엉켜돌며 물려들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갑자기 머리우에서 쇠덩이가 굴러가는것 같은 궁근 소리가 울렸다.

《짱, 파르릉...》

우뢰가 울고 땅우에서는 비방울이 튀었다.

한순간이 지나자 창살같은 비줄기가 쏟아져내렸다. 사위는 밤처럼 어두워졌다.

나는 짜늘해진 확대경을 손에 쥔채 정애와 함께 토방우에 우두거니 서있었다.

저쪽 눈아래로 굽어보이는, 구봉산기슭을 에도는 달래강엔 시뻘건 물이 소리치며 흐른다.

날이 어두워지자 길남이 어머니가 우리를 찾아왔다.

《애들아, 너의 어머니는 또 늦는가보다. 어서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을 먹구 길남이랑 같이 자거라.》

우리는 길남이네 집으로 갔다.

벽시계는 벌써 아홉번을 쳤다. 정애는 내옆에 누워서 눈을 감고있다가 잠들고말았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가 집에 와있는것만 같았다.

사위는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도록 어두웠다. 비는 소리치며 끝없게 내렸다. 번개빛에 한치한치 걸어나가 대문밖을 나선 나는 집으로 향한 둔덕길을 울리달리었다.

《어머니!》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다. 문을 벌컥 열었다. 불을 때지 않아 짜늘한 공기만이 풍겼다. 어머니는 집에도 오지 않은것이다.

나는 어둠속에 달래강다리쪽을 가늠해보며 우두커니 서있었다.

근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밤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길남의 어머니가 달래강 다리목까지 찾아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온밤을 비속에서 헤매었을지 모른다.

어머니는 새벽녘에 돌아왔다.

그때 나는 옷도, 손도 모든것이 물에 젖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날 어머니가 허리에서 짐을 풀어놓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었다. 보구레미속에서는 물투성이 된 수십개의 국방색 실토리가 데굴데굴 굴러나와 방바닥에 지도를 그려놓는것이 아닌가.

《어머니, 이게 뭐 큰일 하는거냐?》

나는 어처구니 없어 실망 비낀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것이 큰일 하는거지.》

어머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이 실이 있어야 군복을 만들구 또 교복을 잘 입어야 인민군대아저씨들이 미국놈을 몽땅 때려잡을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실이 그렇게도 중요할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정근아, 생각해봐라. 오늘 낮에 네나 정애가 따라왔더라면 어머니가 이 실을 가져왔겠냐?》

말뜻을 깊이 헤아릴수 없으리만큼 어리었던 나는 갑자기 종아리가 다시금 얼얼해지는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몇토리의 실때문에 어머니가 우리를 종일 집에 남겨놓고 나가있었으며 더구나 그것때문에 성난 물결을 헤치고 왔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가 시작되면서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날이 드문했다. 어머니는 나와 정애를 아예 길남이네 집에 데려다주고 거기서 밥도 먹고 자게도 했다.

3일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나던 날이었다.

어머니는 새벽에 우리를 찾아왔다. 잠에서 깨지 않은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던 어머니는 급한 일이 있어 또 나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일어나서 부엌문을 열었다. 부엌에서는 길남이 어머니가 찬거리를 씻고있었다.

《형님, 바쁜 때 아이들까지 맡겨 안됐어요.》

어머니가 문턱에 팔굽을 대고 앉으며 말했다.

《원 별말을 다... 너맹위원장, 몸을 돌봐가며 일하라구. 얼굴이 말이 아니란대두. 하긴 오죽 바쁘겠냐. 혼자서 솜옷 만드는 일을 다 살펴볼라니...》

길남의 어머니는 부엌일을 중단함이 없이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내 몸이 뭐 귀중한거라구... 미국놈을 내쫓는 일인데 내 한몸이 뭐겠나요... 놈들이 벌써

강건너 땡땡부락까지 기여들었다나봐요. 형님두 곧 떠날 차비를 하세요.

내가 오늘 군부대에 솜옷을 싣고 갔다가 밤늦게라도 오긴 하겠지만 정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 올 때면 우리 정근이랑…》

《그-럼, 그런 걱정은 아예 말라구.》

어머니는 일어섰다.

《아니, 너맹위원장, 밥을 제격 담을테니 한술 뜨구 가라구. 사람이 굶으면 일을 못해…》

길남의 어머니는 당장 밥을 담겠다고 술뚜껑을 열고 흰 김이 서려오르는 밥에 밥주걱을 박았다.

《형님, 옷마을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있어요… 거기서 먹지요.》

어머니는 다시 우리에게로 왔다.

《정근아, 어머니는 일이 있어 또 나간다. 길남의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라. 알겠지?》

나는 나의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감싸쥐었다.

나는 따라가겠다는 말을 다시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업에 방해를 끼쳐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자각에서 출발한것은 아니었다. 따라가겠다고 말해도 어머니는 승낙하지 않으리란것을 나는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나의 관심사는 어머니가 언제면 집으로 오는가 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물었다.

《어머닌 언제 오나?》

《저녁때 온다.》

하며 어머니는 정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정애야, 어머니가 없다고 울면 안된다. 응? 길남의 어머니랑 동네 어른들이 다 계시는데 울면 안돼. 저녁부터 어머니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어머니가 함께 있겠다는 말에 우리는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어머니는 기뻐하는 나와 정애를 한동안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무엇인가 결심한듯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방을 나서면서 또한번 뒤돌아보며 정애의 미소를 보내주었다. 정애는 따라가겠다고 성화를 부리지 않았다.

나서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속에는 여느때없이 은근한 감정이 끓어올랐다. 한것은 피발이 선 어머니의 눈이며 자꾸 부풀고 터져 언제나 하얀 닭알 속껍질이 붙어있는 어머니의 입술을 인상깊이 바라본데서 온 감정일수도 있었다.

나는 문밖을 나서는 어머니를 바라였다.

그런데 떠나간 그 길이 어머니에게서 마지막길이였다는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말인가.

…나는 창문을 열어젖혔다. 찬바람은 흥분된 나의 가슴을 잠시나마 진정시켜주는듯했다.

눈앞에는 스산했던 그날에 마을 반동놈들의 준동으로 짓이겨진 나의 집이 떠오른다. 바스러진 벽시계, 동강이 난 밥술이며 깨어진 장독, 프락을 적시며 흐르던 간장, 간장에 짓뭇개진 이불이며 도끼에 패여 찌그러진 집기등들… 나의 머리를 세차게 내리치던 그 총가목, 그 순간에 본 앓다문 하얀 이발…

하지만 지금도 나의 가슴을 저미는것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눈앞에 보고도 지나쳐버린 안타까움이였다.

그날 저녁무렵에 있는 일이었다. 늦가을 해가 서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동생의 손목을 잡고 신작로가 바라보이는 언덕우에 섰다. 저녁때면 온다던, 와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던 어머니는 아직 신작로에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서산에 기울어지는 해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기다렸다. 동생은 아직도 흐느킨다. 반동놈들의 악행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울지도 못했던 정애였다. 정애는 어머니가 오면 다 일러주자고 말하며 엉엉 울었다.

바람은 우리를 쓸어눕힐듯이 기승을 부리며 불어쳤다. 나무가지들이 휘여들고 떨어지는 나무잎사귀들이 와스스 소리를 내며 팔찌기로 물려간다.

이날따라 어머니가 더없이 그리워졌다.

했지만 행길우에 다니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마을에서부터 무개자동차 한대가 먼지구름을 공중으로 말아올리며 달려갔을뿐이었다.

차우에는 여러 사람이 타고있었다. 군복을 입은 사람, 군복을 입지 않았으나 어깨에 총을 멘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복판에 앉아있는 웬 녀인에게 총부리를 겨누고있었다. 필경 그 녀인은 총잡은놈들에게 체포되어가는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혹시 어머니가 아닐가? 아닐거야. 어머니라면 왜 집에도 들리지 않았을것이며 이렇게 눈이 빠지도록 애타게 기다리며 산등성이에 떨며 서있는 우리를 보고도 말 한마디 없단 말인가,

자동차는 점점 작아지다가 주먹만한 돌덩이처럼 보이더니 그것마저 산굽이길에서 깜박 사라졌다.

그날 밤.

나와 정애는 토방우에다가 이슬에 축축히 젖은 가마니를 깔고 앉았다. 마가을 찬바람이 산기슭을 거슬러 풀안으로 불어왔다. 우리는 오돌오돌 떨었다. 그러나 짓뭇개진 집안으로는 들어가고싶지 않았다. 나는 길남의 집을 내려다보았다. 불이 꺼져있었다. 그 집에서도 불길한 일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정애는 울다가 지쳐버렸는지 나의 무릎우에 머리

를 대고 누웠다. 동생은 자고있다. 자면서도 몸을 바르르 떨며 흐느끼군한다.

나는 울바자박을 살피며 어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속으로 울었다. 소리내어 울면 정애가 깨어나 더 크게 울기때문이다.

이따금씩 저멀리에서 《따-쿵》 하는 이상한 총소리가 울리고 아래마을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올 뿐 밤은 고요했다.

뜰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귀뚜라미가 시름없이 울어댔다. 단조로이 울리는 그 소리에 나도 가물가물 졸기 시작했다. 자기를 불러주며 어머니가 들어설 그 시각만을 기다리며...

누구를 찾는 듯한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정애도 들었는지 머리를 보시시 든다. 사위는 먹물을 뿌린듯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었다.

《정근이 있냐?》

웬 남자의 목소리였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동생은 나의 품으로 기어들며 손을 꼭 잡았다. 세번째로 다시 찾았을 때 나는 그 목소리의 입자가 세포위원장이라는것을 알았다.

《아저씨!》

그저 억울하고 분하고 무섭기만 하고 외롭고 슬프던 이때에 그가 나타나자 울음이 왈칵 쏟아져나왔다.

《정근아!...》

아저씨는 북받쳐 오열을 참는듯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와락 안아주었다.

세포위원장이 왔으니 어머니도 방금 들어설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불렀다.

《우리 어머니 언제 오나요?》

《어머니말이냐?》

이렇게 되뇌이던 아저씨는 무거운 어조로 대답한다.

《인제 곧 오게 될게다.》

이 순간 나는 얼마나 기뻐는지 몰랐다. 어머니가 곧 오신다니 것처럼 쓸쓸하고 뻥뻥해보이던 집에 온기가 돌고 활기가 피는것 같았다. 나는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을 쓸기 시작했다.

《갑자기 방안은 왜 쓰느거냐?》

묻는 아저씨의 음성이 갈린듯했다.

《어머니가 보시면 날 욕할거예요. 나쁜놈들이 방안을 몽땅 어지럽혀놔거든요.》

열어젖힌 문으로 흘러드는 푸른 달빛에 조각난 가구들이며 방바닥에 널려진 낱알들이 드러났다.

《얘야, 비를 인주렴, 내가 쓸게.》

아저씨가 문턱을 성큼 넘어서며 말했다.

《내가 쓸래요. 나도 잘 쓸어요.》

《이리 내려두. 어서-》

비를 넘겨주는 그 순간, 나는 아저씨의 눈가에서 무엇인가 달빛에 번들거리는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 눈물이었다.

(아저씨는 왜 우실까?)

《아저씨 ?!...》

나는 세포위원장의 팔소매를 붙잡으며 불안스러운 눈길로 그의 얼굴을 살폈다.

《오냐, 어서 쓸자...》

하며 아저씨는 방안을 서둘러 쓸기 시작했다. 그러는 아저씨의 몸가짐이 나에게서는 더욱 불안스럽게 안겨왔다.

《정근아, 방안을 다 거두었으니 인젠 가자!》

하는 아저씨의 말에 나는 놀랐다.

《가다니요? 어머니가 곧 오잖나요?》

그러거나말거나 아저씨는 정애를 서둘러 업더니 나의 한팔을 지그시 잡았다.

《가야 한다! 너의 어머니는 곧 우리뒤로 따라 올게다. 우린 마을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적들이 지금 마을로 쓸어들고있다. 어서 가자!》

아저씨의 말은 단호했다.

《어머닌 일없나요?》

나는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내 말하지 않더냐. 어머닌 우리뒤로 올게라구. 벌써 갔을지도 모른다.》

하며 아저씨가 잡아끄는바람에 나는 거의 이끌려가다싶이했다. 어머니가 방금 들어설것만 같은 집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우리가 마을을 빠져나와 칠학산인민무장유격대지휘부가 자리잡고있는 깊은 골어구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동녘이 희붉히 밝아오고있었다.

이들이 지나고 보름이 흘렀어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가?

정적.

신작로엔 자동차들의 발동소리가 뜸해지고 파란 빛을 뿌리던 가로등이 꺼진지도 퍼그나 오래다. 도시의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나는 잠들수 없었다. 높뛰는 심장의 고동소리는 조용한 방안을 울리는듯했다. 나는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방안을 거닐었다. 것처럼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았었다. 나는 어머니를 다시는 만나볼수 없었다.

흐려지는 눈앞에 혁명학원시절의 추억들이 뚜렷한 화폭처럼 펼쳐졌다. 그 화폭들은 언제나처럼 나의 생활에서 가장 정겨웁고 부드럽고 따뜻한 요람으로 감격속에 떠오른다.

…해빛이 밝게 빛나던 전후의 어느 초가을날 아침, 나와 정애는 동리사람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혁명학원으로 떠났다.

우리를 맞이한 학원의 교실들은 세상에서 제일 밝고 아담하고 화려했다. 숙소는 아늑했고 선생님들의 교양은 엄격하고도 부드러웠으며 부모들의 손길은 변함없이 따듯했다. 이 품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이름은 서로 달랐지만 혁명의 피줄기를 이을 친형제로 자랐다.

학원에서 생활을 시작한지 처음 얼마동안은 사람도, 교실도, 숙소도 모든것이 낯설고 서먹서먹하고 마음이 불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해지는 저녁무렵이 되면 어머니 생각이 났다. 다시없을 어머니를 그리니 마음은 애수로 한가득 찬다. 어머니를 기다리며 방안을 쓸던 그날 밤의 일이 자꾸 떠올라 가슴저리게 한다.

황혼이 스며드는 창밖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어느날 학원에서는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 밤중에 정애가 없어진것이다.

그것은 늦가을 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치던 날 자정무렵에 있는 일이었다.

취침중이 울리자 담당보모는 숙소의 매 호실들을 돌아보았다. 아이들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았는지, 밤에 앓는 아이가 없는지, 날씨가 찬데 이불을 차버리고 자는 아이는 없는지, 호실창문이 열려지지 않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정애가 호실에서 사라진 사실을 보모는 침대가 비어있는것을 보고 알수 있었다.

처음 보모는 그 침대의 주인인 정애가 곧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다가 방금 제껴놓은듯한 이불, 벽에 걸려있는 그 애의 상의를 보모는 보았었다. 정애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침대 한끝에 앉아있느라니 어느새 반시간이 흘렀다. 보모에게는 점점 의문이 생겼다. 어린애가 스산한 이 밤 밖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정애는 분명 호실을 떠나 어디론가 갔다는것이 거의 확신적으로 느껴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다.

보모는 학원직일관실을 향해 달리였다.

불과 몇분동안에 여러 선생들과 보모들, 나의 학급동무들, 아니 온 학원이 떨쳐나 정애를 찾아 달리였다. 사방에서 정애를 부르는 목소리들이 비줄기를 뚫고 들려왔다.

정애를 부르며 비바람속을 걷고있는 나의 머리속에는 문득 오늘 낮에 있는 일이 떠올랐다.

내가 그물에 넣은 축구공을 어깨에 둘러멘채 숙

소정문을 나서고있을 때였다. 정애가 빠른 걸음으로 마주 걸어왔다. 그 애는 먼발치에서 나를 보자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정애에게로 뛰어갔다.

《너 어디 가니?》

정애는 대답을 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더니 신발코숭이로 동그라미를 무수히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재차 묻자 정애는 갑자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난 어머니한테 갈래.》

《정애야, 누구하고 싸웠니?》

정애는 도리머리를 했다.

《그럼?》

《아까 우리 학급 영숙이 어머니랑 면회왔됐어...》

《영숙의 어머니가 면회를? ...》

순간 나 자신도 어머니가 못견디게 그리워졌다.

학원에서의 즐겁고도 행복한 나날은 나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잊게 하였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이처럼 정애가 찾아와 어머니한테 가자고 졸라댈 때문이었다. 나는 피로왔지만 어느때건 정애에게 어머니의 희생에 대하여 말해주리라 결심하였다.

(나 자신 이 순간까지도 어머니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잘 모르고있었다.)

…나는 학원숙소 뒤울타리로부터 뿔뿔히 뻗어 오른 나지막한 산언덕을 생각했다. 며칠전에도 정애는 그곳에 올라가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다. 그 낮은 산언덕에 오르면 산기슭을 따라 굽이굽이 뻗어나간 넓은 신작로가 보이는데 그것은 마치 고향마을 우리 집이 자리잡고있던 《비둘기산》에서 내려다보는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것이였다.

나의 온몸은 물참봉이 되였다. 언덕에 올라 사방에 귀를 기울였다. 온 골안은 세찬 바람, 나무잎 설레이는 소리로 몹시도 소란했다.

나는 물 흐르는 나무가지를 선탄선뚝 얼굴에 느끼며 언덕너머 저쪽아래로 내려갔다. 튼튼한 가지들을 우산처럼 펼치고 서있는 커다란 소나무밑까지 다가갔을 때였다. 바로 가까이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감촉했다. 나는 몸을 휙 돌려 그곳으로 한발자국 한발자국 접근해갔다.

아니나다를가 정애가 나무밑에 서있었다. 방금 물에 빠졌다가 나온 아이 같았다.

이런 정애를 보느라니 언젠가 나도 비 쏟아지는 한밤에 어머니를 찾아 밖을 헤매었던 그 밤의 일이

피곳 떠올랐다.

무섭게 퍼붓는 비, 홍수에 끊어져나간 달래강다리, 목이 쉬도록 부르고 불렀던 《어머니-》...

지금 정애는 그때의 나이상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하여 이 밤중에 호실을 뛰쳐나온것이라.

정애는 나를 보자 질박한 땅에 퍼터앉았다. 그리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울면서 어머니한테 가자고 졸라댔다.

《응, 가자.》

나는 갑자기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라 말을 더듬거리며 정애를 안아일으켰다.

어떻게 할것인가? 어머니가 없다고 속 시원히 말해줘야 웬단말인가?

내가 망설이고있는데 정애는 더욱 조른다. 나는 속에서 무엇인가 끓어오르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나의 어머니가 없다는 참을수 없는 안타까움이였다.

나는 저도모르게 정애의 한쪽 어깨를 붙잡고 뺨을 갈기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네가 울면 어머니는 오지 않아-》

사람들이 달려왔다. 정애네 학급 담임선생이 먼저 달려와 나의 품에서 그 애를 떼내어 와락 그러안았다.

《네가 웬일이냐?》

담임선생도 목메인 소리로 말하며 정애를 무작정 등에 업었다. 그리고 숙소를 향해 달리였다. 모두가 그를 따라 달리였다.

나의 동생 정애는 끝내 앓아누웠다.

그 애는 잠들었다가도 소스라쳐 깨어나며 울곤했다.

나는 그 애가 누워있는것을 보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정애가 호실로 업혀와 침대에 누운지 얼마 안있어 술한 사람들이 찾아들어왔다. 선생들, 부모어머니들, 흰 위생복을 입은 의사선생님들, 학급동무들로 방안은 터질것만 같았다.

나는 눈을 휘둥그래 떴다. 어린애가 하찮은 감기에 앓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 걱정해주는것일까?

《비둘기산》에서 살 때 혹시 내나 정애가 앓아누우면 기껏해서 어머니가 아니면 할머니가 걱정해주곤했었다.

나는 이 순간, 새로운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떠나있는 지금 나와 정애는 한 두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온 학원집단, 아니 조국의 커다란 손길, 그지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속에 있다는 고귀한 느낌이었다. 외로움을 느끼던 나의 생활이 명랑한 나날로 이어지는것도 이

크나큰 사랑때문이라.

자정이 지나서는 학원 원장선생님도 찾아왔다. 몸집이 어찌나 우람하고 키가 컸는지 나는 그의 흰머리칼을 겨우 올려다볼수 있었다. 일찌기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항일 유격대에 참가하여 왜놈들을 많이 죽였다는 원장선생님을 나는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정애가 누워있는 침대가까이로 다가갔다. 정애는 까만 눈을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원장은 허리를 굽히고 정애의 손을 잡더니 이름이 무엇이라고 다정히 물었다.

《김정애입니다.》

《김정애라...》

하며 정애의 이름을 되뇌이던 원장은 약간 놀라는듯한 빛을 얼굴에 띄우며 다시 묻는다.

《그럼 네가 중삼마을에서 온 애냐?》

《예, 우리 집은 중삼마을 <비둘기산>에 있었어요.》

하고 정애가 똑똑한 발음으로 대답하자 원장은 기특한듯 부드러운 웃음을 띠었다.

《정애는 참 똑똑한 애구나... 그래 너의 오빠 정근이도 왔겠는데... 그 애가 지금 숙소에 있소?》

원장은 선생들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물어보았다. 이 순간 나는 저도모르는 사이 고개를 움츠렸다. (원장선생님은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

원장이 다시 묻자 나는 두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가까이 오너라.》

하며 원장은 나의 손목을 잡아 이끌더니 자신의 곁에 앉히였다.

《정애는 자다가 왜 밖으로 나갔댔냐?》

하고 원장은 다시 정애에게로 몸을 기울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정애는 원장과 나를 번갈아쳐다보며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벽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허- 똑똑한 정애가 울다니...》

원장은 정애의 손목을 꼭 쥐어주더니 빙 둘러선 사람들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 얼굴에는 그들이 비껴있었다.

《이 애가 지금... 자기 어머니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소. 오죽하면 자다가 바람부는 이 밤중에 밖으로 뛰어나갔겠소?...》

원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리였다. 방안에 있는 교원들, 의사들, 부모들, 학생들은 하나같이 생각에 잠긴 심각한 얼굴로 듣고있었다.

《정애가 남달리 어머니를 그리워하는데는 눈물겨운 사연이 있소. 정애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바칠수 있는 그 토막시간마저 바로 조국과 혁명을 위

하여 바쳤던것이요.》

나는 원장의 말에 온 정신을 집중하였다. 원장의 말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였었다.

원장은 정애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며 주위를 빙 둘러본 다음 말을 이었다.

《옛그제 나는 이 애들이 살던 중삼마을의 리당위원장동무가 보내온 편지를 받아보고 혼자 울었소.

편지에는 정애의 어머니인 중삼리녀맹위원장동무의 훌륭한 최후에 대한 심각한 내용이 적혀있었소. 리당위원장동무는 바로 그 내용을 이 정근이와 정애에게 전하여줄것을 나에게 부탁하였소.》

나는 원장의 말을 귀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빨아들었다. 원장은 그 목직한 손을 나의 어깨에 얹었다.

《정근의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땅과 집과 고향산천, 조국을 적들의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용감히 싸운 훌륭한 당원이었소.

그러기에 체포된후 정근의 어머니는 놈들의 온갖 야수적인 고문에 굳은 의지와 혁명적절개로 맞받아 나섰던거요.

그가 시험장으로 끌려가던 날이었소. 살인마들에게 눈알까지 뽑힌 그는 앞을 볼수 없는데다가 다리까지 부러져 제대로 걷지 못했소. 사형장주변은 강제로 끌려온 읍안의 주민들로 꽉 찼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섰다는것을 알게 된 녀맹위원장동무는 초인간적인 힘을 내어 인민군대는 곧 돌아온다는것, 놈들이 애국자들을 죽이는것은 멸망을 앞둔자들의 발악에 불과하다는것,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고 그이께서 우리 인민을 령도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소.

이 순간 공포에 질린놈들은 그에게로 달려들어 입에 숨뭉치를 틀어막았소. 만세를 부른다고말이요...》

방안은 물뿌린듯 조용했다. 이따금 구석구석에서 치솟는 분격을 누르는 흐느낌소리만이 들릴뿐이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처럼 어머니를 똑바로 볼수 있는적은 단한번도 없었다.

내가 알던 어머니는 소박하고 조용하고 부지런한 평범한 농촌녀성이였었다. 언제한번 남에게 싫은

소리 해본 일 없는 세상에 드문 무뎌한 어머니였었다.

그 어머니가 굳세고 세련되고 슬기로운 모습으로 교수대에 나타나 원썩놈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강하고 억세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고 조국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놀랐고 울었고 또 기뻐다.

이런 어머니를 나는 왜 원망했던가.

어머니가 내디딘 한걸음 한걸음이 조국을 위한 것이였음을, 어머니가 한 한마디 한마디의 소박한 말이 혁명을 위한것이였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건잡을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저주하고 후회하였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조국을 귀중히 여겼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것을 남기고떠나갔으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모시는 길에 인간의 참된 삶, 생활의 진리가 있다는 아름다운 노래였다.

하기에 유년시절에 보고 들은 잇을수 없는 화폭들이 새로운 힘과 깊이를 가지고 나의 머리속에 떠오른다.

별 한복판에서 지경패말을 어루만지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 자진하여 군부대를 찾아가 대원들앞에서 군대를 보니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말하던 그 소박한 음성, 게거품을 물고 삼켜버릴듯이 덤벼드는 성난 물결을 홀몸으로 헤가르며 가져온 국방색 실토리들, 길남이네 집 문턱을 나서며 다시 보고 또 보던 생각 깊은 은근한 눈빛, 터진 입술, 원썩들에게는 공포로, 인민들에게는 힘으로 들리던 어머니가 궁지높이 부른 《김일성장군 만세!》...

이 모든 화폭들은 하나의 감정속에 융합되면서 나를 숭엄한 세계에로 끝없이 이끌어준다. 어머니처럼 깨끗한 그 량심을 이어지니고 살리라.

...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온다.

나는 자고있는 딸애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주며 이 애가 잠을 깨면 들려줄 말을 생각하였다.

내가 어머니를 똑바로 볼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처럼 너에게도 할머니를 똑바로 보게 될 그 시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때 너는 할머니가 있으며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천만년 빛내가리라, 주체의 조국이어

홍현양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싶은 때인가
젊음에 끓는 가슴
나래치는 희망

밝아오는 새벽
쇠물이 사품치는 백광을 바라보며
넘쳐나는 기쁨은
이 땅에 살아
이 땅에서 일하는 행복

태어나 바라본 하늘은
주체조국의 저 푸른 하늘
내 이 땅에서 받아안은 사랑은
주체의 밝은 햇빛

조국이란 말을
그 햇빛아래서 배웠다
연필을 쥐고 그 말을 처음 쓰던 순간처럼
9월의 대축전장
꽃바다의 물결속에서
나는 그 말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아, 위대하신 수령님을 우러러
이 땅의 미래를 펼쳐주시는
다정하신 그 음성을 심장에 새기며
감격에 목이 메고
또 메이던 하나의 생각

조국이 없이는
내가 없고 인민이 없고
햇빛이 없이는
이 땅에 꽃과 열매가 없듯이
주체사상은 내 눈동자에
조국의 하늘을 담아준 햇빛!

한생을 떨어져살수 없는
아버이 그 사랑
흐르는 세월속에 햇빛으로 파사로워
나는 쇠물도
그 은혜로움을 강산에 적는다

아, 영광의 대회장에서
다시금 심장에 새겨안은 그 말은
이 땅에 더 세차게
더 많이 뿔어야 할 쇠물
이 땅에 더 높이
더 힘차게 휘날려갈 3대혁명의 기치

청춘이 아까우라
폭풍이 두려울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조국은 어머니
나는 그 품속에 자라난
이 땅의 아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싶은 때인가
사랑하는 조국이어

금나락 설레이는 저 들판우에
일어서는 언제마다에
나는 쇠물로 영원히
주체의 빛발을 수놓아가리니

천만년 빛내리라
주체의 조국이어
수령님 부르시는 한길우에
나의 청춘
나의 희망
쇠물의 노을로
영원히 피고 또 피리라

혁명전위의 노래

구희철

가장 기쁜 순간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면
가슴마다 가득히 차고넘치는
기쁨을 두고 행복을 두고
3대혁명 소조원!
그대들을 먼저 생각한다

가장 힘겨운 일이 앞에 있고
가장 험난한 언덕을 넘어야 할 때
말없이 앞장서서 길을 열던
혁명의 전위!
그대들을 먼저 생각한다!

충성을 안은
그 불같은 마음들이
날마다 세멘트를 싣고
먼길을 돌아 오가던 기차를 보고
바다로 질러가게 할수는 없을까
간절히 앞세우던 그 생각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 수송선되어
바다위로 곧추 뻗어가게 한 그대들

뜨거운 심장을 추켜든듯
타오르는 화불을 높이 들고
온 농장마을을 불러
때이르게 내리던 찬서리
앞장서 맞받아나가며
만풍년 새싹을 키워온 그 마음

어버이수령님 부르심이라면
불속이고
물속이고
가림없이 뛰어드는
그 불을 안은 마음들이
천만사람들 마음을 불러
하나의 충성의 대하로 굽이치게 하나니

대하가 되어
격량이 되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길에서
사상, 기술, 문화 세폭의 붉은기
대오앞에 휘날리며
나가는 그대들의 앞길에

거대한 산악도 비껴서고
갈기센 강물도 물머리 돌린다

어버이수령님 바라시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바쳐가는
그길에 막아설 장벽이 없음을
무조건성의 신념으로 보여주며
혁명의 돌파구를 앞장서 걸어가는
그대들은 3대혁명 시대의 선구자들!

조국땅 그 어디로 가나
땅속에서 땅우에서 하늘가에서
광석을 캐고 공장을 세우고
하늘높이 언제를 일으키며
그대들이 남기는 그 위훈의 자욱
이 땅우에 별과 같이 무수히 빛난다

두렵없이 내짚는
그 무조건성의 걸음앞에
보수주의도 소극성도
가을 락엽같이 날려갔고
혁신의 싹, 창조의 새싹은
봄날처럼 움터자라
생활은 기쁨으로 꽃피고
행복은 열매로 주렁진다!

샘같이 맑고 깨끗한
별같이 맑게 빛나는
어버이수령님 위해 변함없는
그 신념!
그 충성!
그 걸음!

앞장서 총진군의 북을 치며
주체화의 자욱!
현대화의 자욱!
과학화의 자욱을 남기며
새 7개년의 장엄한 행군길우에
심장과 심장들을 불러세운 그대들

그대들이 나뭇겨가는
3대혁명의 붉은기로

하늘땅을 뒤덮으며
열정에 넘치는 그 젊음으로
주체조국을 빛내여가는
그대들은 자랑스런 혁명의 기수!
그대들은 미더운 혁명의 전위!

한 자옥을 옮겨도
어버이수령님께 드릴
그 기쁨을 위해 옮기고
한순간을 살아도
어버이수령님 심려를 덜어드릴
그 한 생각으로 가슴 불태우는 그대들

사람들 가슴마다엔 충성을
일터와 일터마다엔 기적을

조국엔 영광을 더해주는 그대들
어버이수령님 받드는 길에
영원한 충성의 삶이 있음을
만사람의 가슴마다에 깨우쳐준
혁명의 전위투사들!

아,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그 한마음
어버이수령님 받들어 변심없는
주체형의 피끓는 그 젊음에
락원의 이 강산이 더 젊어지고
행복한 인민이 더 젊어지고
새폭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든
우리 시대는 청춘의 열정으로 약동한다

주체의 빛발 넘치는 강산에서

조빈

9 월의 하늘에
터져 오르던
환호를 안고
감격을 안고
나아가는 조선

주체의 빛발로
우리 인민이 걸어온 30 년을
인류 수천년의 력사우에 빛내이시고
또다시 새로운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 따라
인민은 나아간다

넘치는 자랑을 안고
끝없는 영광을 안고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에 안겨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한길우에
하나로 고동치는 심장파 심장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희망을
이 길우에서 받아안은 인민이기에
깨끗한 량심으로
끝없는 열정으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어가거니

출강을 앞두고

로안을 들여다보는 용해공들
이글거리는 쇠물처럼
마음속에서
티없이 깨끗한 충성의 붉은 피 끓는다

일떠서는 공장
철탑우를 날으는 연공들
하나하나의 나사못을 조여가는
그 마음으로
혁명의 신들메를 조인다

들에서도 막장에서도
조국땅 어디에서나
굽이쳐흐르는
거세차고 도도한
새 진군의 발구름소리

아, 영광의 대축전장
높은 연단우에서
주체의 진리로
인류사회의 상상봉을 가리키시며
력사의 새 진로를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부강한 내 조국이 더 번영하라고
우리 인민모두가
자주인민의 더 높은 존엄을 지니라고

가슴가슴에 안겨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여

이 기치 휘날리며
시련의 바다를 헤치며
영광의 언덕을 넘어왔고
이 기치 높이 추켜들고
창창한 미래를 향해
우리 나아가거니

걸음마다 이 땅우에선
주체의 새 인간이 태어난다
이 전진속에
자동화의 노래
온 강산에 울리고
온 사회에 지식인의 대군이 흐른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 달려온 길처럼
수령님 해빛아래 휘황하게 열리고
수령님 품에 안겨 나아가기에
시련속에서도 웃을줄 아는 우리 인민은

신심과 희망에 넘쳐 가고있으라

나아가자, 인민이여
한 고지를 넘고 더 높은 고지로
치달아오르는 그 기백 그 열정으로
수령님의 바라심을 먼저 생각하며
언제나 신들메를 조여가는
충성스런 우리 인민이여라

조선의 기상을 온 누리에 펼치며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광장에 높이 모실
자주통일의 길을 열며
천리마의 기세
속도전의 불바람 일으켜
새 7개년의 명마루에 어서 오르자

달려도 달려도 진함없는
자주인민의 우리 힘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그 의지로
주체의 빛발을 누리에 뿌리며
우리 인민은 나아간다
조선은 나아간다

다듬은 말

본래말

다듬은 말

견본
견사
견인력
결말
결박
결실
경량화물
고굴
고물
고포
고혈
고온
고유색
고음

본보기, 본
고치실
끌힘
마무리
묶기, 매기
여물기
가벼운 짐
옛굴
헨것, 낡은것...
누대기, 헌천
피땀
높은 온도
제색
높은 소리, 높은 음

본래말

다듬은 말

고의로
고원
끌격
끌수
공란
공복
공지
공휴일
공인
교목
교정
구독료
구독하다

일부러, 우정...
높은 벌
뼈대
뼈속
빈란, 빈칸, 빈데, 빈곳
빈속
빈땅, 빈터
쉬는 날
기관도장
키나무
바로잡기, 고치기
값, (책)값, (신문)값...
사보다, 보다, 읽다

사랑 다할길 없는 조국에

리금녀

멀리 흰구름 흐르는 하늘
땅에 닿을듯 추너났은 이영아래
황토벽을 배경으로 한
여섯명 사진속에
나는 웃고있다

머리우에는 펄럭이는 기발
람홍색 오각별 그 기폭앞에
무명치마 랑태머리 나는
너무도 어엿이 서있구나

기폭을 들어 불을 비벼보던
그 얼굴들에 어린 밝은 미소
하늘가를 바라보는 젖어든 눈길
아, 이 나라 샘골마을의
첫 너성공민들
그날의 모습이어

부엌너, 외양너
이름 아닌 이름으로 불리우던
나의 동무들
팔리워 쫓기워 흩어졌던
마을의 딸들

얼마만이던가
짙신 맨발로 돌아와
난생처음 마음놓고 울고 웃은것은
그 천대받던 녀인들을
어머니의 품인양 하나로 이끌어
푸르른 창공에로 부르던
기발이어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신
그 기발아래엔 다 있었다
권리를 찾은 녀인들의
선거장, 흥겨운 춤판이-
땅을 받은 아버지가
해마다 높이 쌓아가는 풍년기쁨이

그 기발아래엔
소꼴머슴이 충을 메고
조국을 지켜나서던
그 아침이 있었고
애국미를 싣고 월랑절랑
평양으로 향하던
동구밖 달밤의 기나긴 대렬이 있었다

어찌하여
분여받은 발머리
흙을 움켜쥐고 걸음 못떼던
우리 농맹위원장
사진속에 웃음을 남긴채
영웅고지에서 돌아오지 못했던가

어찌하여
고향땅을 과일꽃으로 뒤덮겠다고
어린 나무 산기슭에 옮겨심던
배나무집 둘째딸
미제교형리앞에서도
이 기발 품에 간직한채
열아홉나이를
고향언덕에 빛내일수 있었던가

철쇄로도 불길로도
어머니의 품 빼앗지 못하듯
살아도 공화국기발
우리 지켜 싸우고
죽어도 공화국기발에 싸여
이 땅에 영생하려니

아, 머나먼 백두에서
고난의 천마리 헤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 기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이 기발아래 인민의 락원을
펼치여 주셨기에

서른해, 이 기발 우러러 다진 맹세
지키고 지켜온 우리
세월은 흘렸어도
그날의 사진 바라보며
오늘도 첫걸음 시작하는 마음들

우리의 념원도
우리의 희망과 운명도
이 기발과 함께 있고
만대에 이어갈 행복한 미래도
이 기발에 비껴있어라
위대한 수령님 모시여
영광찬란한 조국에
내 사랑을 바치고 바쳐도
다할길 없어라

어린 제자들에게

변홍영

아, 리별의 아픔이
이리도 가슴을 허비는것인가

달려든 경찰들은
내 팔목에 족쇄를 채웠건만
휘두르는 곤봉에 쓰러지면서도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
나의 어린 제자들아

마가울 찬바람이
피같이 타는 단풍잎을 휘뿌린다
깃뿔힌 교정,
슬픔의 그늘길은 눈빛을 마주보기란
피롭다, 한가닥 희망의 불꽃도
찾아볼길 없는것을

어둑새벽 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으며
굴욕에 울던 저 어린 녀들
그래도 이 교실에 들어서면
한줄기 웃음이 어리던 그 눈빛들앞에서
내 가슴속에 진한 피눈물이 흘렀다

귀밑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도록
이 교정에 들어서는 어린 가슴들에
애오라지 깨긋한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싶었던
《유신》의 독버섯이 돋는 교과서를 읽으며
너희들이 배울것이 무엇이고
내 너희들에게 가르쳐줄것이 그 무엇이였더냐

참된 배움이 꽃피고
참된 삶이 넘치는 저 북녘에선
아이들이 밝은 해빛을 안고 자라건만
정의와 진리가 철쇄에 묶인 이 땅에선
그 언제까지
저 천진한 가슴들이 거짓에 속고

성스러운 교단이
파쑈의 폭압에 유린당해야 한단말인가

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더는 참을길없는 피로움을 더친것이
북녘땅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준것이
죄였더라면말이나
아니다, 철창이 앞에 있어도
교육자의 량심은
파쑈의 총칼로 더럽히지 못한다

머리를 높이 들어라
사랑하는 나의 어린 제자들아
황금과 권력에 굴종하는
이지러진 청춘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의 선배들이 걸어간것처럼
항쟁의 포석우에 선혈을 뿌릴지라도
통일구국의 한길을 열어가는
참된 민족의 아들이 되거라

내 파쑈의 철쇄에 묶여간다면
이것은 리별이 아니다
총칼이 막아서도 기어이 가야 할
통일의 길
내 이 한길을 곳곳이 걸으려니
이 길만이 온 민족이 걷고
너희들이 따라설 참된 삶의 길이다

아, 정의와 진리가
해빛처럼 빛나는 북녘땅
위대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에 겨워 부르는 너희들의 노래소리를
듣고싶구나
밝은 하늘아래 웃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싶구나

창문너머 붉은 노을

김학렬

한쪽의 그림이나
꿈나라가 이곳이나
정녕 나는
그 어디메에 서있고

저 창문너머 발갛게 타오름은
조국의 크낙한 하늘이
틀림없느냐

평양대극장 고층 연습실
저 창문너머 저녁노을 비껴흐르는 물은
저무는 우리 수도의 대동강이
틀림없느냐

나의 눈앞에 펼쳐진
저 안개속의
그림 같은 풍경은
나의 가슴속에
소스라쳐 놀라움의
후더운 바람을 불어넣음은
아, 나의 조국!
이 세상 둘도 없는
금수의 강산!

타향살이 지나간 세월에
그 얼마나 버릇되었던고?...
눈에 비치는것
창문너머 보이는것
죄다 남의것만이란 분한 생각

여태껏
눈에 드는
그 모든 애착 없는 이국풍경을
유심히 보지를 아니하고
속으로 원망과 서러움만
지그시 삼키기 일쑤였던
남의 땅에서 살아온 우리

그런데 지금
어린것들 뛰노는 저 앞뜰

아름드리 나무의 긴 그늘도
나의것

물뿌리는 수레 서서히 미끄러가는
저 노을빛 거리도
저 한줄기 검붉은 연기도
저 날아가는 못새들 그림자도 울음도
나의것!
나의것!

그리고
빠스 창문너머로 어제 본
양지바른 언덕의 과일밭이며
붉은 프락포르 달리는 논배미에
방울소리 따라 소 우는 들판도
모두다 나의것
우리의것이여라!

꿈 아닌 오늘 이때 우리는
우리의 집인 이 대극장
노을이 뜬 높다란 대리석마루우에서
선녀처럼 노래부르고
환희의 춤을 추어라

이국의 나지막한 집 세방살이에
오만가지 걱정으로 늘쌍
팔도 마음껏 못퍼던 우리들이
둥둥 북소리도 신이 나게
여기 하늘우의 룡궁을 날으듯이
만복의 춤을 추어라

우리의 주권인양 든든히 선
저 대리석 커다란 집기둥
이 마음속에 안아 쓰다듬어보듯
똥기당 똥땅
가야금줄을 튕기여라
희열의 더운 눈물을 머금고...

(《조국방문시초》중에서)

눈내리는 밤

김형운

1

새학년도 개교를 눈앞에 둔 8월 어느날이었다.

중간지대농촌마을에 자리잡고있는 상평고등학교에서는 초급일군협의회가 있었다. 새학년도 학급담임 임명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에는 학교장과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초급일군들과 각 과목분과장들이 참가했다.

40여개 학급의 담임교원명단초안이 발표되어있는데 3학년 3반 담임교원만은 안을 잡지 못하여 대중토의에 붙이게 되었다.

침묵이 흘렀다. 어찌된 일인지 누구도 선뜻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서로 마주보기만 했다. 계속 되는 침묵...

회의를 주관해야 할 주영신교장은 조바심이 났다. 그는 초조한 눈길로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다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내 생각같아서는 유정선생을 시켰으면 하는데...》

그는 말끝을 맺지 않고 좌중을 휘둘러보았다. 자기가 내놓은 의견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고싶었던 것이다.

주영신의 말은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진것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잠잠하던 방안은 삽시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신임교원에게 오자바람으로 학급담임을 시키자는 의견도 놀라왔지만 3학년 3반과 같은 학급을 맡겨준다는것은 더더욱 생각밖이었던 것이다.

지금 상정되고있는 3학년 3반은 남자학급인데 공부도 잘하고 소년단조직규률도 좋은 학급이다. 처음에는 좀 뒤떨어진 축이었는데 며칠전에 소환되어간 전 담임교원이 그렇게 만들어놓았다. 때문에 새로 임명하려는 담임교원도 전 담임교원만큼 능력이 있고 열성도 높아야 학급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것이다. 사실 3학년 3반 담임문제를 대중토의에 붙이게 된것도 그 책임자를 골라내자는것이였다.

술렁대던 분위기가 가라앉자 누군가 한마디 했다.

《그 선생이야 아직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판례대로 그 선생에게는 한 1년후에 맡겨줍시다.》

그 말은 일부 분과장들의 찬성을 받았다.

《웁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자 술진 눈섭을 미간에 모으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주영신은 의자를 소리나게 뒤로 밀어놓으며 일어섰다. 그는 두팔로 책상모서리를 짚고 머리를 번쩍 들었다. 전등불빛에 번들거리는 안경때문인지 얼굴빛은 전에없이 숙연해보였다.

그는 기침을 한번 켓고나서 연설조로 말을 시작하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학교에 스스로 세워진 <판례>는 경험에만 매달리던 우리들의 낡은 관점에서 생긴것이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서 경험은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사업, 구체적으로 학급담임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임교원을 두고 경험을 운운하기 앞서 명심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즉 오늘의 신임교원들은 우리가 처음 교단에 설 때와는 달리 그들모두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혁명의 후계자를 키워내는 <원장장>인 사범대학에서 주체교육을 받은 새세대들이라는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교육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는 열을 올리느라고 미처 흠칠념을 안하던 이마의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쓱 문댔다. 너부죽한 얼굴은 주기가 오른것처럼 불깃해졌다. 주영신은 말을 끝내고 의자를 끄당겨앉으며 최성도를 흘깃 건너다보았다. 초급당비서인 그가 자기 말을 공감하는지 알고싶었던것이다.

최성도는 알릴락말락하게 머리를 끄덕이고있었다.

주영신은 마음이 놓였다.

사실 그가 한 말은 협의회참가자들에게라기보다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원래 주영신은 신임교원에게 학급을 맡기자면 남 먼저 도리머리를 했다. 이발도 나지 않은 어린애에게 콩밥을 먹이는 격이라는것이였다. 그는 신임교원들은 적어도 1년쯤 그냥 두고 키워주면서 경험도 쌓게 하고 학생들을 다루는 묘리도 터득한 다음에 학급담임을 시켜야 한다고 그럴듯하게 주장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평고등학교에서는 신임교원들이 제외없이 1, 2년 학급을 맡지 않고 수업만 하는 《특혜》를 받아오고있었다. 앞에서 이야기된

판례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그런데 주영신이 이렇듯 새 주장을 내놓게 된 것은 1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3대혁명소조원들과 함께 일하고난 뒤부터였다. 대학을 갓 나온 그들의 불타는 정열과 세련된 사업방법은 주영신으로 하여금 신입교원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관점이 그릇된것임을 깨닫게 하였다.

이후로 주영신은 신입교원이 오면 먼저 학급부터 맡겨주겠다고 단단히 벌려왔었다. 주영신이 이런 생각을 품은 뒤 학교에 첫발을 들여놓은 신입교원이 바로 유정이었던것이다.

유정의 출현은 주영신을 몹시 기쁘게 했다. 그는 주영신이 새걸심을 실현하는데 더없이 적임자였던것이다. 한것은 유정이 사범대학을 갓 나왔을뿐 아니라 주영신과 한전호숙에서 싸운 옛 분대장인 유철수의 딸이었던 까닭이다.

주영신은 유정을 만나자바람으로 유철수가 신입대원이었던 자기를 단련시켜주던것처럼 그렇게 유정을 키우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지금 주영신은 유정에게 숨가쁠수도 있는 3학년 3반 담임을 기어이 시키자고 하는것이기도 하였다.

《어떻습니까. 교장선생님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주영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있던 최성도가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누구에게라 없이 묻는 말이였다.

모두들 머리를 끄덕이였다. 처음에 못미더워하던 몇몇 분과장들도 납득이 되었던 모양인지 어쭙게 웃어보였다.

이튿날 주영신은 전체 교원들이 모인데서 학급담임명단을 정식 발표했다.

《...3학년 3반 유정선생》

《예.》

유정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학급담임의 이름을 인차 부르지 않고 새삼스러운 눈길로 유정을 여겨보는 주영신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소박하면서도 단정한 차림이 마음에 들었던것이다.

머리저둡새부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었다. 지금 처녀들이 흔히 하는것처럼 정수리를 붕긋하게 부풀구지 않고 원가리마를 내어 뽀뽀하게 빗어넘겨서는 아래부분만 약간 굽실굽실하게 만들었는데 곤색치마에 흰 저고리를 받쳐입은 날씬한 몸매에 꼭 어울렸다. 게다가 아직 화장품의 혜택을 입어보지 못한 발기우리한 얼굴빛까지 합치면 교원이라기보다 대학생이라는 인상이 더 강하게 안겨왔다.

그런데 그 인상때문에 지금 유정을 바라보는 일

부 교원들의 얼굴에 못미더워하는 기색이 보일수도 있다고 주영신은 생각했다. 그래서 못미더워한다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 그는 저도모르게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주영신은 유정을 따로 만났다. 처음으로 학급담임을 하는 유정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만한 말을 해주고싶었던것이다.

그는 혼시하듯 말했다.

《배워서 알겠지만 학생들과의 사업은 요구성만 높여도 안되고 사랑만 가지고도 안되는것이요. 량자가 밀착되어야 하오. 식을줄 모르는 정열은 물론 필요한것이고, 남자학급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소. 나는 유정선생이 3학년 3반을 잘 다루리라 믿소.》

유정은 결심이 어린듯한 얼굴빛을 짓고 조용히 듣고있었다.

2

개교한지도 어언 한달이 지나갔다. 그사이 주영신은 유정이 하는 일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왔다. 그는 일주일에 두어번씩 시험을 치면 늘 3학년 3반의 순위부터 알아보았다. 그때마다 주영신은 만족해하였다. 매번 1, 2등이었던것이다.

이 사실은 유정이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해 무척 애쓰고있음을 말해주었다.

주영신은 지금 학교에서 완전히 정상화된 이 시험이 학생들의 능력과 사업열의를 재여보는데도 매우 필요한것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다.

그런데 주영신에게는 이 시험을 두고 생각할 때 불쾌한것이 있었다. 그것은 교원들이 이 시험의 이름을 《벼락시험》이라고 달아놓은것이였다.

...상평고등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주영신은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부쩍 추켜올리려고 무등 애썼다. 그러나 뚜렷한 방도가 나서지 않았다. 련일 안타까이 모대기다가 문득 생각해낸것이 시험을 치자는것이였다.

어느날 아침 주영신은 출근하자바람으로 교원들을 모여놓고 말했다.

《오늘 첫시간에 시험을 치겠습니다. 1학년은 수학, 2학년은 물리, 3학년은...》

그는 5학년까지 시험과목을 죄다 찍어주었다.

교원들은 어리둥절해하였다. 여태껏 시험은 미리 날자와 과목을 알려주고 쳤지 이렇게 야간밤중에 흥두깨처럼 들이닥치지는 않았던것이다.

교원들의 의아한 표정을 읽은 주영신은 비로소 자기의 결심을 말했다.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한주일에 두어번씩 시험을 계속 치자고 합니다. 성적은 학급별로 평점을 내어 순위를 정하고 엄격하게 총화를 짓겠습니다.》

주영신은 단호하게 말끝을 맺었다. 그는 고집스럽게 입을 꼭 다물고 밤새껏 교과서를 뒤적이며 제

손으로 뽑아낸 시험문제를 나누어주었다. 교원들은 시무룩한 얼굴로 시험문제를 받았다.

《허, 이거야말로 <벼락시험>이군.》

누군가 사무실문을 나서며 하는 우스개말이었다. 그 말이 순제 이름이 되고말았던것이다.

주영신은 교원들앞에서 말한대로 시험총화를 날이 서게 했다. 경쟁도표까지 요란스럽게 만들어붙였다.

이렇게 되자 교원학생들은 부쩍 각성되었다. 한번 꼴찌를 한 학급의 담임교원과 학생들은 더욱 그랬다. 교원들은 짬만 있으면 학생들의 학습지도에 달라붙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디서나 책을 놓을줄 몰랐다.

두번째로 시험을 쳐보니 결과는 처음보다 훨씬 좋았다.

주영신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그는 이렇게 되기를 바랐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받아안은 주영신의 가슴에는 요즘 새로운 결심이 소용돌이쳤다.

이제는 학생들의 성적이 군적으로 1등이라는것으로 패제를 부를 때가 아니었다. 적어도 학생들 모두를 최우등생으로 만들어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 길에 나섰다고 말할수 있었다.

주영신은 늦어도 다음 학기까지는 전교학생들을 모두 10점최우등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다졌다. 그러자면 이번 학기에 먼저 한학급을 최우등생 학급으로 만들어 시범을 보이는것이 필요했다.

(어느 학급을 택한다?)

공부를 잘하는 몇개 학급을 두루 머릿속에 더듬던 주영신의 생각은 3학년 3반에 멎었다.

요새 와서 이 학급의 성적은 제자리걸음을 모른다. 이것은 교원의 숨은 노력이 크고 이에 맞추어 학생들의 학습열의 또한 높다는것을 말해준다.

주영신은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는 곧 3학년 3반을 택했다.

그날저녁 주영신은 유정을 만나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유정은 속눈섭을 살며시 내리깔며 선선한 대답을 못했다.

떡먹듯 쉬운 일이 아니기때문일것이다. 더우기 교원생활을 갓 시작한 유정에게는 아름다운 목표가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유정의 열성에 뒤받침하여 전체 교원들이 잘 도와주지만 하면 능히 할수 있는 일이었다.

《힘은 들겠지만 꼭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고 각오를 단단히 다지오.》

주영신은 그루를 박아 말했다.

유정을 보내고난 주영신은 인차 3학년의 과목담임들을 모이게 했다.

주영신의 결심을 알게 된 과목담임들은 3학년 3

반의 학과성적을 높이는데 발벗고 나서겠다고 한사람같이 결의했다.

이후로 학교는 학생들의 학과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부글부글 끓었다.

그속에서 유정은 어느때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매일 수업이 끝나면 학습반과 집집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의 학습을 보살폈다. 저물어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또 수업준비를 했다.

주영신은 그런 유정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건강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가끔 색다른 음식이라도 생기면 안해더러 합숙에 가져가게 하곤했으나 그것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느날 밤이 이숙해서였다. 주영신은 굳어진 버릇대로 퇴근하기에 앞서 교사안을 한바퀴 돌아보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가 발자국소리를 크게 내며 중앙현관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바깥출입문이 스르르 열렸다. 이어 작업복차림의 처녀가 들어섰다. 손에는 빨간 비닐가방을 들고있었다. 급히 달려왔는지 이마에는 땀이 번들거렸다. 처녀쪽에서 먼저 주영신을 알아보고 반색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교장선생님.》

《아니 이게 반장동무가 아니요?!》

밤늦어 찾아온 처녀를 알아본 주영신은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더 컸다.

《저 새로 온 생물선생님 계십니까?》

《이젠 다 퇴근하고 있는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소?》

《그런게 아닙니다. 야 내가 그만 한발 늦었네.》

처녀는 혼자말처럼 되뇌이면서 몹시 서운해하였다.

이윽고 처녀는 가방을 뒤지더니 종이에 쓴 꾸레미를 꺼내는것이였다.

《그럼 교장선생님, 이걸 좀 전해주시시오.》

《?!...》

주영신은 의혹에 찬 눈길로 처녀의 얼굴과 꾸레미만 번갈아 쳐다볼뿐 받을념을 안했다. 무슨 꾸레미인지 알고싶었던것이다.

그제서야 처녀는 죄송한듯 웃으며 꾸레미의 내용을 설명했다.

《참, 이젠 생물선생님이 부탁한 병아리가 생긴답니다.》

얼마전이였습니다. 밤이 꽤 깊었는데 생물선생님이 우리 닭공장에 와서 까기 시작해서 열이레 된 이후의 닭알을 한알씩 달라는것이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병아리가 생기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가르칠 표본을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선생님자신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열열새가 된것까지는 구했는데 나머지는 못구했다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지금이야 알깨우는 철도 아닌데 그걸 구하느라니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는 인차 알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생물선생님과 약속한 날입니다.》

《아, 그랬었구만.》

주영신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유정이가 자기 말은 과목을 착실히 가르치려고 그렇게까지 애쓰는 줄은 미처 몰랐었다. 그런 줄을 이제야 알게 되는 자신이 민망스럽기도 했다.

주영신은 닭알꾸레미를 진귀한 보물이거나 한듯 가슴에 소중히 껴안았다. 그것은 몇알의 닭알이라기보다 유정의 씹는 정력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정체라고 생각되었던 까닭이었다.

처녀가 돌아간 뒤 주영신은 다시 교사안을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가 불을 끈 복도층계를 밟던듬하여 3층에 이르렀을 때였다. 저쪽 끝방에서 불빛이 환히 새어나왔다.

(아직도 누가 안갔나?)

주영신은 불켜진 방으로 부리나케 걸어갔다. 생물실험실이었다.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았다. 누가 있는 모양이었다.

주영신은 문을 벌컥 열었다.

《아이 깜짝이야!》

떨리는 목소리였다. 유정이었다. 주영신은 문안으로 성큼 발을 들여놓으면서 유정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퇴근한 줄 알았는데 늦게까지 남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싶었다.

유정은 손에 해부칼을 쥐고있었다. 흰 위생복 앞섶에는 군데군데 붉은 피가 얼룩져있었다.

모를 일이었다.

사방을 두루 살펴본 뒤 주영신은 파란 비닐보를 씌워놓은 실험대에 눈길이 몇자 머리를 끄덕였다. 래일 수업준비를 하는가보았다.

《이젠 그만하지, 밤도 깊었는데.》

《예, 거의 돼갑니다.》

유정은 다시 일손을 잡으려 했다.

주영신은 이처럼 애쓰는 유정을 보니 얼마나 측은한지 몰랐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혈색이 돌던 얼굴빛은 앓고난 것처럼 해쓱해보였다. 입술에도 까슬까슬 까풀이 일었고 내리뜨린 속눈썹에는 무거운 피곤이 실린듯했다.

주영신은 이제라도 유정을 빨리 쉬우고싶었다. 그러나 유정은 하던 일을 끝내기전에는 자리를 뜨려 하지 않을것이 뻔했다. 도와주는것이 상책일것 같았다.

주영신은 팔소매를 쓱쓱 걷어올렸다.

《아이 손대지 마십시오.》

유정은 급히 말렸다.

《허, 그래두 이런 일이야 내가 낫지 지령이를 보구 질겁하던 유정선생님에 비기겠소.》

《예? ... 참 교장선생님두, 그게 언제적 얘깁니까.》

유정은 금시 귀밑을 붉히며 부끄러운듯 웃었다.

어린시절이 생각나는 모양이었다. 주영신은 그때

일이 어제 같았다.

그것은 주영신이 대학통신생이던 때 있던 일이었다.

등교수업을 받으려 갔던 주영신은 어느날 짬이 생겨 유철수의 집에 갔었다.

그때 다섯살 갓 잡히던 유정은 주영신이 들고간 가방을 뒤흔들면서 알사탕을 내라고 했다. 아직 총각이어서 미처 그런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빈손으로 갔던 주영신은 저으기 당황했다. 애용하던 만년필을 뽑아주면서 후날에 한보자기 사다주마고 얼렸으나 유정은 막무가내로 트집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바빠맞은 주영신은 상점에 가보려고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때 밖에 나갔던 유철수가 급한듯 달려들어오면서 《애, 어서 그쳐. 저기 지령이 온다.》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유정은 울음을 꼭 그치고 겁에 질린 얼굴을 아버지의 가슴에 꼭 파묻었다.

머칠전에 꽃밭에서 꿈틀거리는 지령이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것이었다.

.....

새삼스레 그때 일을 생각해보니 지금 해부칼을 들고 제손으로 토끼가죽을 벗기고있는 유정이가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랐다.

《자, 칼을 이리 주오.》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유정은 고집을 썼다. 주영신은 할수 없이 뒤다리를 잡아주었다.

유정은 날렵한 솜씨로 배를 가르기 시작했다. 짹 짹 칼질소리가 났다. 얇은 배살이 갈라지자 푸릿 푸릿한 빛을 띤 뱀이 드러났다.

주영신은 마치도 수술의사와 같은 유정의 손놀림을 넋없이 바라보기만 하였다. 유정이가 해부칼을 소독하기 시작해서야 주영신은 편득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유정은 주영신앞에 물바게쓰와 비누를 가져다놓았다.

《참, 아까... 그만 들어가가요.》

주영신은 수건으로 손을 문대며 닭공장처녀가 왔다가 이야기를 하려다 말고 이렇게 독촉하였다. 또 시간을 지체할것 같아서였다.

주영신은 유정의 등을 떠밀다싶이 하여 교문을 나갔다.

어느덧 자정도 훨씬 넘었다. 서늘한 새벽기운이 풍겼으나 주영신의 머리는 뻥하였다.

피곤이 밀린탓인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은 노상 흡족했다. 유정이 그토록 애를 쓰니 3학년 3반은 꼭 최우등생학급이 되리라는 믿음이 생긴 까닭이었다.

주영신의 믿음은 공언한것이 아니었다. 실패를 료해해보니 유정이네 학급이 최근 시험들에서는 거의 전원이 10점이었다.

그는 빨리 학기말이 되기를 은근히 기다렸다.

3

1학기가 끝나가고있었다.

어느날 정문겉에 네귀를 건넌 채 들고 서있는 계 시관앞에 학생들이 모여 웅성거리고있었다. 수첩에 무엇인가 써넣는 학생들도 많았다.

학기말시험일정이 나붙었던것이다. 학교적으로 첫시험은 수학이었다. 기다리던 시험이었으나 정작 부닥치고보니 주영신은 마음이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첫시험을 치는 날이었다. 주영신은 시험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린지 얼마 안있어 손목시계만 연신 들여다보았다. 시간은 별스레 곱든것 같았다. 그는 공연히 서성거렸다. 3학년 3반의 시험결과를 알기 전에는 무슨 일이든 손에 잡힐것 같지 않았다.

《따르릉-》

마침내 주영신의 마음을 알아주듯 시험마감을 알리는 종이 길게 울렸다. 주영신은 즉시로 수학교원을 불렀다. 곧 수학교원이 왔다.

《3학년 3반시험지부터 먼저 채점하여 결과를 알려주세요.》

《예.》

수학교원은 방을 나가려 했다. 주영신은 그를 다시 불러세웠다.

《가만, 그럴것없이 내 방에 와서 채점하오.》

《알겠습니다.》

수학교원은 시험지뭉음을 들고 되돌아왔다. 주영신은 그의 손에 빨간 원주필을 쥐여주고 의자를 끄당겨 앉았다. 그리고는 수학교원의 원주필끝을 긴장하게 지켜보다가 점수를 매기고나면 만족스레 머리를 끄덕이였다.

드디어 수학교원이 마지막 시험지를 매겼다.

《됐소!》

주영신은 책상을 탕 내려치며 벌떡 일어났다. 책상우에 놓은 어항에서 물방울이 튀어올라 사업일지를 적었다. 순식간에 깨알같이 박아쓴 글자는 푸른 점으로 돼버렸다. 한가로이 헤엄치던 금붕어는 놀라서 굴꺾질속으로 꼬리를 감추었다. 주영신은 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만큼 기쁨이 컸던것이다.

《유정선생이 수고한 보람이 있구만.》

이렇게 말하는 주영신은 노상 입귀가 벌글썩했다.

그도 그럴만했다. 사실 수학은 험치 않은 과목이었다. 이 과목에는 숨가빠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다. 때문에 이 과목에서 몽땅 10점을 맞으면 나머지 과목은 그닥 문제가 아니였다. 그러므로 3학년 3반의 성적은 주영신의 결심대로 돼가는 셈이었다.

《오늘 시험에서 3학년 3반이 100프로 10점맞은 사실을 빨리 속보에 내야겠소.》

수학교원이 방을 나갈 때 주영신은 이렇게 덧붙

였다.

두번째 시험은 이틀후에 있었다. 주영신의 마음은 첫시험때처럼 초조하거나 긴장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적은 첫시험과 같았다. 세번째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듭되는 시험결과는 주영신의 기분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었는지 몰랐다.

마지막 남은 과목은 생물학이었다. 담임교원인 유정이 가르치는 과목이었다. 주영신이 과목성적도 보나마나라고 생각했다. 유정의 수고를 헤아려볼 때 더욱 그랬다.

그는 생물학시험결과는 알아보지도 않고 학기말 시험성적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교원들은 정성들여 작성한 성적일람표를 보물처럼 꺼안고 회의실로 하나, 둘 모여들었다. 잠시후 주영신이 두툼한 사업일지를 끼고 나타나자 회의가 시작되었다. 1학년 1반, 2반... 담임교원들은 차례로 자기네 학급의 종합된 성적을 보고했다. 목소리들에는 자랑과 긍지가 한껏 어려있었다. 어느 학급이나 레외없이 전 학기보다 성적이 높았던것이다.

주영신은 연방 고개방아를 찼으며 펜을 놀렸다. 그러다가도 이따금 머리를 들고 한쪽 구석에 앉은 유정에게 눈길을 보냈다. 빨리 3학년 3반차례가 되었으면 싶었다. 오늘따라 교원들의 말이 별스레 곱든것 같다. 마음갈아서는 3학년 3반은 이번 학기에 100프로 최우등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싶었다. 그러나 회의절차는 학급담임들의 보고를 먼저 듣게 되어있었다. 기다릴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3학년 차례가 되었다. 1반과 2반교원의 보고가 끝나자 유정은 저고리앞섶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어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다.

《...수학 10점 32명 100프로, 외국어 10점 ,32명 100프로...》

숨소리를 죽이고 듣던 교원들은 유정의 말이 잠시 토막지자 서로 마주보았다. 부딪치는 시선들에는 선망과 찬탄이 어려있었다.

주영신은 만년필을 꺾싸게 놀렸다. 그는 유정이가 아직 부르지 않은 과목들도 《...10점 32명 100프로.》 하고 먼저 적어내려갔다.

유정의 보고에는 아랑곳없이 앞질러 쓰는데만 골똘하던 그는 갑자기 장내가 웅성대는바람에 펜을 멈추었다. 웬일인가 싶어 방안을 둘러보았으나 영문을 알수 없었다.

《왜 그러니까?》

결에 앉은 최성도에게 조용히 물어보았다. 최성도는 머리만 기웃거리더니 한참만에야 대답했다.

《생물학에 8점생이 세명이랍니다.》

《아니, 뭐라구요?!》

주영신은 끄떡 놀랐다. 혹시 잘못 듣지 않았나?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는 묻는 눈길로 유정을 쳐다보았다. 머리를 푹 떨구고 웃고름만 매만지고있었다. 사실인 모양이었다. 맥이 탁 풀렸다.

《허, 참...》

주영신의 마음은 견잡을수 없이 서운했다. 믿음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것이다. 지금까지 실례를 보면 대체로 수학교원이 담임한 학급은 수학적이 우수했고 외국어교원이 담임한 학급학생들은 외국어공부를 잘했다. 그만큼 담임교원은 자기 과목에 힘을 더 넣었다. 그렇다면 3학년 3반의 생물학성적도 다른 과목에 비해 웅당 높아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 되었다.

《무슨 원인이 있는것 같지 않습니까?》

만년필뒤등으로 책상모서리만 줄곧 두드리고있던 최성도가 주영신의 옆구리를 슬쩍 건드리며 말했다.

《특별한 원인이야 뭐 있겠습니까? 내가 잘 도와주지 못한 탓이지요.》

《아니요.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알아보나마납니다.》

주영신의 목소리에는 심한 자책이 어려있었다. 생각해보면 말로만 도와준다고 했지 실제 도와준것이 없었다.

모름지기 유정은 처음 교단에 섰으니 교수방법이 능란하지 못했을것이다. 교수방법이 서투른 교원의 수업은 설득력이 없다. 아무리 열성이 높을지라도 이것은 학생들의 이해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3학년 3반의 생물학시험결과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런데 나는 유정의 교수지도를 잘해주었는가?)

이렇게 자문해보니 말문이 막혔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중심을 놓쳤다. 그러니 오늘같이 아쉽고 가슴아픈 결과를 가져올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깊이 할수록 주영신은 괴롭기만 했다. 몸부림치고싶은것을 교원들앞이어서 강잉히 눌렀다.

회의가 끝나자 교원들은 묵묵히 자리를 떴다. 허공의 한점을 응시하며 굳어진듯 움직일줄 모르던 주영신은 행랭그런 방안에 홀로 남았을 때에야 흠칫하며 일어섰다. 그는 맨 마지막에 방을 나서는 교원을 불러 유정을 자기 방으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교장실로 들어온 주영신은 유정을 기다렸다. 인차 울줄 알았는데 한시간쯤 지나서야 유정은 주영신앞에 나타났다.

《교장선생님, 다음 학기에는 꼭 최우등생학급을 만들겠습니다.》

유정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이런 말부터 꺼내는

것이였다. 주영신은 어정쩡했다. 미처 할말을 찾지 못하고 덩돌한 시선으로 유정을 바라봤다. 너무도 돌발적인 유정의 기분전환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주영신은 아까 회의때 자기사업에서 부족점을 찾은 이상 다음 학기에는 3학년 3반을 기여이 최우등생학급으로 만들겠다고 굳게 속다짐했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유정이가 첫실패에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을가 하는 위구가 지긋게 갈마드는것이였다. 주영신은 그에게 힘과 용기를 되살려주고싶었다. 그래서 유정을 찾았던것이다.

지금 보니 주영신의 위구는 공연한것이였다. 유정은 풀이 죽기는커녕 새벽이슬을 머금은 화초처럼 청신했다.

주영신은 그런 유정을 대하니 수학시험에서 3학년 3반이 몽땅 10점을 맞았을 때처럼 기뻐다.

《반갑소. 꼭 합시다. 이번 학기에 목표는 달성 못했지만 유정선생의 수고는 컸소.》

이렇게 말해놓고보니 긴장한 새 학기사업에 들어가기전에 유정을 푹 쉬우고싶었다. 곧 방학이 시작되니 억지로라도 휴가를 보내면 될것 같았다. 소쩍은 단김에 빼렸다고 주영신은 생각났던김에 아예 결심채택을 하였다. 그는 곧 정색해서 말했다.

《매일 학기말총화가 끝난 다음 휴가를 받도록 하오. 설명절도 돼오는데 집에서는 기다릴게요.》

《아니 저...》

《그렇게 알고 이제 돌아가 준비나 하오.》

주영신은 그가 다른 말을 못하게 밀막아버리고는 돌아서 공연히 서류장을 뒤적이였다.

잠시후 주영신은 빠른 걸음으로 교문을 나서는 유정을 창너머로 바라보고있었다. 유정을 제대로 휴식시키기 못하여 늘 알찌근하던 가슴이 비로소 후련했다.

(가만, 뭘 좀 꾸려보내야지.)

유정의 뒤모습이 사라지자 주영신은 피뚝 이런 생각이 났다. 그도 인차 교문을 나섰다. 발길은 양어장쪽으로 향하고있었다.

4

주영신이 아직도 아가미를 푹떡이는 칠색송어를 들고 집에 들어오니 최성도가 와있었다. 그는 텔레비존을 보는데 정신이 팔려 주인이 들어서서는줄도 몰랐다.

《은지 오래나?》

주영신이 들어서야 최성도는 화면에서 얼굴을 돌렸다.

《좀 되네. 어델 갔댔나?》

《알아맞춰보게.》

《아니, 내가 무슨 점쟁인줄 아나?》

《그것도 알아맞히지 못하면서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수가 용쿠만.》

《차, 이것 봐라, 막 걸구른다.》

그들은 유쾌하게 웃었다. 주영신과 최성도는 10년나마 한학교에서 같은 과목을 전공해왔다. 그사이 둘은 친형제처럼 친숙해졌다. 지금도 교장과 초급당비서라는 관계에 있지만 단둘이 만나면 너나들이로 룡담도 곧잘 하곤했다.

《까다롭게 굴지 말구 영화나 봅세. 재미있네.》

《혼자 보라구, 난 좀 할 일이 있네.》

주영신은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나서 텔레비전 화면에 등을 돌려댔다. 그는 가방을 열고 학기말 사업총화보고서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최성도는 어느새 보고서를 나귀채갔다. 그는 보고서를 책상한쪽에 밀어놓고 주영신의 손목을 우악스럽게 잡아끌었다.

《같이 보자구. 이것도 하나의 일일세.》

《제길, 일 좀 하자 했더니...》

주영신은 기름이 반질반질 흐르는 장판바닥으로 슬슬 끌려오면서 악의없이 중얼거렸다. 그는 못이기는척 하면서 화면에 마주앉았다.

영화는 한 절반쯤 지나간것 같았다. 주영신은 처음보는 영화였다. 전쟁시기의 한 너교원을 주인공으로 한 생활을 취급한것이어서 마음에 들었다.

《새 영화구만. 우리 선생들이 다 보도록 해야겠네.》

주영신은 화면에서 눈길을 돌리지 않고 기분 좋게 말했다.

《뭘, 새 영화라구?... 허허.》

최성도는 어이없다는듯 크게 웃었다.

《교육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이 영화 좀 보는 사람은 아마 많지 못할걸세. 나온지 몇해는 잘되네. 참 기막힌 영화문맹자두 다 있구만.》

최성도의 말에는 룡조가 섞여있었으나 주영신은 화로를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최성도의 말은 백년 옳았다. 화장이 된뒤는 크게 하지도 못하면서 일만 일이라고 생각해보니 정말 영화문맹자가 된것이였다. 주영신은 무안하여 벌거우리해진 목덜미만 괜히 문질러댔다. 그러면서도 영화의 흐름에 인차 끌려들었다.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흘러내리는 안경을 추스르던 주영신은 갑자기 이마를 찡그리며 허를 끝갈랐다. 화면에서는 처녀교원이 미제침략군놈들의 만행으로 부모를 잃은 학생들을 데리고 적후에서 미제놈들과 싸우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벌어지는것이다.

《에잇, 천하에 귀족같은 야만들!》

주영신은 성이 나서 중얼거렸다. 최성도는 그를 슬쩍 결눈질해보며 히죽이 웃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마치 무대배우처럼 각가지 표정을 짓던 주영신의 얼굴에는 마침내 밝은 웃음이 떠올랐다. 너교원은 지칠줄 모르는 투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무사히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긴것이다.

주영신은 제일처럼 기뻐다.

《처녀선생이 수고한 보람이 있구만.》

《음, 우리 유정선생도 저 처녀선생 못지않네.》

《?!...》

최성도가 무엇을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 리해되지 않았다. 의아한 눈으로 최성도를 쳐다보던 주영신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말할수 없어. 유정이네 학급이 이번에 몽땅 최우등을 했더라면 그렇게 말할수 있지. 오히려 다탈다고 할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더듬노라니 다음 학기에는 기어이 3학년 3반을 최우등생학급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새삼스럽게 굳어지는것이였다.

그는 생각난김에 자기의 결심을 최성도에게 말했다.

《...유정선생이 사실은 먼저 결의했네.》

《좋네, 이번엔 잘 짜구들여 꼭 성공합세.》

《그리구 참 이번 방학기간엔 휴가를 보낸 생각인데 어땠가?》

《좋은 생각일세. 그런데 말을 듣겠는지.》

《혹시 8점생들을 개별지도하겠다고 할수 있지. 그건 넘려말게, 내가 하려네.》

주영신은 유정을 휴가보내려 하면서 미리 이런 생각을 해두었다. 그래야 학생들의 성적도 추켜세울것이요 휴가를 가는 사람도 마음을 놓을것이다.

주영신은 자기의 생각을 최성도가 두말없이 찬성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주영신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최성도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는것이 아닌가.

주영신은 심사가 편안치 않았다. 그가 왜 웃는지는 알수 없었으나 자기는 심사숙고해서 한 말인데 웃음으로 받아넘기니 속이 뒤들었다. 주영신은 미간을 찌프리며 언짢은 투로 말했다.

《웃긴, 내가 개별지도를 하면 못쓰나?》

비로소 최성도는 웃음을 그쳤다. 했으나 어깨는 여전히 오르내렸다. 속으로는 웃고있는 모양이였다.

이윽고 최성도는 능청스럽게 눈을 꺾으며 말했다.

《<뭘는놈우에 나는 놈이 있다.> 는 말을 들어봤지?》

《뭘, 그럼?...》

주영신은 말끝을 얼버무리며 생각해보았다. 그가 웃는 까닭이 어렴풋이 짐작되였다.

아까 주영신은 교문을 부지런히 나서는 유정을 보았으니 지금쯤은 트렁크에 옷가지들을 챙겨넣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새 학교에 다시 들어가 개별지도를 시작한 모양이다. 그럴줄 알았더라면 개별지도는 격정말라고 미리 말했었을걸 그랬다. 할수 없다. 이제라도 대신하고 휴가준비를 하게 해야지.

주영신은 슬며시 일어나며 민망스러운 생각이 들어 최성도에게 한마디 했다.

《자네 정말 썬평 좋구만, 왜 그런 말을 이제야 하나?》

《헛걸음이네. 학교엔 가봐야 없어.》

주영신의 숙내를 환히 꿰뚫어본 최성도는 앉은채로 늘어지게 말했다.

주영신은 엉거주춤해있었다. 과외학습반이나 학생들의 집에 간 모양이다. 그렇다면 난처했다. 개별 지도를 해야했는데 학습반장소도 모른다. 유정이가 찾아간 학생네 집도 모른다. 그는 망설였다.

그때 최성도가 히물거리던 웃음을 싹 거두고 정색하여 말하는 것이었다.

《유정선생은 지금 닭공장에 가있소.》

《아니 닭공장에 가있다니?》

주영신은 의아하여 반문하였다. 아까 최성도가 한 말 같아서는 유정이가 벌써 개별 지도를 시작했다는 신호가 틀림없었는데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는 덩돌한 눈길로 최성도의 얼굴만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럴 일이 있소. 내 오늘 굉장한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유정선생도 그 논문때문에 닭공장에 갔소.》

《도대체 무슨 논문이요?》

주영신은 호기심이 부쩍 동해서 다그쳐 물었다.

최성도가 《핑장》하다고 하는 논문, 유정을 닭공장으로 이끌어간 논문, 그러니 주영신에게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성공만 하면 닭알은 뒤짚어쓰고도 남겠더군, 글썽 닭 한마리가 하루에 알을 두 번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소.》

《그게 논문내용인가?... 원, 귀구멍 두 넓다. 아니 그 <논문>에 소가 다섯달만에 다 된 새끼를 낳게 할 수는 없단가?》

주영신은 빈정대듯 말했다. 무슨 귀맛이 도는 소린가 했는데 듣고보니 가을뽕구기 울음소리 같았다. 그 소릴 골이 듣고 굉장하니 뭐니 하는 최성도가 어처구니 없었다. 유정은 말할 것도 없고 주영신이 빈정대자 최성도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것이었다.

《얼핏 듣기에는 허황한 것 같지만 내용에는 과학적인데가 있소. 들어보오. 닭우리에 조명장치를 해놓고 밤 열두시쯤에 날이 밝는 것처럼 천천히 불을 켜단 말이요. 그 다음엔 하루분의 사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먹이요. 어쨌소. 알을 낳을 수 있겠지? 이건 조건반사의 원리를 리용한 <발견>이요. 유정선생의 말에 의하면 리론상으로는 가능한데 닭의 영양상태가 고려되고 채 생기기 못한 물알도 낳을 수 있다는 거요. 논문은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서는 해답을 못했소.》

주영신은 비로소 머리를 주억거렸다. 납득이 되었던 것이다.

최성도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주를 달았다.

《그 논문의 필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크게 유감스럽지는 않소.》

《학생?》

주영신은 외마디로 반문하며 눈을 홑떴다. 어느 전문기관일군들이 쓴 논문이겠거니 생각했는데 학생이라니 괜찮다.

필경 중학교때 공부를 착실하게 한 학생이겠지. 대학에 간 우리 학교졸업생들도 그런 논문을 쓸 수 있을가.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처럼만 공부하면 앞으로 대학에 가서 그쯤한 것도 다 쓸 수 있겠지. 주영신은 제탄에 자신이 생기는 것이었다.

《어디 논문을 좀 보겠소?》

최성도는 시물시물 웃으며 말했다. 그는 주영신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외투주머니를 한참 부시럭대더니

《자, 여기 있소.》

하고 네겹으로 접은 종이를 꺼냈다. 그것을 열면 받아 펼쳐본 주영신은 다시 최성도앞으로 밀어놓았다.

《이건 아니구만.》

3학년 3반 리영식학생의 생물시험지였다. 리영식이란 내내 최우등을 하다가 이번에 생물과목에서 8점을 맞은 세명가운데 속하는 학생이다.

주영신은 서운한 기분을 되살려주는 그 시험지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다.

최성도가 그것을 논문이라고 주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그는 최성도가 진짜 논문을 꺼내기 바랐다.

그런데 최성도는 시험지를 주영신의 손에 꼭 쥐여 주며

《이것부터 먼저 보오.》

하고 갑자기 꼭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그것은 주영신으로 하여금 시험지를 꼭 봐야겠다는 그 무슨 의무감같은 것을 느끼게 했다.

주영신은 시험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10표였다. 첫째문제와 둘째문제에 대한 해답은 원만했다. 셋째문제를 보던 주영신의 눈은 대번에 휘둥그레졌다.

《조건반사와 그의 리용에 대하여》라는 문제였는데 바로 최성도가 말하던 그 《논문》이었다.

주영신은 무릎을 탁 쳤다. 중학교3학년생의 발견치고는 너무도 기특했다.

주영신은 《논문》의 필자가 틀림없이 대학졸업반 학생쯤은 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바로 자기네 학교, 그것도 다름 아닌 유정이네 반 학생이 아닌가! 주영신은 그것이 더없이 기뻐다. 막 가슴이 뻘뻘해왔다.

그러나 다음 순간 머리속에는 알 수 없는 의혹이 회오리바람처럼 일어났다.

흠할나위 없는 시험지에 8점을 준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풀리지 않았다.

《10점은 되고도 남겠는데》

주영신은 혼자말처럼 중얼대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러자 기다리고있었던듯 최성도가 제격 말을 받았다.

《제일 마지막대목을 다시 읽어보오.》

《마지막대목?》

주영신은 시험지마감부분을 다시 읽어보았다.

학생은 이렇게 썼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될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만했지 실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해본것은 큰 문제가 아니요.》

주영신은 맞갖잖은 논매로 애꿎은 최성도를 흘겨보았다.

생물학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영신은 그것때문에 8점을 준것이 자못 불만스러웠던 것이다.

그는 최성도가 마치 논문심사자이거나 한듯 학생의 《논문》을 《변론》하기 시작했다.

《맑은 빛을 받으면 뇌하수체에서 생식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오. 이것이 조건반사현상이지요. 물론 이 학생이 그 과정을 리론적으로는 잘 모를수도 있소. 그러나 제머리로 깊이있는 문제를 찾아냈소. 얼마나 기특하오. 여느 학생들 같으면 조건반사의 리용이라면 기껏해야 목장에서 종을 두드려 짐승들을 모이게 할수 있다고 할게요.》

《옳은 말이요. 그런데 교장선생이나 내가 큰 문제로 보지 않은 <못해보았다>는것을 유정선생은 큰 문제로 보았소. 실천으로 검증되지 못한 <리론>이기때문이라는것이요. 유정선생은 그 학생이 실천해보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만 밝혀놓았어도 기꺼이 10점을 줄수 있었다는거요. 말하자면 산 지식이라야 10점이라는것이요.》

《음, 산지식. 10점.》

주영신은 되뇌이거니만 할뿐 다른 말을 못했다.

10점에 대한 유정의 요구는 너무도 자기의 상상을 초월했던 것이다.

최성도는 말을 계속 했다.

《나는 그것을 현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채점법이라고 생각하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리론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라고 가르치시었소. 때문에 우리는 리론과 실천을 10점의 척도우에 나란히 올려놓아야 할것이요. 그래야 시대의 요구에 맞는 10점이 아니겠소?》

말없이 머리만 끄덕이는 주영신은 생각이 많아졌다.

10점에 대한 유정의 견해는 주영신이 툴아오르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사상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그 관철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교육자만이 도달할수 있는 정신적높이였다.

주영신은 시대에 뒤떨어지고있는 자신을 비로소 발견했다.

리영식학생의 시험지만 놓고 보아도 문제로 된 생물학에서 8점을 맞은 나머지 학생들은 물론 3학년 3반학생들은 자기가 바라던 최우등생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가. 명예에만 매혹된 나머지 현실을 통감하는 감각이 녹슨 칼날처럼 무디어졌다.

《벼락시험》이라는 대명사가 생겨나도록 시험을 무시로 많이 쳤으나 1등 10점, 그것이면 만족이었다. 언제 한번 저 최성도처럼 시험지를 뒤져가며 성적이 높아졌거나 낮아진 원인을 알아본적이 있었던가? 생각할수록 무딘 칼끝으로 가슴을 허벼내는듯했다.

《흥, 그래가지구두 뭐 남을 도와준다구?》

가소로왔다. 저절로 얼굴이 화끈했다.

담배생각이 나서 주머니를 뒤지니 빈각지뿐이었다.

《여기 있네.》

최성도는 주영신앞으로 담배팩을 밀어놓고는 그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으려는듯 다시 텔레비존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화면에서는 바이올린독주가 한창이었다. 《빨찌산의 노래》의 힘찬 선율이 방안에 차고넘쳤다. 젊은 독주가는 활을 힘있게 그으며 현을 짚은 손을 파르르 떤다.

여느때같으면 손장단이라도 치면서 흥얼거릴 주영신이다. 하나 지금은 실오리처럼 가느다란 연기를 피워올리는 담배대를 손가락짚에 끼운채 돌미륵 마냥 앉아있었다.

이윽하여 최성도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유정선생은 닭공장 1호닭우리에서 학생들과 같이 그 <논문>을 실험할 준비를 하고있소. 오늘밤부터 며칠동안 실험해보기로 기사장동무와 토론했으니까.》

그런데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은 아니요. 유정선생이 말하는데 학생은 물론 제머리로 생각해낸 것이지만 이 문제는 이미 일부 전문가들속에서 논의가 있었고 또 일정하게 시도도 해왔다는것이요.》

《뭐?!...》

주영신은 놀랐다. 그는 꼭 리영식학생의 첫 발견으로 알았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라. 중학생이 그런 훌륭한 착안을 했는데야!

《그렇다면 실패를 전제로 하는 실험이겠구만?》

《바로 그렇소.》

《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을 알면서도 실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산 지식을 주자는 것이구만!》

주영신은 마른침을 꿀꺽 삼키며 입술을 감빤았다.

크나큰 감동의 파문이 가슴속에 세차게 일었다. 바로 유정이처럼 학생들속에서 자라나는 자그마한 긍정적인 싹도 제때에 찾아내여 키워주고 그것을 실물교육을 위한 계기로 전환시키는것, 이것이야말로 현시대 교육자의 올바른 립장과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귀밑머리에 서리가 내리도록 교단에서있는 자신은 어찌하여 그런 립장과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있는것인가?

주영신은 유정이라는 인간에 대한 리해가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가슴 저미는듯했다.

이윽고 그는 채 타지 않은 담배를 비벼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옷걸이에서 외투를 벗겨들며 얼핏 창밖을 내다보았다. 환한 불빛이 쏟아지는 창밖에는 방안의 공기를 뒤흔드는 《빨찌산의 노래》의 정황을 펼쳐보이듯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가려나?》

주영신의 마음속 움직임을 미리 짐작하고있었던 최성도의 말이였다.

《배우겠네.》

《가게.》

최성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자기도 서둘러 일어섰다.

《같이 가세.》

《아니 자넨 거기서 오는길이 아닌가?》

《영철이네 학교에서 오늘 학부형회의를 한다더군.》

《?!...》

안경테에 가리웠던 주영신의 눈썹이 꿈틀 위로 치켜올라갔다.

영철이는 주영신의 막내아들이다. 어제 저녁에 성적증을 내주니 아버지를 데려오란다는 말을 했었다. 주영신은 들을 때뿐이었지 여태까지 까맣게 잊고있었다.

그런데 지금 최성도가 자기를 대신해서 학부형회의에 가겠다는것이다.

주영신은 무슨 말인가 하고싶었으나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 아무말도 못했다.

《닭공장에 가야만 하는 자네의 심정을 안다면 담임선생도 내가 대신 왔다고 탓하지는 않을걸세. 우리 다음부터는 갈수 있도록 일을 잘합세.》

문을 나서면서 최성도가 하는 말은 주영신의 가슴속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눈은 세차게 쏟아졌다. 마치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채로 무슨 떡가루같은것을 썰없이 쳐내리는가싶다. 훑날리는 눈송이는 하늘과 땅사이의 무한대한 공간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어 주영신의 목덜미속까지 기여들어 축축히 녹아버린다. 가끔 안경알우에도 내려앉아 심술궂게 앞을 가리웠다. 그때마다 주영신은 휘청거리는 걸음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안경알을 닦아내곤하였다.

최성도와 갈라져 닭공장으로 뻗은 언덕길을 걷는 주영신의 마음은 별스레 적적했다. 밤새소리라도 들렸으면 좋으련만 눈에 쫓긴 탓인지 기척없다. 이따금 나무가지가 휘여지게 쌓였던 눈더미가 흰눈을 이불삼아 푸근히 뒤집어쓰고 깊은 잠에 든듯했다.

언덕길은 오르기 쉽지 않았다. 썰없이 내리는 눈은 길게 드리운 어둠의 도움을 받아 주영신의 걸음을 걸질기게 방해했다. 그는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정강이를 스치는 눈속을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더듬어나갔다. 때로는 미끄러져 비칠거렸다. 가까스로 닭공장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우에 올라선 주영신은 안도의 숨을 후하고 내쉬었다.

뽕안 눈발속을 뚫고 반짝이는 한점의 불빛이 눈앞에 환히 안겨왔던것이다. 그것은 1호탑우리에서 비치는 불빛이였다. 그 불빛은 가까이 다가오는듯싶다가는 다시 물러났다. 마치 주영신을 어서오라 손짓하는것 같았다.

주영신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발길을 내짚었다. 그는 비칠거리지도 않고 곧바로 힘있게 걸어갔다.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불빛이 훑날리는 눈발과 어둠을 밀어내며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었던것이다.

행복이 깃든 수도의 거리에서

석인해

창마다 행복이 깃들어 밝고 명랑한 거리를 걸으려면 가슴속으로 차분히 스며드는 감격이 있다.

평양은 우리 혁명의 발원지이며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수도이며 영웅조선의 얼굴이라는 자랑이다.

지난번 공화국창건 30돐을 맞던 때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국경절을 축하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것처럼 보고싶어하던 평양으로 찾아왔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거창한 업적에 대한 강한 충격과 깊은 인상을 가슴깊이 아로새기게 된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실로 오늘의 평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기간 조선혁명수행에서 쌓아올린 빛나는 업적과 그의 세계사적의의로 하여 조선혁명의 심장으로서뿐아니라 다함없는 흥분과 경탄속에서 우러러보는 국제적혁명도시로 동방의 일각에 거연히 솟아있다.

한없는 궁지와 자부심으로 사랑스러운 도시를 볼때면 우리는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셔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뚫어넘치는 감사와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으로 우러러보게 된다. 평양에서 이루어진 모든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들은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에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조국의 강토와 부원을 잘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며 아름다운 조국땅우에 인민의 락원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웅대한 리상과 굳은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기어이 우리 인민의 이 절절한 세기적인 념원을 풀어주시었고 나라의 얼굴인 혁명의 수도 평양의 모습을 오늘처럼 활짝 꽃피워 주신것이다.

우리는 왜 이 도시를 이처럼 알뜰히 꾸리고 위하하며 사랑하는가.

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평양은 우리 혁명의 발원지일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당중앙위원회가 자리잡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는것이다.

또한 평양에는 우리 겨레의 유구한 력사가 깃든 유물과 유적이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평양은 도시로서 발전하기 시작한 이후에만도 1,500여년의 긴 력사를 가진다. 물론 이 력사는 과란이 중첩한 시련의 행정이기도 하였다.

예로부터 슬기롭고 용감한 평양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향토를 지켜내는 싸움에서 항상 앞장서 빛나는 위훈을 펼쳤으며 봉건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도 견결하고 과감했었다.

특히 평양의 반침략투쟁력사를 더듬을 때 열렬한 애국투사이신 김웅우선생님의 지휘밑에 미제침략자들의 해적선 《사만호》를 불태워 대동강물에 수장시킨 장쾌한 싸움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일제통치를 반대하는 항쟁의 길에서도 의로운 평양청년들은 피도 많이 흘렸고 원수들의 야수적인 억압착취에 맞서 온갖 투쟁을 즐기차게 벌였다.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이 도시는 문화적으로도 빛나는 자취를 남겨놓았다.

고구려시기의 유적들인 안학궁터, 대성산과 장안성터, 청암리토성, 고려, 리조 시기의 수많은 《정자》, 《루대》들은 모두 우리 인민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슬기를 전해주는 유산으로 남아있다.

옛사람들은 자연지리적으로 절묘한 평양의 경치를 레찬하여 《을밀대의 봄구경》 《부벽루의 달맞이》를 비롯한 8경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유서깊은 평양이건만 이 도시는 오래 내려오면서 병란으로 말미암아 하많은 손상을 받아야 했다. 더구나 지난 조국해방전쟁때는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말그대로 폐허로 되고말았던것이다.

그러한 빈터전에 혁명의 수도- 평양을 일떠세워야 했다. 그것도 세계에 으뜸가는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살기좋은 현대적인 대도시로 꾸려야 했다.

다 아는대로 옛날사람들이 자랑하던 《평양개명》이란 고작 《성안거리》(지금의 중구역중심)였다. 평양성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 이름부터 투박스러워 모래터니, 고노골이니, 토성랑, 뽕배거리, 대타령... 등 잘해야 피, 수수 같은 잡곡이나 심을수 있는 진펄이 아니면 불모지였고 동평양일대는 우거진 수풀이어서 《동림》이라 했고 지금의 변화한 거리 《물곡동》은 밤나무판인 골짜기 《물곡》이었다.

그런 거칠은 땅에 게딱지같은 오막살이들이 들성 들성 끼였었고 대동문에서 굽어보는 대동강가에 대동문선창, 룡로문선창, 동필우선창... 이니 하는 작은 선박이 드나드는 초라한 포구들이 늘어있었고 그런곳에 독장사, 나무장수, 음식을 파는 구멍가게 따위가 줄지어있었을뿐이었다.

그런것마저 미제의 야만적폭격에 다 망가져 뒤죽박죽이 된 황량한 땅위에 평양을 건설해야 했었고 끝내는 오늘과 같은 웅장하고도 화려한 사회주의조국의 수도로, 당당한 국제적대도시로 장성발전시킨 것이다.

이 거창한 복구건설사업은 오로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명하신 령도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었다. 국토를 통일적이며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함은 곧 국토를 정리하며 미화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이기도 하여서 이는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후손만대에 물려줄 나라의 백년대계인 영광스러운 사업이며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문명하고 부강하게 하며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 빨리 건설하며 더 좋고 아름답게 꾸리는 일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수도 평양의 기본건설과 함께 원림화사업을 개선강화하며 공원 및 유원지들을 보다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구체적인 교시를 주시고 깊은 배려를 돌려주심으로써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웅장하고도 화려하게 성장을 한 도시로 일떠세워주셨다.

문화혁명을 하는데서 원림사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애국주의는 나무를 사랑하는것으로도 표현되며 애림사상은 곧 공산주의교양의 한 고리임을 깨달은 우리 근로자들은 그런 사상으로 나무를 심었다.

우선 공원, 유원지들에 수양버들, 황철나무, 평양단풍, 플라타너스와 15~20년이상 지란 큰 소나무, 은행나무 등 갖가지 나무를 심었고 변두리인 쑥섬, 돌박산, 서포뒤산 등지에도 심었고 잔디밭도 조성하였다.

집뒤편이나 문화휴식터들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맺는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양벚나무며 향기그윽한 정향, 개나리, 병꽃나무, 조팝나무, 철쭉나무, 진달래, 해당화...를 심었으며 화초원에는 함박꽃, 국화... 가지각색의 꽃나무들을 심었다. 모란봉, 룡라도, 보통강, 양각도, 대성산 등 유원지들에 풍치림을 조성했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심어도 근로자들의 교양과 철저히 결부시켰으며 문화유 시설들도 그런 원칙에서 건설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선인민의 고향인 만경대는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정성들여 옮겨놓은 수백가지의 나무와 꽃으로 짝 들어차서 계절따라 오색령롱한 꽃구름이 피어오른다.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는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혁명의 빛을 누리며 뿌리는 불멸의 심장으로 언제나 빛

난다.

교외로 벗어나보면 아미산, 철봉산, 주암산, 룡악산은 울창하게 조림이 되어 풍치좋은 자연공원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있다. 평양은 동서남북 어디서 보나 청춘도시로 온통 푸르청청한 빛갈속에 잠겨있다.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축조물들인 조선혁명박물관, 대극장, 인민문화궁전, 체육관...등 산악같은 건물들도 원림화된 도시의 중심에 자리잡고있기에 그 모습은 더욱 빛을 뿌리는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대성산과의 거리감을 급격히 단축한데서 수도 평양은 한층 웅심깊고 장중한 위용을 드러내는것이다.

그전에는 대성산이라면 도시중심에서 수십리밖에 위치하는 아득한 먼 거리의 산으로만 여겨져서 자연히 사람의 발자취조차 드물었던곳이다.

그러하던 대성산둘레안으로 큰 규모의 유원지가 꾸려진것이다. 골짜기와 분지들을 따라 건설된 연연 40여리의 룡환도로가 뻗었는데 산의 중심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렬사릉이 있고 산봉우리마다에 정각이 섰으며 옛날 고구려때의 문화유적유물들이 복구정비되었을뿐아니라 가는곳마다에 봉사시설이 갖추어져있어 이 유원지는 문화휴식터이면서도 혁명전통과 애국주의교양의 장소로 되고있다.

게다가 구룡지대에 펼쳐진 넓은 부지의 식물원과 동물원은 그 규모에 있어 세계적이다. 또한 미천호와 동천호를 위시한 수십개의 연못이 널려있으며 엄청나게 큰 문화유회시설이 갖추어진 대성산의 유원지는 그저 평장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것 같다.

지난날 평양을 절승경개라고 일러왔음은 천연적으로 지형이 하도 기묘하고 물이 맑음을 이름이었지 원림화란 의미에서는 맹랑하기 짝이 없던것이였다. 고작 대동강가의 수양버들, 모란봉의 술, 청류벽 같은 벼랑밖에 무엇이 있었던가, 그나마 자연적으로 이루어진것이였다. 사대사상이 골수에 배인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있지도 않은 기자묘따위나 만들면 만들었지 백성들을 위한 일이란 아무것도 한것이 없었다.

그런 평양에다 오늘의 이 도시를 비긴다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겠다.

이 도시를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외국 손님들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 현대적도시미의 극치를 이루고 철저히 원림화된 이 도시의 전경에서부터 깊은 인상을 받는것이다. 한 외국 기자는 평양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도시속에 공원이 있는것이 아니라 공원속에 도시가 있다고 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의 참뜻을 미처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옛날의 평양을 못본 사람은 오늘의 진가를 다는 모르며 불행에 물어보지 못한 사람은 행복의 의미를 모른다. 세상에 행복이 있다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의식주에 걱정을 모르고 《공원속의 도시》에서 사는 행복보다 더함이 있을것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이 도시를 사랑한다.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천리마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근로자들의 림름한 기상을 상징하는 천리마동상을 바

라보며 우리는 로동당시대의 번영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가슴에 되새기면서 행복에 겨워 사랑하는 이 도시를 노래부르기도 한다.

천리마 나래치는 강산에 꽃피는 우리 평양
김일성 원수님이 계시는 자랑찬 조선의 심장
 평양 평양 번영하라 나의 수도여
 위대한 수령님 모신 이 영광 끝이 없어라

실화문학

고원의 꽃

위동훈

평균높이 1,400미터, 매우 찬 대륙성기후, 몹시 길고 추운 겨울과 그대신 짧은 여름, 짙은 안개와 세찬 바람, 아름다운 부채꽃- 이것이 내가 책을 통하여 알게 된 부전고원에 대한 상식의 전부였다.

여기에 상식을 조금만 더 보탠다면 협궤철도의 자그마한 역에서 방금 얻어들은것들로서 《하늘웃 동네》, 《하늘아래 첫 당반》이라는 말마디들이었다.

협궤철도를 따라 부전령 바로 아래락, 인클라인이 시작되는곳에 이르러 그것도 상식이라면 상식이랄지 옛날의 일화를 얻어들었는데 꽃꽃이 올리선 인클라인길을 따라 차칸이 버쩍 쳐들릴 때 나들이 갔던 머느리가 열결에 무엇을 잡는다는것이 시아버지의 바지를 벗겼다는 우스운 이야기였다.

내결에 앉은 로인이 그 이야기를 그럴듯이 했는데 듣는 사람들모두가 《참 그뻘 그랬습니다.》하고 공감을 했다.

처음 부전땅에 찾아오는 손님인듯한 어떤 젊은 여인은 로인의 말을 듣는중에도 벌써부터 손더듬을 하며 질것을 찾는것이였다.

《하, 지금 세월에야 옷도 좋은 옷이겠다 겹겹이 입은우에 허리띠도 든든한것을 땀으니 어디 그런 실수가 있을법이나 하겠소. 옛날에사 토스레잠방이 한벌을 대송 걸치고 신사랍시구 일렁일렁 돌아다녔으니 그린 망신을 할밖에...》

《로인님 결론이 멋제이요, 계급교양을 다 하구.》

못들은체 조용히 앉아있던 살집좋은 할머니가 한마디 끼여들자 좁은 차칸에 웃음이 한가득 들어찬다.

《내 이 차를 탈 때마다 계급교양하오다. 시제 젊은이들이 부대기농사하던 부전땅을 알기나 하겠게 말유.》

부전땅에 첫발을 들여놓게 되는 나에게 있어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생소한것들이자 흥미있

는것이요, 부전땅에 대한 인식을 하나하나 더해주는 취재자료들이기도 했다. 높은 령이 가로놓이고 험한 산발들로 둘러막혀 외진 고장으로 불리우는 부전땅이지만 3대혁명의 불길속에 여기서도 놀라운 기적과 변혁이 일어났을것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생활이 있는곳에 투쟁이 있고 투쟁이 있는곳에 빛나는 위훈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깃들기 마련이다. 나는 이 투쟁의 중심에 서있는 부전령사람들을 어서 만나보고싶었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산천풍치를 놓치지 않느라 이곳 사람들의 생활이야기를 새겨듣느라 나는 여념이 없었다.

이때 누군가 내 어깨를 가볍게 치며

《허허... 불려두 모르누만.》하는것이였다.

문득 고개를 돌리니 내옆에 낯익은 사람이 서있었다. 미술가였다. 바로 한 역앞에서 댔던것이다.

《아니 전동무가 아니요!》

먼 려행길에서 친구를 만난 기쁨에 나는 웨치듯이 말했다.

《부전고원의 겨울경치가 탐나서 떠났네.》

《언젠 여름경치가 탐난다더니?》

《그야 물론이지.》

말동무가 생겨 나는 먼 려행의 피로를 잊은채 이야기에 정신을 팔게 되였다. 주로 미술가인 전동무가 말하고 나는 들었다. 물론 인클라인길에서 있는 이야기였다.

한 차칸의 사람들이 어느새 그의 이야기에 끌려들어 숨도 크게 쉬지 않는것이였다. 이제껏 별려오던 생활잡사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이따금

《탁탁》 장작이 타며 난로를 울리는 소리가 차칸의 조용한 분위기를 돋굴뿐이었다.

《지난 여름 내가 부전고원의 풍경화를 완성하려고 찾아왔던 때에 있던 일이네. 부전고원의 자랑인 부채꽃명승지를 꼭 그림에 넣고 싶어 부채꽃이 한창 피는 8월중순에 떠났네.》

미술가 전동무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 ×

여름날씨는 몹시 무더웠다. 령우에 장마가 끝나지 않으면 흔히 있게 되는 이곳 기후현상이었다.

비좁은 두줄기 궤도를 따라 습차게 기여오르던 협궤차는 부전령밑의 송흥역에서 멈춰섰다. 여기서부터 《뽕뽕이차》를 떼고 인클라인을 탈게 되는 것이다.

차가 멈춰서자 어떤 청년들은 먼저 령우에 올라가려고 앞차칸으로 날래게 옮겨탔다. 인클라인이 차칸을 하나씩 물어올리게 되니 먼저 올라가면 이모저모 좋은 점이 많을것이였다.

협궤철도의 시발역에서부터 이곳까지 오도록 말 한마디 없이 얄전하게 앉아있던 호리호리한 키에 얼굴이 가름한 처녀가 청년들의 뒤를 따라 바삐 내려서는 앞칸으로 비비고 올랐다.

《얄전한줄 알았더니 그 체네 세차기두 하다.》

차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있던 한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찬다.

미술가는 이런 장면도 아마 산골사람들의 생활의 한토막이라 생각하며 이미 머리속에, 아니 예민한 망막속에 새겨두고있었다.

젊은 다혈질의 한 인민군 군관이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띠우고 앞차칸을 건너다보는데 자기도 뛰어 내려 옮겨탈지 말지 동요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먼저 올라가면 뒤차가 올 때까지 시간이 많겠는데 아름다운 풍경을 꼭 살펴보는 맛도 괜찮겠지!)

미술가는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덤벼치며 짐대우에서 화판을 내리웠다. 그런데 아쉽게도 《손님여러분, 차에서 다 내려주십시오. 오늘은 인클라인 수리관계로 열차를 운행하지 못합니다.》 하는 열차원의 쾅쾅한 목소리가 울렸다.

앞차에 올랐던 청년들이 투덜대며 내리자 뒤따라 몇몇 쩡그린 얼굴들이 보였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게 된것을 그닥 나무라지 않는 웃음어린 얼굴이 태반이였다.

미술가도 아쉬운대로 내렸다. 그는 흰 브라우스에 하르르한 머리수건을 날리며 령마루를 쳐다보고 있는 몸매 날씬한 처녀를 문득 바라보았다. 세차다는 처녀였다. 처녀는 그리 크지 않은 가방을 들고있는데 한쪽어깨가 아래로 축 처져있었다. 은회색구름을 떠처럼 둘러감은 높은 봉우리며 령중턱을 노을빛으로 물들인 단풍에 홀려 미술가는 자리를 인

차 뜰수 없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밀려나간다. 마지막으로 혈색 좋은 중위가 느릿느릿 걸어오는데 그 역시 차연에 홀린듯 우뚝 서서 령쪽에 눈길을 보냈다.

《저 사람은 래일모레가 잔치날이라면서 태평스레 러관으루 가나?》

《오늘이 잔치날이라두 난 령을 걸어넘진 못하겠수다.》

《아니, 제대군인이 그만한 용기두 없다구야.》

《허 참, 이 아주머니 누구 망신하는 꼴 못봐서 그러우.》

《호호호... 잔치날 상우에 주저앉을가봐 저레 격정이구마.》

개찰구쪽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말소리였다.

역구내에 못박힌듯 선채 누구를 기다리는 모양밖으로 나가는 손님들을 일일이 살펴보던 처녀는 차칸이 텅 비게 되자 가벼운 한숨을 호- 내쉬었다. 처녀는 은회색구름을 모자처럼 쓰고있는 령마루를 자주 쳐다보았다. 무슨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였다. (의사일가?... 혹 무슨 좋은 일을 앞에 둔 처녀일가?)

령길의 회귀한 단풍과도 같이 은근히 눈길을 끄는데가 있는 처녀였다. 미술가의 관찰은 호기심과 어울려 인차 그 자리를 뜨게 하지 않았다.

부전령의 아름다운 경치에 홀려있던 군관이 그저 눈으로 보고있을수만 없었던지 처녀에게 말을 걸었다.

《동무두 이고장이 처음입니까?》

《아니 ... 아니예요.》

처녀가 살그머니 머리를 돌리자 물기가 차분히 어린듯한 리지적으로 빛나는 큰 눈이 반짝 빛나는 것과 함께 자그마한 입술에 감춰져있던 흰 이가 빠르게 드러났다.

《경치가 좋구만요. 아무리 봐도 싫어질것 같지 않습니다. 이말은 여름인데 저 중턱은 초가을빛입니다. 그리고 그 옷keen 벌써 완전한 가을풍경이구만요. 단풍이 참 멋집니다.》

옆에 서있는 군관의 얼굴엔 웃음이 노상 넘실거리였다.

《그래요. 참 훌륭해요. 이제 부전고원에 올라서면 경치가 더 다양하고 아름다워요... 군관동진 이고장에 처음 오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일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맞춰 다시 오게야 되겠습니까.》

《그건 왜요?》

《오게 되질 않을것 같습니다.》

처녀는 무엇을 더 물으려는듯 군관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소리없이 방긋 웃으며 령쪽으로 눈길을 가져갔다. 그러더니

《부전고원의 여름경치는 정말 아름다워요.》 하고 속삭이듯 말하는데 그 어조에는 말보다 더 큰

자랑이 숨어있었다.

사람들에게는 제각각 크든 작든 남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인력이란것이 있기마련인데 이 처녀의 경우는 좀 류다른것이였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어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것 같고 또 무슨 말یدن 걸어보고싶은 친근감을 자아내는 매력있는 처녀였다. 얼핏 관찰하매는 숙성한 처녀인데 가름한 얼굴에 밝게 피여있는 미소며 응석기가 약간 섞인듯한 길게 끄는 목소리, 입술을 살짝 오무리며 말하는 귀여운 모양이며가 수줍을 잘 타는 애된 처녀로 돼 보이게 했다. 미술가에게 있어서는 자연과 인간-이 모든것이 놓쳐서는 안될 하나의 화폭이기도 했다. 미술가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치마자락과 머리수건을 날리며 서있는 처녀쪽에서 왜선지 시선을 땔수 없었다.

《려관이 오늘은 만원이겠는데 어서 갑시다. 인차해가 떨어지겠는데 그러다 한지에서 새우면 어쩌겠소.》 군관의 말이였다.

《먼저 가세요, 전...》

무언가 도움을 바라는, 애원같은것이 섞여있는 선뜻 발길을 땔수 없게 하는 그런 목소리였다.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군관이 주춤하며 섰다.

《오늘 꼭 령을 넘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예-》

《무슨 기쁜 일이 있는 모양이구만. 보아하니 다른 일 같지는 않고...》

《기쁜 일이 있어요. 령을 꼭 넘어야겠는데... 저 군관동지, 함께 걸어보지 않겠어요? 아직 해가 있구만요.》

《령을 걸어서 넘잔말입니까?!》

군관은 아연해하는 얼굴빛으로 처녀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구름을 휘감은 아아한 산발쪽으로 시선을 옮기였다.

그 말을 듣고있던 미술가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연약해보이는 처녀가 너무 대담한 말을 꺼낸다 싶었다. 다만 그것이 톱담이 아님을 미술가는 잘 알고있었다. 처녀의 얼굴에 비껴있는 안타까움과 불안은 그는 예민하게 포착하고있었다. 그도 처녀를 돕고싶었다. 처녀의 기쁜 일에 더 큰 기쁨을 안겨주고싶은 마음이었다. 사실 부전령의 인클라인길을 한번 걸으면서 자연경치를 음미하는것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이고장 사람들조차 누구 하나 령을 걸어넘으려는 사람이 없는걸 보면 그것이 험치 않은 일인것 같았다.

《처녀동무, 나한테 톱담을 하는건 아니겠지요?》

군관이 묻자 처녀는 정색해서 《난 톱담을 좋아하지 않아요.》하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미술가가 처녀곁으로 다가서며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동문 이 령너머에 삽니까?》

《예, 백암리에 있습니다.》

《처녀동무가 령을 걸어넘겠다면 나두 따라가보지요.》

처녀는 동행자가 되어주는 미술가를 고마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무슨 수수께끼인지 모르겠구만. 사서 하는 고생이지만 이담에 옛말하게 될지 알겠소.》

이렇게 말하는 군관도 이미 결심을 내린 모양이였다.

《아이 정말 고마와요.》

처녀는 감사의 빛이 어린 정채도는 눈으로 군관과 미술가를 바라보는것이였다.

《동무두 참 대담하오. 인클라인으로 썩썩 올라가도 한시간나마 걸린다는데 걸어넘을 생각을 다 하고... 동무같은 처녀를 어떤 총각이 기다릴는지 허허... 부럽구만.》

젊은 군관은 사람 좋게 웃더니 《자 걸읍시다.》하며 씨원스럽게 산력으로 발걸음을 내걸었다.

일행 셋은 령을 따라 곧게 올리뻤은 인클라인길로 걸었다. 려관쪽으로 가던 사람들이 의아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하필 된고생을 사서 할게 뭐냐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이런 령을 좀 넘어봤나요?》

가운데서 걸던 처녀가 미안한 빛을 띠우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하루에도 칼날같은 고지 두세개쯤 뛰어넘는 숨씨가 있으니 내 걱정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군관과는 달리 미술가는 대답이 궁하였다.

《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 마침 다행한 일입니다. 이 좋은데 언제 한번 걸어넘어보겠습니까.》

처녀는 소리내어 웃었다. 맑은 웃음소리가 깊은 계곡을 씻어흐르는 시내물소리와 어울려 저편 산기슭에 부딪쳐서는 다시 은은한 산울림으로 변했다. 한번 목청껏 소리를 내질러보고싶은곳이다. 그러면 요란한 산울림이 되어 그 소리가 몇십리 골짜골짜 퍼져가며 령밑의 마을에까지 미칠것 같았다.

잠간씩 쉬는 때면 미술가는 곧 화판을 펼쳐들군했는데 두시간 나마 걷는 과정에 연필로 한 속사그림들이 열점을 남기고있었다.

절반구간이 지나자부터 인클라인길은 급경사를 이루기 시작했다. 마치도 평창히 긴 사다리를 령꼭대기까지 뻗쳐세운것 같은 협궤철길을 따라 세사람이 엉금엉금 네발걸음을 하였다. 앞에서 걷는 군관의 잔등은 땀으로 후줄근히 젖었다. 그뒤에서 걷는 처녀의 얼굴에서도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미술가는 맨뒤에서 더운 숨을 헉헉 내뿜으며 따랐다. 문득 미술가의 귀에 노래소리가 은은히 흘러들었다. 숨이 막힐것 같은 경황인데도 처녀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노래소리가 토막토막 새어나왔다.

《한떨기 피어도 ...해빛 향하고...

만떨기 피어도...해빛 향하네...》

숨을 토했다. 한소절씩 부르는 노래인데 음정이 매우 정확하고 선율이 맑고 세련돼 보였다.

(혹시 음악선생이 아닐까?)

미술가의 생각이었다. 앞에서 걷는 군관도 처녀의 노래소리에 취해버린듯 될수록 발소리를 죽이려 애쓰는것이 알렸다. 마음속으로 살뜰히, 따뜻이 흘러드는 그 노래소리가 저도모르는 새 힘이 되었는데? 미술가는 별로 힘든것 같지 않게 한구간을 돌아올랐다. 세사람이 걸으니 그리 심심치는 않았다.

부전령쪽대기에 떠있던 구름이 해가 지자 매우 사납고 음침한 기세로 푸른 공간을 먹어들기 시작했다.

《고원에 비가 내리는것 같구만요.》

근심스레 구름을 쳐다보던 처녀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비야 꽤 많지요. 곡식한테두 나쁠게 없을게 구...》

군관의 말을 처녀는 부정했다.

《고원에선 지금이 한창 가을철이야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밀보리가 쓰러집니다. 그럼 술한 잔 말이 허실때요.》

처녀의 눈빛이며 얼굴에 얼마나 큰 수심이 비쳤는지 미술가는 이 처녀가 틀림없이 협동농장의 기수가 아니면 분조장쯤 되리라고 생각했다.

검은 구름이 꼴짜기를 뒤덮더니 어둠은 급작스레 앞길을 가리워버렸다. 머리를 뒤로 제끼면 평마루에 있는 불빛이 등대처럼 깜빡이었다.

침묵을 뚫으며 레루장을 붙잡고 한치두치 기여오르는 일행에게는 뜻밖의 난관이 들이닥쳤다. 초저녁부터 산마루우에 걸려있던 은회색구름이 마침내 조화를 부리기 시작했다. 처음은 성긴 비발이 침묵을 녹여내며 차츰 비발이 굵어지며 침묵이 기쁨을 먹은듯이 번들번들해졌다. 발이 몹시 미끄러웠다. 자칫 잘못하여 발목에 힘을 주지 못하면 침묵을 디디면 쭈르륵 미끄러져 대어섯발자국씩 뒤걸음치기가 일쑤였다. 벌써 세번이나 미끄러진 처녀는 무릎뼈가 아픈지 한참씩 주무르고나서야 일행을 따라서군했다. 미끄러지면서도 손에 든 가방만은 땅에 닿지 않게 주의하는것이였다.

이런 산길에 단련이 부족한 미술가에게는 처녀의 경우보다 더했다. 하마트면 화판까지 꼴짜기안에 삼키워버릴만한 미술가는 처녀의 도움으로 뽕넝쿨을 걸어 화판을 뒤잔등에 단단히 비끼려했다.

그중 험하니 걷는 사람이 군관이였다. 코노래를 흥흥거리고 물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를 가진 군관은 더딘것이 답답한 모양 멀리 앞에서 한참씩 서서 두사람을 기다리군했다.

《처녀동무, 그 가방은 나한테 주시오.》

《일없어요.》

《글쎄 인주시오.》

《아이, 제가 들고 가요.》

《남의 도움을 받자면야 깨끗이 받을줄도 알아야지.》

가방을 빼앗다싶이 받아들던 그는 갑자기 눈이 등그래졌다.

《아니, 이게 뭐길래 이렇게 무겁소?》

《쇠불이가 좀 들어있어요.》

《쇠불이라니?》

《베어링 몇조하구 자동온도측정계를 두개 넣었어요. 좀 주의해주세요.》

군관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땀과 비로 뒤범벅이 된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동문... 중요한 국가사업때문에 이 길을 떠났구만요!》

《호호...》

《국가사업》이란 말이 우스웠는지 처녀는 하얀 이를 가지런히 드러내며 조용히 웃었다.

《허허허...》

군관도 허파 빈 소리로 웃었다.

일행은 잠시 숨을 태우고나서 또 걷기 시작했다. 걷는다기보다 손과 발로 기었다. 손으로 철길을 붙잡거나 산기슭의 나무가지들 붙잡아야 한걸음이라도 발을 옮겨놓을수 있다.

밤 11 시, 어느덧 여섯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나 평마루의 불빛은 아직도 아득히 보였다.

음산하고 침침한 골간을 지나자 일행은 다시 휴식을 했다. 이제는 한치앞도 분간하기 어렵게 어두웠다.

군관은 손칼로 길쭉의 쇠스래나무 한대를 끊었다. 그것은 다듬어 두어메터쯤 되게 만들더니 한끝은 자기가 쥐고 한끝은 처녀에게 내밀었다.

《자, 이걸 쥐시오. 좀 험할겁니다. 산악행군때 우리 전사들이 이런 방법을 적용하지요. 단단히 쥘야 합니다.》

밤 1 시, 또 두시간이 흘렀다. 일행의 앞길에 갑자기 허궁다리가 나타났다. 10 여메터가량 되는것이였다.

누구도 인클라인길에 이런 험악한 다리가 놓여있을줄 몰랐었다. 침묵을 잘못 짚으면 깊은 꼴짜기바닥에 떨어질수 있는곳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무를 꼭 쥐시오... 참 땀발로 건느는게 좋겠소.》

명령조가 섞인듯한 군관의 말에 처녀는 신을 벗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개, 두개 침묵을 기여넘었다. 미술가가 간간히 쿵알만해져서 그뒤를 따랐다. 차라리 어두운 밤이니 좋았다. 대낮이라면 이 허궁다리를 건널것 같지 않았다.

드디어 허궁다리구간을 넘어선 그들은 땀주머니

가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정말 단단한 시험인데요. 이럴줄 알았다면 애초에 떠날 생각조차 안하는건데 허허...》

군관의 선량한 두눈만이 어둠속에서 미소를 담고 반짝이었다.

《보통길이 아닙니다.》

미술가가 후유- 한숨을 내쉬며 한탄조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저때문에 이렇게들... 먼 려행길에 피로하실텐데 안됐어요. 정말... 비가 올줄은 몰랐지요 뭐.》

《미안할게 있습니까. 동문 이 길을 자주 걸어본 모양이구만.》

미술가의 말에 처녀는 당황해하며 실토하듯 기여드는 소리로 말했다.

《저도 처음이야요.》

《헛 참, 이런 엉터리라구야. 난 또 동무가 허허허...》

어처구니가 없는지 군관이 소리내어 웃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처녀동문 왜 오늘밤으로 령을 꼭 넘어야 했습니까?》

미술가는 여태 품고있던 의문을 풀고싶었다.

《제가 빨리 가서 건조로를 돌려야 한알의 보리라도 더 건져낼수 있어요. 하루 더 묵으면 그만큼 비바람에 넘어진 보리가... 싹이 트면 잘못됩니다.》

미술가는 가슴을 저릿하게 울려주는 처녀의 목소리에 그만 눈곱이 뜨겨워지는것 같았다. 처녀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것을 더 묻고싶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처녀쪽에 눈길을 떼지 않고있던 군관이 룡담기가 전혀 없는, 어딘가 정중한 어조로 묻는것이였다.

《같이 가면서도 난 동무가 무슨 일을 하고있는지 모르는데... 참 아까 떠날 때 한 실없는 소린 용서해주시시오.》

잠자코 있는 처녀의 눈이 밤하늘의 별빛처럼 유난히 빛났다. 미술가는 그가 방그레 웃고있음을 알았다. 군관은 기여이 알고싶은 모양이였다.

《무슨 일을 하는지 비밀입니까?》

《호오- 참 미안해요. 전... 이 령너머에 있는 백암리혁명소조원이예요.》

《혁명소조원!》

두사람은 동시에 놀라듯 나지막한 소리로 되받았다.

《그럴줄 알았습니다. 이 험한 길을 걷는 사람이 혁명소조원외에 누가 또 있겠습니까. 동문 아마 혼자서도...》

군관의 목소리는 갈린듯했다. 혼자서라도 걸어넘었으리라는 말을 하려던것 같았다. 두사람은 목구멍을 메우며 뭔가 묻글 솟구치는것이 있어 한동안 아무말도 못하고있었다.

미술가는 기뻐다. 자기가 애써 찾던 창작의 종자가 이 령길에서 문득 발견되고 무르익는것 같았다.

미술가의 머리속에 새로운 작품의 구도가 형성되어 갔다. 그것은 단순한 부전고원의 풍경이 아니였다. 부전고원의 자랑 부채꽃을 아름답게 종이우에 살려놓고싶었던 얼마전의 열정도 아니였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그는 머리속에 그려보고있었다. 고원의 꽃, 사철 아름답게, 아니 영원히 싱싱하게 피어나는 고원의 꽃을...

× ×

《령을 넘어서니 여름철인데도 막 오한이 났습니다. 우린 계속 걸었지요. 새벽빛이 푸름해지더군요. 5시쯤 됐을가? 그러니 꼬박 12시간을 걸은셈입니다. 백암리에 이르니 맨먼저 부채꽃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난 그렇게 넓고 평장히 긴 꽃밭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미 비가 댜은 뒤여서 새벽빛을 받은 청초한 잎들이 하늘을 향해 푸른 창경을 비껴들었는데 그 사이사이로 가웃이 머리를 쳐든 보라빛 꽃들이 막 살아움직이는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솟아오르는 해를 기다리며 미소를 짓는것도 같고 또 어찌 보면 소박하고 수집은 연푸른 빛갈속에 솟불과도 같은 붉은 빛을 품고있어 방금이라도 해빛을 받기만 하면 숨은 열정을 터뜨리며 활활 타오를것만 같았습니다. 뭔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꽃이였습니다.》

향긋한 고원바람이 피로를 깨끗이 몰아갔지요. 걸어도 또 걸고싶은 마음이였습니다. 길옆을 노랗게 물들인 금매화도 자그마한 꽃잎을 까덕거리며 간밤에 있는 일을 다 알고있노라 방긋방긋 웃는것 같았습니다.

우린 아쉬운대로 소조원동무와 헤어졌습니다.》

미술가 전동무는 여기서 자기 이야기를 마치였다. 차칸안은 얼마간 침묵이 흘렀다.

문득 누군가가 인클라인이 허궁다리를 지난다고 말하며 굳게 닫힌 차창을 열었다. 찬바람이 후욱- 밀려들었다. 그러나 춥다고 소리치르는 사람은 없었다. 나도 허궁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아닌게 아니라 머리칼이 쭈뼛거릴지경이다.

《듣구보니 우리 소조원에 대한 이야기구먼.》

눈을 가느스름히 쏘프리고 엉성한 이를 드러낸 채 여태껏 이야기에 심취되어있던 로인이 문득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체네가 고명미라구 우리 마을 소조원이웨다. 손님의 이야긴 내 처음 듣는건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때 일이 떠오르웨다.》

미술가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는데 이야기 차례를 꽤히 로인에게 넘겨줄 의향인듯했다.

《날알 말리는거 있지 않소다. 그게 뭐 건조로라든가... 우리 소조원동무가 고생고생했지요. 비는 자주 오지 보리는 익어가지 어떤 밭은 비바람에 넘

어진 보리에서 싹이 튼것두 있었수다. 이런 가위에 보리탈곡을 한다는거야 엄두두 낼수 없지요.

우리 소조원동무가 그 싹튼 보리이삭을 감싸쥐고 안타깝게 우는걸 내 이 눈으루 본 사람이우다. 글썄 우리 소조원체네가 농장난알을 몽땅 말릴수 있는 건조로를 만들기 시작한게 아니겠소.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요. 우리두 그전에 술한 나무를 떼가며 집집의 구들바닥에 난알을 말리워보긴 했수다만 어림이나 있었겠소. 원래 부전땅이 해는 가깝구 해별은 먼 고장이우다. 장마철에 하늘신세지기가 다 틀린 일이지요. 그 많은 난알을 싹인다고 야단이였수다. 그런데 글썄 소조원체네가 창고 한칸보다두 작은 조그마한 건조로에서 농장난알을 다 말린다는게 아니겠소. 믿질 않았지요. 우리 사람들이란게 원체 고집이 좀 있어놔서... 손털고 있을순 없구 맥이 났됐수다.

소조원체네가 무슨 계산인지 하느라구 꼬박 한주일을 밝히다싶이 했지요. 건조로를 만드느라구 어느 하루 편히 쉬줄 알우? 이자 얘기한게 아마 그날 갈수다. 소조원이 완성돼가는 건조로앞에 새 벽돌이 나타나질 않았겠소. 기차가 안다니는데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 그저 발췌이 웃으며 자동차편에 왔다고 합디다. 허 원참, 기막힌 사연은 모르구... 우리 소조원이 온종일 자동온도계를 달구 전동기를 설치하구 끝내 건조로에 불을 지폈수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나무단 몇개 땀것 같은데 벌써 보리를 두 톤이나 말리웠다지 않소. 관리위원회 일꾼들두 그

렁구 농장원들 모두가 말린 보리를 제손으로 만져 보고서야 머리를 끄덕거렸수다. 보수주의, 경험주의두 건조로에서 다 타버렸지요.

마른 난알을 두줌에 받쳐든 우리 소조원의 얼굴에 웃음이 비깅디다. 그 착한 마음을 우린들 왜 읽지 못했겠소. 부전땅의 가을걷이를 근심 말아달라고 어버이수령님께 보고를 올리는 그 마음을 말이웨다. 내 딸이라문사 열싸 안아주고싶었건만 어찌겠수...

한번들 와보우다. 다른 농장에서두 우리 건조로 신세를 종종 지오다.》

로인은 자기네 소조원에 대한 자랑을 많이 퍼놓았다. 그런대로 나의 생각은 깊어갔다.

혁명의 전위, 투쟁의 기수로 청춘을 빛내여가는 우리의 미더운 세대- 조국땅 그 어디에 가도 새 생활, 새 기준을 창조해가는 3 대혁명소조원들의 보람찬 투쟁이 있다. 어버이수령님께 대한 충성의 일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다만 부전고원의 혁명소조원 고명미동무의 생활에서 그저 스친다면 스쳐버릴수도 있는 보통생활의 하루였을뿐이다.

부전땅의 풍경을 아름답게 장식해가고있는 사람들, 미더운 혁명소조원들을 어서 찾아가 많은 이야기를 들이리라는 욕망으로 하여 나의 마음은 자꾸만 인클라인을 앞서 달렸고 가슴이 그저 뻗듯해왔다.